

Jeonbuk Institute

기본연구

2023-07

2022 전라북도민 의식구조 조사

The 2022 Value System Survey of the Residents of Jeollabuk-do

이중섭 최윤규 성효인



설립목적

전라북도 및 전북지역 시군의 지역발전과 여성정책 등에 관련된 정책과제에 대하여 체계적인 조사·연구 활동을 통하여 지역단위의 정책개발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역 발전에 기여

주요기능

- 도정에 관한 중장기 개발계획 및 주요현안에 대한 조사 연구
- 지역경제, 지역발전, 지역여성에 관한 연구 및 정책 대안의 모색
- 정부, 전라북도 및 국내외의 연구기관과 민간단체의 각종 용역 수탁
- 연구 관련도서 및 간행물 출간
- 국내외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및 정보 교류 협력

연구진 소개

이중섭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박사
전라북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단장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최윤규

전북대학교 언론학박사(신문방송학)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성효인

한양대학교 관광학 석사
전북연구원 전문연구원

Jeonbuk Institute

기본연구

2023-07

2022 전라북도민 의식구조 조사

The 2022 Value System Survey of the Residents of Jeollabuk-do

이중섭 최윤규 성효인

연구진 및 연구 세부 분담

연구책임 이중섭 | 연구위원 | 연구총괄, 제1장, 4장
공동연구 최윤규 | 연구위원 | 제1장 일부, 2장
 성효인 | 전문연구원 | 제3장

연구관리 코드 : 22GI16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으로서
전북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1. 연구목적 및 방법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도민의 사회적 가치와 의식은 전라북도 전체에서 더 나아가서는 한국 사회의 전반의 의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어 도민의 사회적 주요 쟁점사안에 대한 가치판단의 기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분석하기 위한 연구 필요
- 도민의 주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객관적으로 진단함으로써 전라북도 도정의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
- 도민의 가족이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 그리고 정치와 경제상황에 대한 미래 전망 등에 대한 주관적 의식과 태도를 진단함으로써 도민 중심의 정책개발의 중요한 정책적 논거로 활용 가능
- 전라북도의 주요 현안인 저출생과 인구위기의 문제, 사회참여와 공동체성에 대한 태도, 그리고 도민간의 사회적 신뢰 정도와 정체성 등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서 전라북도의 도민이 인식하는 현재의 사회적 가치 수준을 진단하고 이를 근거로 향후 전라북도의 미래를 위한 정책의 방향을 설계하는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

■ 연구방법

- 본 연구는 전북도민의 전반적인 사회적 가치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
- 조사대상은 전라북도 관내에 거주하는 19세 이상의 성인으로 온라인 조사와 면접조사를 병행하였고 조사대상자의 표집은 전북연구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민모니터링단과 조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온라인 패널로서 도내 14개 시군의 인구구성비와 남성과 여성의 성비에 맞춰 표본을 배분하여 조사 진행
- 전라북도 도민인식조사는 가족 및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 정치인식과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 도민 및 국민으로서 정체성과 신뢰, 사회활동 및 지역사회환경에 대한 평가 등으로 문항을 구성하여 조사를 진행

2. 결론 및 정책제언

■ 결론 및 정책제언

- 전라북도 도민의 및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에서는 배우자 선택 시 가장 중요한 점으로는 1순위에서 성격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경제력, 가정환경, 장래성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출산율 추정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이상적인 자녀수에 대해서는 2명이라는 응답이 과반이 넘는 63.1%였고 3명 응답은 20.2% 그리고 1명 응답은 10.0% 등의 순으로 나타나 이상적인 자녀의 수는 합계출산율이 0.8명대에 불과한 현실과는 다소 괴리를 보임
- 전북도민은 약 44.5% 정도가 여성차별이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특히 남성조차도 34.9%는 여성차별이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있음
- 도민의 정치성향으로 전북도민은 진보가 45.6%로 중도 38.6%보다도 높았고 정치에 대한 관심도도 50.4%로 관심이 없다는 20.4%의 두배 이상 높게 나타나 전북도민은 진보의 정치성향에 정치 고관심층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경제적 생활수준에 대한 평가에서는 중하류 이하로 인식하고 있는 도민이 34.9%로 중상류층 이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도민의 비율인 11.4%보다도 약 세 배 이상 높게 나타나 전북도민은 다수가 중하류층 이하로 인식하고 있음
- 전북도민의 직업에 대한 만족정도는 48.2%로 불만족한다는 의견보다도 월등히 높게 나타났고, 직업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으로 보수와 개인적 적성 그리고 장래성 등이 높은 비율을 차지함
- 자녀출산 계획이나 적정 자녀수, 이주계획 등에 대한 조사는 향후 전라북도의 가족정책과 인구정책의 큰 방향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음
- 또한 전라북도 도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정체성 그리고 향후 지역 경제상황에 대한 전망은 전라북도의 미래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실천과제를 도출하는데 의미있는 시사점이 될 수 있음

차례

CONTENTS

요 약 i

제1장 연구배경 및 목적

- 1. 연구배경 3
- 2. 연구목적 4

제2장 이론적 고찰

- 1. 주민의식 조사 동향 7
- 2. 도민의식 측정변수 10
 - 가. 인적자본 10
 - 나. 문화자본 11
 - 다. 경제자본 12
 - 라. 사회자본 12

제3장 분석결과

- 1. 조사방법 및 내용 17
-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8
- 3. 가족 및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 20
- 4. 정치인식과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 49

5. 도민 및 국민으로서의 정체성과 신뢰 68

6. 사회활동 참여와 공동체성 100

7.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평가와 인식 122

제4장 요약 및 결론

요약 및 결론 143

참고문헌 146

영문요약 (Summary) 149

부 록 155

2023 전북 행복지표 및 전북도민 의식구조 조사 155

표 차례

LIST OF TABLES

[표 1-1] 2019~2021년 한국 레가툼 번영지수 변화	3
[표 2-1] 최근 5년 간 지자체별 주민의식 조사사례	8
[표 2-2] 인적자본의 구성요소	10
[표 2-3] 문화자본의 구성요소	11
[표 2-4] 경제자본의 구성요소	12
[표 2-5] 사회자본의 구성요소	13
[표 3-1] 사회자본의 구성요소	17
[표 3-2] 사회자본의 구성요소(표계속)	18
[표 3-3] 응답자 특성	18
[표 3-4] 응답자 특성(표 계속)	19
[표 3-5] 응답자 특성(표 계속)	20
[표 3-6] 배우자 선택 시 가장 중요한 점	20
[표 3-7] 배우자 선택 시 가장 중요한 점(표계속)	21
[표 3-8] 배우자 선택시 중요한 점(순위 종합)	22
[표 3-9] 결혼과 가족에 대한 주관적 인식	24
[표 3-10] 결혼에 대한 인식	25
[표 3-11] 이혼에 대한 인식	26
[표 3-12] 재혼에 대한 인식	27
[표 3-13] 자녀에 대한 인식	28
[표 3-14] 아들에 대한 인식	29
[표 3-15] 노부모 부양에 대한 인식	30
[표 3-16] 낙태 및 혼전 동거 등에 대한 주관적 인식	31
[표 3-17] 사형제도에 대한 인식	32
[표 3-18] 낙태에 대한 인식	33
[표 3-19] 혼전동거에 대한 인식	34
[표 3-20] 동성애에 대한 인식	35
[표 3-21] 이상적인 자녀의 수	36

[표 3-22] 성차별에 대한 인식	37
[표 3-23] 가사돌봄의 책임에 대한 인식	39
[표 3-24]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1순위)	41
[표 3-25]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순위종합)	43
[표 3-26] 복지와 분배에 대한 주관적 인식	45
[표 3-27] 복지 책임에 대한 인식	46
[표 3-28] 능력주의에 대한 인식	47
[표 3-29] 경제적 분배의 공정성 정도에 대한 인식	48
[표 3-30] 정치성향에 대한 주관적 인식	49
[표 3-31] 정치성향에 대한 주관적 인식(표계속)	50
[표 3-32] 정치에 대한 관심정도	50
[표 3-33] 정치에 대한 관심정도(표 계속)	51
[표 3-34] 주관적 생활수준에 대한 평가	52
[표 3-35]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주관적 신뢰정도	53
[표 3-36]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주관적 신뢰정도 (표 계속)	54
[표 3-37] 현재 직업에 대한 만족 정도	56
[표 3-38] 직업선택 시 고려사항(1순위)	58
[표 3-39] 직업선택 시 고려사항(순위종합)	60
[표 3-40] 현재 재테크 수단	61
[표 3-41] 생활비 중 가장 부담스러운 항목(1순위)	63
[표 3-42] 생활비 중 가장 부담스러운 항목(1순위)(표 계속)	64
[표 3-43] 생활비 중 가장 부담스러운 항목(순위종합)	66
[표 3-44] 생활비 중 가장 부담스러운 항목(순위종합)(표 계속)	67
[표 3-45] 전라북도 도민의 가장 큰 장점에 대한 생각(1순위)	69
[표 3-46] 전라북도 도민의 가장 큰 장점에 대한 생각(순위종합)	70
[표 3-47] 전라북도 도민의 가장 큰 단점에 대한 생각(1순위)	72
[표 3-48] 전라북도 도민의 가장 큰 단점(순위종합)	74
[표 3-49] 전라북도의 차별에 대한 인식	76
[표 3-50] 전라북도의 발전전망	77

표 차례

LIST OF TABLES

[표 3-51] 타지역으로의 이사에 대한 인식	78
[표 3-52] 타지역으로 이사하고 싶은 주된 이유(1순위)	80
[표 3-53] 타지역으로 이사하고 싶은 주된 이유(1순위)(표계속)	81
[표 3-54] 타지역으로 이사하고 싶은 주된 이유(순위종합)	82
[표 3-55] 타지역으로 이사하고 싶은 주된 이유(순위종합)(표 계속)	83
[표 3-56] 전라북도 도민으로서의 자긍심 정도	84
[표 3-57] 전라북도 도민에 대한 주관적 평가	85
[표 3-58] 전라북도 도민으로서의 자랑스러움 정도	86
[표 3-59] 자녀의 전라북도 거주에 대한 인식	87
[표 3-60] 전라북도의 거주환경에 대한 인식	88
[표 3-61] 전라북도의 역사에 대한 인식	89
[표 3-62] 전라북도 도민의 인정과 정감에 대한 인식	90
[표 3-63] 전라북도 도민의 애항심에 대한 인식	91
[표 3-64] 전라북도 도민의 단결심에 대한 인식	92
[표 3-65] 전라북도 도민의 신뢰정도에 대한 인식	93
[표 3-66] 전라북도 도민의 적극성에 대한 인식	94
[표 3-67] 전라북도 도민의 포용력에 대한 인식	95
[표 3-68] 대한민국 국민과 전라북도 도민으로서의 자긍심 정도	96
[표 3-69]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에 대한 인식	97
[표 3-70] 내 자녀의 대한민국에서의 거주에 대한 인식	98
[표 3-71] 대한민국의 거주환경에 대한 인식	99
[표 3-72] 현재 지역모임이나 단체의 참여여부	100
[표 3-73] 현재 참여하고 있는 모임이나 단체의 개수	101
[표 3-74] 지난 1년간의 개인 및 단체에 기부여부	102
[표 3-75] 지난 1년간 개인 및 단체 대상 평균 기부금액	103
[표 3-76] 지난 1년간 공연 및 전시관람 이용정도	104
[표 3-77] 공연 및 전시관람 이용만족도	105
[표 3-78] 지난 1년간 영화관람 정도	106
[표 3-79] 영화관람 이용만족 정도	107

[표 3-80] 지난 1년 간 문화여가활동 이용정도	108
[표 3-81] 문화여가활동 만족정도	109
[표 3-82] 전반적인 문화여가시설 이용 만족정도	110
[표 3-83] 규칙적인 운동여부	111
[표 3-84] 월평균 운동횟수	112
[표 3-85] 몸이 아플 때 가족 이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존재여부 ..	113
[표 3-86] 몸이 아플 때 가족 이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수	114
[표 3-87] 갑작스런 경제적 위기에 가족 이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존재여부	115
[표 3-88] 갑작스런 경제적 위기에 가족 이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수	116
[표 3-89]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가족 이외 사람의 존재여부	117
[표 3-90]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가족 이외 사람의 수	118
[표 3-91]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할 사람의 유형	119
[표 3-92]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할 사람의 유형(표 계속) ·	120
[표 3-93] 반려동물 양육여부 및 유형	121
[표 3-94] 거주지역의 환경오염 정도에 대한 인식	122
[표 3-95] 주된 정보습득 경로	123
[표 3-96] 주된 정보습득 경로(표계속)	124
[표 3-97] 가장 신뢰하는 매체	125
[표 3-98] 가장 신뢰하는 매체(표 계속)	126
[표 3-99] 온라인 매체 유형별 이용정도	127
[표 3-100] 포털사이트의 유형별 이용정도	128
[표 3-101] 유튜브 이용정도	129
[표 3-102] SNS 유형별 이용정도	130
[표 3-103] 인터넷 메신저 유형별 이용정도	131
[표 3-104] 내가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주관적 인식	132
[표 3-105] 내 거주지역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인식	133
[표 3-106] 내 거주지역 주민에 대한 신뢰정도에 대한 인식	134
[표 3-107] 내 거주지역의 안전성 정도에 대한 인식	135

표 차례

LIST OF TABLES

[표 3-108] 거주지역의 이웃과의 도움정도	136
[표 3-109] 내 거주지역 이웃과의 교류정도	137
[표 3-110] 거주지역 모임의 참여정도	138
[표 3-111] 내 거주지역에 대한 자원봉사 참여정도	139



제 1 장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



제 1 장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2021년 영국 레가툼연구소(Legatum institute) 발표에서 한국(South Korea)의 교육·보건·경제수준 분야는 각각 2위, 3위, 9위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사회 구성원 간 신뢰, 존중, 협력을 의미하는 사회자본 수준은 전체 167개국 중 147위이다.

[표 1-1] 2019~2021년 한국 레가툼 번영지수 변화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안전·보안	35	35	37
개인자유	46	42	43
통치	30	29	30
사회자본	142	139	147
투자환경	21	18	19
기업환경	33	36	46
접근성 및 인프라	20	17	17
경제수준	10	10	9
삶의 환경	25	24	24
보건	4	3	3
교육	2	2	2
자연환경	75	71	56
전체 순위	29	28	29

지난 3년 사회적 자본 순위의 변화 추이를 보더라도 한국의 사회자본은 전체 국가 중에서도 낮은 순위를 차지하였다. 사회자본이 개인 간의 신뢰, 사회 네트워크, 제도에 대한 신뢰, 개인과 가족의 관계, 시민의 참여도 등을 조사하여 점수로 평가된다는 점에서 아직 한국사회가 서로를 신뢰하고 협력하는 수준이 미흡하며, 개인의 이익만 극대화하는 성향이 강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공동체는 사람들이 모여 목표와 삶, 정서적인 유대, 상호 의무감, 공동 이해관계 등을 공유하여 단순 결속을 넘어 좀처럼 와해되지 않은 질적으로 강하고 깊은 관계를 형성한 조직을 뜻한다(네이버백과사전,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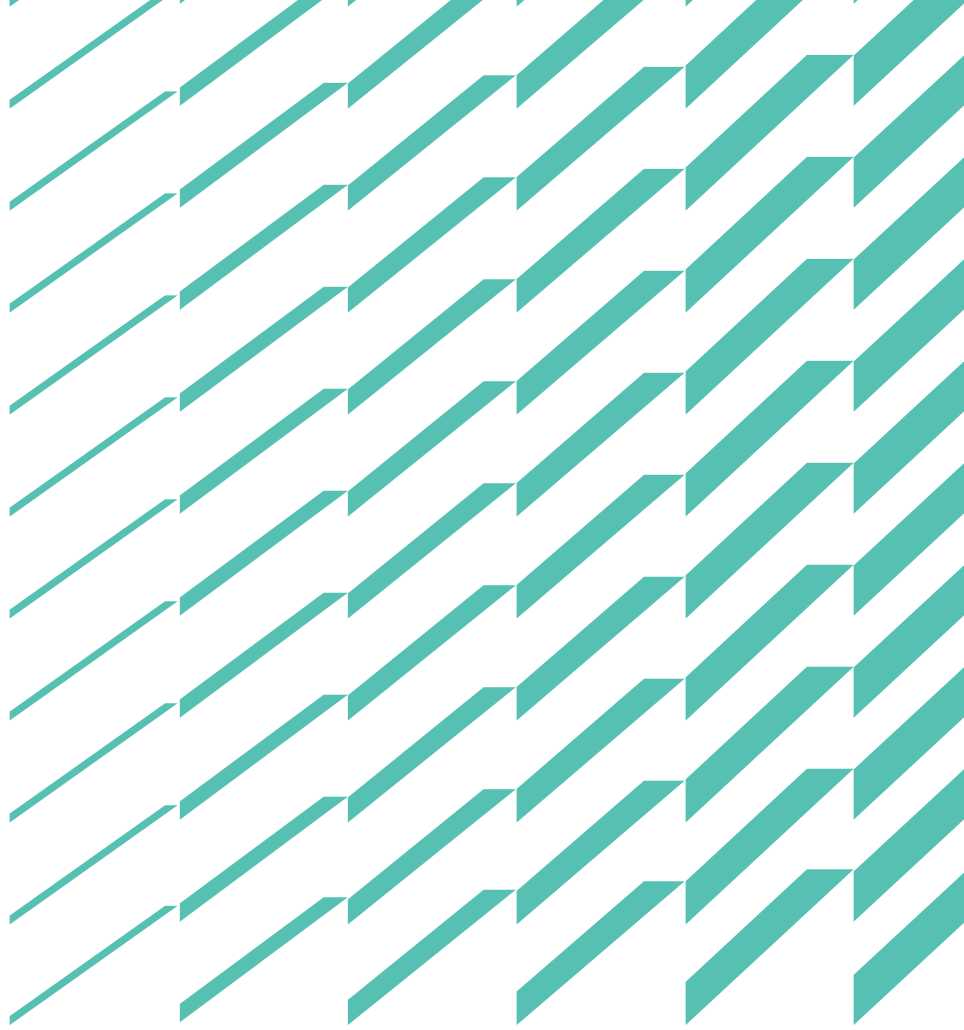
한국의 전통사회에서 개인은 출생과 동시에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으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 지리적·사회적 공간범위에서 지역민과 관계를 맺기 때문에 개인은 친족과 지역공동체로 결합된다(김필동, 2002).

그러나 한국사회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이촌향도(離村向都) 현상이 급속하게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개인과 지역공동체의 연결은 약화되었다. 사회 구성원들 간에 지역공동체 의식이 강할수록 정책실행 과정에서 갈등해결 및 합의 등 사회적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으므로 효율적인 정책 수립 및 집행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차후 효율적인 지역정책 수립을 위해 공동체를 이루는 구성원들의 의식구조와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찾아 이들의 영향관계를 규명하는 일은 중요하다. 그러나 기존 도민의식 연구는 주로 사회 현안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문항목별 결과에 따라 현황발표 및 정책제안에 그치고 있다. 이런 점에 착안하여 2022 전라북도민 의식구조 조사는 도민들의 사조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설정해 인과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개인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 변인으로 자본에 주목하였다. 보통 '자본'은 사전 상으로는 '숫자로 경제적 가치를 매길 수 있는 존재'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사회과학계에서는 화폐가치를 가진 경제자본 외에도 심리·문화·사회 등 무형의 가치도 자본으로 인식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경제적 자본은 개인의 생계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나 무형의 가치를 지닌 자본도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므로 사회과학 연구에서 자본은 사회구성원의 특성을 파악하고 사회구조를 분석하는 일에 활용되고 있다. 또한 자본 관련 이론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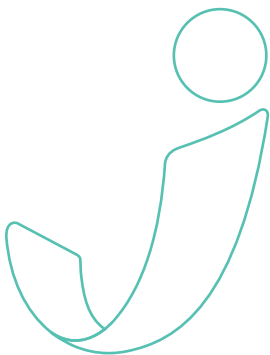
그래서 본 연구는 사회과학 연구에서 사회구성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었던 문화자본론을 이론적 논의에서 다뤄 본 연구에 활용할만한 자본의 유형을 정한 후 전라북도 도민의 각 자본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탐색하고자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도민의식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제 2 장

이론적 고찰

1. 주민의식 조사 동향
2. 도민의식 측정변수



제2장 이론적 고찰

1. 주민의식 조사 동향

중앙부처의 조사는 모집단을 전국민으로 설정하여 지역별 샘플 수가 적기 때문에 지자체가 이를 활용하는데 한계를 지닌다. 중앙정부는 주요 사회 현안이나 경향에 대해 조사를 주로 실시한다. 지역 구분은 설문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분류 수준에 그치고 있다.

1991년 지방선거가 부활된 이후 지방자치시대에 지역적 특성에 맞는 정책 수립이 중요해졌다. 따라서 지역민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들의 의견을 좀 더 효율적으로 수렴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민을 둘러싼 주거와 환경, 교육, 복지 등 사회의 다방면으로 주민의식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주민의식조사를 통해 지자체들은 지역민들이 원하는 정책과 현재 진행 중인 정책의 보완점도 알 수 있으므로 주민의식조사는 지역민들의 삶의 질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의미를 갖고 있다. 주민의식조사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와 삶의 만족도, 생활수준 등 같은 생활의 안정성과 관련된 영역뿐만 아니라 시행 중인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의견조사도 진행되었다. 지자체들은 도민의식조사 외에 1년 주기로 사회조사를 실시하여 도민현황을 파악하고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광역자치단체의 주민의식조사를 살펴보면(표 2-1 참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광역 수준의 인식조사(경기도민이 바라본 코로나19, 2020/코로나 19에 대한 강원도민 의식조사, 2020)가 두드러진다. 경기도는 ‘경기도 정체성 및 도민 자긍심 강화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2019)’에서 도민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경기도 이미지와 지역 인식과 활동, 개인의 삶과 지역 공동체 등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였다. 경기도는 ‘2020 경기도민 삶의 질 조사(2021)’에서 소득과 소비, 고용, 건강, 교육 등 실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영역을 조사하였다. 충청남도는 ‘2020 도민의 삶과 정책(2021)’에서 사회통합과 공동체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시군별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 밖에 지자체 차원의 다양한 조사들이 진행되고 있다.

[표 2-1] 최근 5년 간 지자체별 주민의식 조사사례

구분	과제명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2018년도 서울시민 인권의식 실태조사(2018)	서울시민의 인권의식과 경험을 조사 후 인권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함
	서울시민 남북교류협력 의식조사(2020)	서울시민의 남북교류 협력 의식조사를 통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우선순위 설정 및 향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자 함
경기도	2017 경기도에 바란다(2018)	도민이 생각하는 도정이슈를 선별하기 위해 경기도민 대상으로 2017년 개인적·사회적 소망 및 경기도에 바라는 점을 조사함
	경기도 정체성 및 도민의 자긍심 강화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2019)	경기도 지역정체성 확립 목적으로 지역에 대한 도민의 인식 파악 후 차별화된 정체성 확립방안 및 도민 자긍심 강화를 위한 사업방향 제안
	경기도민이 바라는 코로나19(2020)	코로나 19가 경기도민 생활에 미친 영향과 코로나 19에 대한 경기도민 의식 파악 및 코로나 19 사태 대응방안을 모색함
	2020 경기도민 삶의 질 조사(2021)	경기도민 삶의 질에 대한 횡단면 조사 시행, 조사영역을 양적·질적 차원으로 구분하고 기존 조사에 비해 소득·소비·고용·건강·교육 등 생활의 다양한 영역을 조사항목으로 추가하여 도민의 삶의 실태를 파악함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평화·통일 인식조사 : 시민과 중·고교생을 중심으로(2020)	남북평화에 있어 인천시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한 다양한 연령층의 시민들의 인식을 조사함으로써 인천시의 사업방향을 모색하고 평화통일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수도권 매립지 종료 및 자원순환 정책 시민인식 조사(2021)	현재 인천시에서 시행중인 매립지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조사하여 매립지 사업종료시기와 향후 쓰레기 매립사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인천e음 카드 중심의 인천시 경제정책 시민인식 조사(2021)	인천 e음 카드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조사를 통해 정책 효과 조사 및 보완점을 도출하여 차후 인천 e음 카드 사업 방향을 도출하고자 함
강원도	코로나 19에 대한 강원도민 의식조사(2020)	코로나 19가 강원도민의 의식과 삶의 방식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여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를 조사하고자 함
충청남도	도민 안전의식(인식) 수준 조사(2018)	충청남도의 안전의식 수준을 과거조사결과와 비교하고 그동안 시행된 안전교육·홍보·광고 등 효과 조사 및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을 제안하여 안전문화정착을 목표로 함
	충청남도 복지욕구 실태조사(2020)	복지서비스 관련 충청남도 도민들의 욕구를 파악하여 이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충남형 복지서비스 체계와 정책 구축방향을 모색함
	2020 도민의 삶과 정책(2020)	환경·안전·여가문화·사회통합과 공동체·청년노동 분야별로 충청남도 시군별 현황파악 후 정책 방향을 제시함
충청북도	미취업 청년의 취업(준비)활동과 정신건강의 관계 -청년패널조사를 중심으로-(2018)	청년 실업 증가에 따라 충청북도 청년을 대상으로 패널조사를 통해 이들의 취업상태, 취업활동과 정신건강 관계를 파악하여 충북 청년 맞춤형 사업방향을 모색함
	바다없는 충북지원 특별법 도민 인식조사(2022)	충북지원특별법(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도민 인식을 조사 후 해당 특별법에 대한 도민들의 긍정의사를 실질적인 통계수치로 밝혀 국회 발의와 통과를 원활하게 하고자 함
제주도	제주도민의 여가생활 실태와 활성화 방안(2018)	위라벨 경향 확산에 맞춰 제주 도민 맞춤형 여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제주도민의 여가현황과 현 제주도 여가정책을 파악하여 차후 여가사업 및 정책 추진 방향을 도출함
	탐라문화제 평가 및 진단(2022)	1962년부터 진행된 탐라문화제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과 평가를 조사하여 탐라문화제의 향후 사업방향 및 개선과제를 도출함

다만, 경기도와 강원도를 제외하면 일부 지역들은 도민의 인식 혹은 의식전반에 대한 조사보다는 특정 주제의 인식이나 태도를 탐색하기 위한 조사가 주를 이룬다. 가령 서울시는 2018년도에 인권을 주제로 시민인권의식에 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시민인권 의식과 경험 그리고 인권증진을 위한 방안을 주요 조사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인천광역시도 시민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평화와 통일을 주제로 한 인식조사를 수행하였고, 수도권 매립지 등의 행정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시민의식조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충청남도는 도민의 안전의식이나 복지욕구를 특정하여 이에 관련한 도민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다만, 충청남도는 도민의 삶 전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도민이 생각하는 삶의 전반적인 내용을 조사문항으로 구성하여 주관적인 인식과 태도를 조사하였다.

이외에도 충청북도는 미취업 청년의 취업활동이나 충청북도의 주요 현안인 충북지원 특별법에 대한 도민의 인식을 조사한 바 있고, 제주도는 관광도시에 맞게 주요 현안인 도민의 여가생활실태 그리고 탐라문화제 평가와 진단 등 관광, 그중에서도 특정한 주제를 중심으로 한 인식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처럼 도민인식조사는 도민의 삶의 구성하는 다양한 분야의 주관적 인식을 조사하는 지역도 있지만 대체로 다수 지역에서는 해당 지자체의 정책과 관련한 주요 쟁점이나 관련 정책에 대한 도민의 욕구나 수요를 조사하기 위한 인식조사로 진행하였다.

도민인식에 대한 조사는 지역의 특정한 쟁점을 대상으로 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조사로 진행되어 온 사례가 다수이고 사회전반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이나 가치관 등을 조사하는 연구는 아직까지 많이 진행되지 못했다. 그래서 특정한 주제가 아닌 사회의 다양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탐색하기 위한 시민 혹은 도민인식조사는 조사내용을 어디까지 포괄하여 주민의 인식과 태도를 탐색할 것인가가 쟁점이 된다. 가령,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인식이나 태도를 조사할 경우 조사의 내용을 사회전반에 초점을 두고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사회와 경제, 문화와 역사 그리고 정체성 등을 세분화하여 다양한 내용으로 조사를 진행할 것인지 등이 쟁점이 된다.

본 연구가 도민의 가치관이나 사회인식 등을 중심으로 도민의 주관적 인식을 탐색하는데 있다는 점에서 조사의 내용은 사회적 가치와 일반적인 경제인식 그리고 지역사회의 신뢰도나 정체성 등 이른바 사회적 자본의 영역으로 제한하여 조사문항을 구성하고자 한다.

2. 도민의식 측정변수

가. 인적자본

인적자본은 뛰어난 역량을 보유한 개인을 의미한다. 뛰어난 지식, 기술, 경험 등을 보유한 개인이 자신과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을 만나 집단을 이룬다면 해당 집단은 뛰어난 성과를 낼 확률이 높다. 그래서 선행연구에서 집단 이익을 창출하는 데 있어 구성원 개인별 역량이 중요하다는 관점이 유지되고 있다.

지역연구에서 우수한 인적자본을 지역성장의 요인으로 주목하고 있으며 이를 증명하는 다수의 선행연구들도 존재하고 있다. 심재희(2003)는 한국의 9개 광역자치단체를 연구대상으로 삼아 교육투자에 의해 형성된 인적자본이 지역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증명하여 인적자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호유정(2008)은 성장률이 높은 지역에서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지역산업구조에 따라 인적자원이 지역 소득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다름을 밝혀내 지역산업구조에 따라 차별화된 인적자본 활용전략을 제안했다. 그동안 진행된 선행연구에서 인적자본의 경제적 효과는 수학모형을 활용하여 증명했으며, 인적자본이 다른 변인에 미치는 영향은 아래와 같은 요인을 인적자본의 구성요소로 설정하여 영향관계를 밝혀왔다.

[표 2-2] 인적자본의 구성요소

구분	인적자본 구성요소
김현숙(2011)	부모의 학력·직업
문유정·조준·박상하(2019)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
서지원·이수진(2021)	교육수준, 만성질환, 경제활동상태, 인터넷 사용
이홍직(2009)	주관적 건강상태, 교육수준, 고용상태, 한달 수입, 주관적인 경제적 지위

나. 문화자본

부르디외, 피터슨, 디마지오는 공통적으로 상위계층은 하위계층과 구별되는 뚜렷한 특징이 있다고 주장하였고, 현재까지도 이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래서 사회과학 연구에서 문화자본은 계층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계급을 재생산하는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

문화자본은 다양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처음 문화를 계층기준으로 제안한 부르디외는 문화자본을 체화된 문화자본(embodied state), 객체화된 문화자본(objectified state), 제도화된 문화자본(institutionalized state)로 구분하였다. 체화된 문화자본은 가정에서 제공받은 생활환경으로 인해 본인의 내면에 확고하게 형성한 문화취향을 의미하고, 객체화된 문화자본은 화폐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재화를 뜻하며, 제도화된 문화자본은 학력을 의미한다(박보경·배상훈, 2019).

더불어 부르디외는 획득경로에 따라 문화자본을 상속된 문화자본과 획득된 문화자본으로 구분했다. 상속된 문화자본은 개인이 어린시절부터 제공받은 문화교육 경험을 의미한다. 문화에 관심을 갖고 자녀가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문화활동과 교육을 제공해줄 수 있는 부모로 인해 자녀는 상속된 문화자본을 얻게 된다. 그래서 부모의 사회계급과 개인의 교육경험이 상속된 문화자본을 측정하는 지표가 된다. 획득된 문화자본은 문화활동에 대한 개인의 관심, 참여의지, 지식 등 개인의 내면과 자질에 초점을 두고 있다. 결국 내적으로 형성된 취향뿐만 아니라 개인을 둘러싼 모든 사회적 상황과 지식 등과 같이 개인과 관련된 요소들이 문화자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아래 표와 같이 선행 연구마다 문화자본 구성요소는 다양하다.

[표 2-3] 문화자본의 구성요소

구분	문화자본 구성요소
기영화(2017)	여가생활, 문화프로그램, 문화공간, 문화재, 지역축제, 고유전통
김수정·이명진·최섯별(2015)	개인 문화지식, 개인 문화소양, 개인 문화활동
유은영·진현정(2016)	아버지의 학력, 본인의 학력·직업, 예술교육경험, 태도(문화적 소양, 활동에 대한 선호도, 직업에 대한 선호도), 지식·정보
최명일·이귀옥·박조원(2017)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 및 지식, 문화예술활동 참여

다. 경제자본

경제자본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으로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등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경제자본은 화폐적 가치를 지니며, 개인의 의식주 수준을 결정한다. 자본의 종류 가장 고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으며, 경제자본만을 단일변수로 하여 진행한 연구는 부재한 편이다. 경제자본은 주로 문화자본론 연구에서 문화자본, 사회자본과 함께 연구변인으로 사용되고 있다. 비록 경제자본이 사회과학연구에서 다른 자본에 비해 변인으로 활용된 경우는 적으나 경제자본은 삶을 풍요롭게 하는 핵심요인으로 개인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고 소비 수준을 결정한다. 선행연구 상 경제자본은 개인 소득·재산, 가구 소득 등으로 측정되었다.

[표 2-4] 경제자본의 구성요소

구분	경제자본 구성요소
문유정·이명신(2021)	개인소득, 가구원 소득, 개인이 보유한 재산, 가구원 보유 재산
유은영·진현정(2016)	월평균 가용자본(본인월급, 배우자 월급, 월 이자소득, 자녀에게 받는 용돈, 본인연금, 배우자연금), 경제적 계층 귀속감
최민정(2015)	1인당 가구소득(근로소득, 사업 및 부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라. 사회자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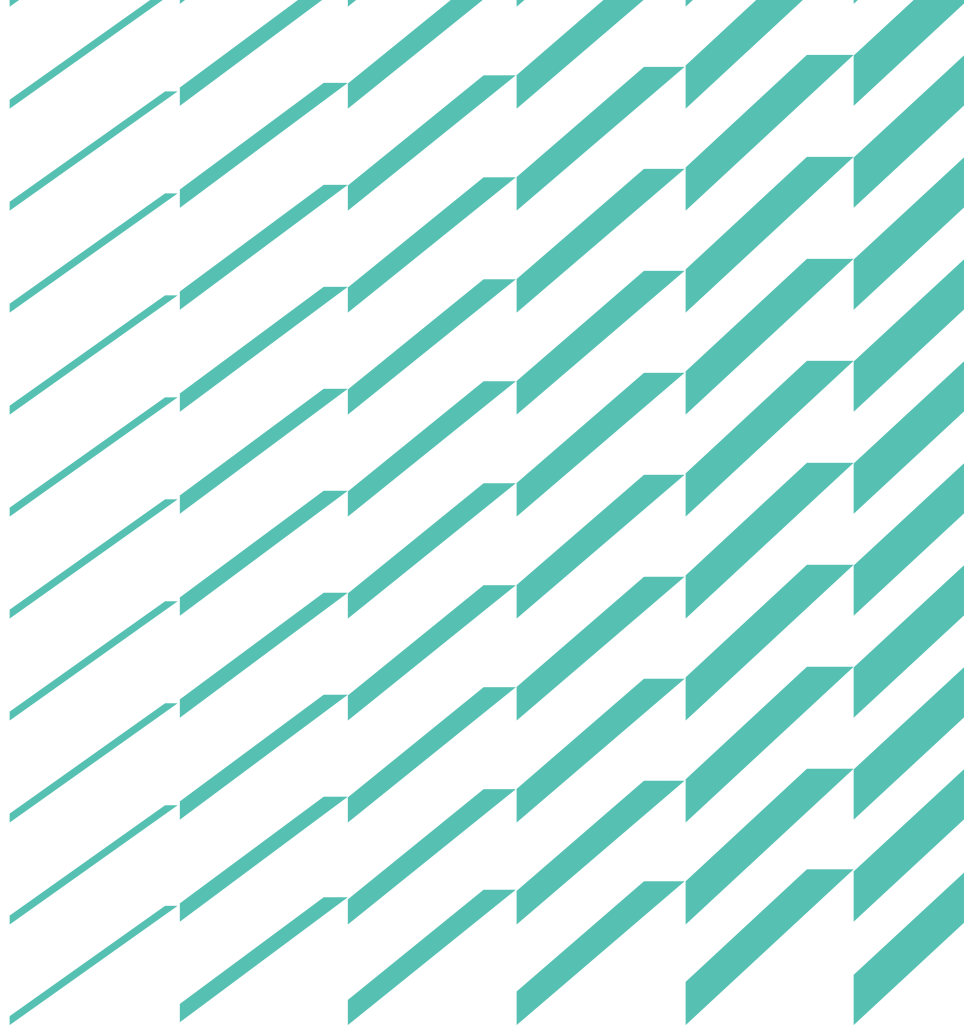
사회자본은 개인이 사회적 관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신뢰, 유대감과 같은 무형의 가치와 해당 무형의 가치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잠재적인 이익들을 의미한다. 사회자본은 차원에 따라 구조적 자본, 인지적 자본, 관계적 자본으로 분류될 수 있다(Nhapiet & Ghosall, 1998). 구조적 차원은 사회자본을 생산하는 사회관계연결 형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나타낸다. 개인과 조직의 연결성, 조직 내 구성원들 간 상호작용, 사회연결망 자체의 크기, 범위 등과 같이 외부에서 관찰 가능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에 비해 인지적 차원은 조직의 목표·가치·규범과 같이 조직 구성원들 간에 공유되어 동일한 행동과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관계적 차원은 조직 구성원 관계의 수준으로 조직 구성원들 간의 신뢰를 의미한다(설현도, 2015). 더불어 사회자본은 사회구성원간에 연결강도에 따라 연결적 사회자본과 결속적 사회자본으로 분류될 수 있다. 연결적 사회자본은 사회

구성원 간에 약한 연결을 통해 형성되지만 다양한 정보를 유통하며, 결속적 사회자본은 정서적으로 가까운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형성되어 사람들 간의 신뢰와 유대관계가 무척 강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이희태, 2014).

사회자본은 사회 속에서 개인이 특정집단의 일원으로 안정적으로 생활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사회자본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개인의 삶의 질, 사회적인 차원에서 사회의 공동체 의식과도 연결된다. 따라서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사회자본을 개인의 행복과 삶의 질, 특정집단의 생산성, 민주주의 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요소로 설정하였다. 선행연구 속 사회적 자본 구성요소는 아래 표와 같다.

[표 2-5] 사회자본의 구성요소

구분	사회자본 구성요소
문유정(2020)	네트워크, 참여, 신뢰
박희봉·김명환(2001)	규범, 신뢰, 집단 내 협력, 정보공유
최혜지·이소영·정순돌 (2015)	사회참여, 네트워크, 신뢰, 규범



제 3 장

분석결과



1. 조사방법 및 내용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3. 가족 및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
4. 정치인식과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
5. 도민 및 국민으로서의 정체성과 신뢰
6. 사회활동 참여와 공동체성
7.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평가와 인식

제 3 장 분석결과

1. 조사방법 및 내용

본 연구는 전북도민의 전반적인 사회적 가치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대상은 전라북도 관내에 거주하는 19세 이상의 성인으로 온라인 조사와 면접조사를 병행하였다. 조사대상자의 표집은 전북연구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민모니터링단과 조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온라인 패널로서 도내 14개 시군의 인구구성비와 남성과 여성의 성비에 맞춰 표본을 배분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대상자의 표본추출은 크게 3가지 단계로 진행되었다. 1차 조사는 전북연구원의 도민모니터링단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진행하였고, 온라인 전화의 응답자 수와 분포를 고려하여 표본할당계획에 미치지 못한 조사대상에 대해서는 조사기관의 온라인패널을 통해서 2차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마지막 3차에서는 전북연구원의 도민모니터링단과 조사기관의 온라인패널에서도 확보되지 못한 특정지역의 특정연령대의 조사대상에 대해서는 해당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면접조사를 진행하여 총 목표표본인 1천명을 확보하였다. 3단계로 진행된 조사과정에서 전북연구원의 도민모니터링단은 최종 454명이 응답하였고, 조사기관의 온라인패널에서는 총 179명이 응답하였으며, 마지막 면접조사에서는 367명이 응답하여 최종 표집된 표본수는 1천명이다.

한편, 도민의식조사의 조사문항은 가족 및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 정치인식과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 도민 및 국민으로서의 정체성과 신뢰, 사회활동 참여와 공동체성,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평가와 인식으로 구성하였다.

[표 3-1] 사회자본의 구성요소

구분	주요 문항
가족 및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	결혼에 대한 인식, 사형제도나 낙태 등에 의한 의견, 남녀차별 및 가사돌봄에 대한 인식
정치인식과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	정치성향, 생활수준, 인물에 대한 신뢰점수, 직업선택시 고려사항, 생활비부담 정도

[표 3-2] 사회자본의 구성요소(표계속)

구분	주요 문항
도민 및 국민으로서의 정체성과 신뢰	전북도민의 장점 및 단점, 도민차별 인식, 전북 발전가능성, 도민으로서의 자긍심 등
사회활동 참여와 공동체성	기부활동, 도움받을 수 있는 친구, 도움요청 가능 주민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평가와 인식	환경오염 인식, 주된 정보접근 경로, 정보전달매체의 신뢰도 등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023 전북도민 의식구조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1,000여명의 특성은 아래 표와 같다. 성별, 연령대, 전북지역, 혼인상태, 학력, 거주형태, 직업, 종교, 동거가족 수 본인 포함() 명 등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하여 전라북도민의 특성을 알아보고자 했다.

[표 3-3] 응답자 특성

구분		사례수	Total
전체			1,000
성별	남	(499)	49.9
	여	(501)	50.1
연령대	만 18~20대	(152)	15.2
	만 30대	(117)	11.7
	만 40대	(169)	16.9
	만 50대	(195)	19.5
	만 60대 이상	(367)	36.7
전북지역	전주시 완산구	(187)	18.7
	전주시 덕진구	(172)	17.2
	군산시	(146)	14.6
	익산시	(154)	15.4
	정읍시	(59)	5.9
	남원시	(45)	4.5
	김제시	(47)	4.7
	완주군	(53)	5.3
	진안군	(15)	1.5
무주군	(14)	1.4	

[표 3-4] 응답자 특성(표 계속)

구분	사례수	Total	
		%	
전체	1,000	100	
전북지역	장수군	(12)	1.2
	임실군	(18)	1.8
	순창군	(18)	1.8
	고창군	(30)	3.0
	부안군	(30)	3.0
혼인상태	결혼	(715)	71.5
	이혼 또는 사별	(57)	5.7
	미혼	(228)	22.8
학력	중졸이하	(36)	3.6
	고졸(중퇴, 재학 포함)	(244)	24.4
	대졸(중퇴, 재학 포함)	(535)	53.5
	대학원 이상	(185)	18.5
거주형태	자기 집	(769)	77.4
	전세	(136)	13.7
	월세	(61)	6.1
	사택	(14)	1.4
직업	기타	(13)	1.3
	학생	(22)	2.2
	공무원	(77)	7.7
	사무직	(216)	21.6
	생산/기술직	(53)	5.3
	판매/유통/영업직	(57)	5.7
	서비스직	(79)	7.9
	교육직	(60)	6.0
	전문/연구직(대학교수, 의사, 법조인 등)	(56)	5.6
	자영업	(103)	10.3
	농/임/어업	(45)	4.5
	전업주부	(137)	13.7
	무직	(64)	6.4
	종교	기타	(31)
없다		(544)	54.4
기독교		(281)	28.1
천주교		(75)	7.5
불교		(82)	8.2
원불교		(14)	1.4
기타		(4)	0.4
동거가족 수 본인 포함 ()명	1명	(130)	13.0
	2명	(274)	27.4
	3명	(324)	32.4

[표 3-5] 응답자 특성(표 계속)

구분		사례수	Total
			%
전체		1,000	100
동거가족 수 본인 포함 ()명	4명	(222)	22.2
	5명	(41)	4.1
	6명	(9)	0.9
출생지	전북	(806)	80.6
	타시도	(194)	19.4
흡연여부	아니요	(839)	83.9
	예	(161)	16.1
음주여부	아니요	(424)	42.4
	예	(576)	57.6

3. 가족 및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

배우자 선택시 가장 중요한 점으로는 1순위에서 성격이 58.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경제력 13.7%, 가정환경 8.9%, 외모 5.4%, 장래성 4.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성의 경우 성격이 62.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가정환경이 8.4%, 경제력 8.2% 등의 순이었지만 여성의 경우는 성격 53.7%, 경제력 19.2%, 그리고 가정환경 9.4% 등의 순으로 나타나 여성이 남성보다는 배우자 선택 시 경제력을 더욱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연령대별로도 다소의 차이가 있는데 배우자 선택시 성격에 대한 중요도에 대해 만 30대·만 40대·50대까지의 연령대에서 최소 60% 이상의 응답이 나왔다. 60세 이상의 고령층과 18세에서 20대까지의 청년층보다는 성격에 대한 중요도가 높았고 경제력에 대한 중요도는 만 60대 이상의 노년층에서 다른 연령대보다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3-6] 배우자 선택 시 가장 중요한 점

구분	사례 수	배우자 선택 시 중요 고려사항 1순위										계	
		성격	경제력	가정환경	외모	장래성	종교	직업	학력	취미	기타		가주지역
전체	(1000)	58.2	13.7	8.9	5.4	4.8	3.8	3.7	0.6	0.4	0.3	0.2	100.0
성별	남 (499)	62.7	8.2	8.4	8.2	4.0	3.4	3.4	0.6	0.4	0.4	0.2	100.0
	여 (501)	53.7	19.2	9.4	2.6	5.6	4.2	4.0	0.6	0.4	0.2	0.2	100.0

[표 3-7] 배우자 선택 시 가장 중요한 점(표계속)

구분	사례 수	배우자 선택 시 중요 고려사항 1순위											계	
		성격	경제력	가정환경	외모	장래성	종교	직업	학력	취미	기타	가주지역		
연령대	만 18-20대	(152)	480	9.2	11.8	20.4	4.6	2.6	2.6	0.0	0.7	0.0	0.0	1000
	만 30대	(117)	70.1	120	3.4	7.7	1.7	2.6	0.9	0.0	0.9	0.0	0.9	1000
	만 40대	(169)	62.7	148	5.3	4.1	4.1	3.6	3.6	0.0	0.0	1.2	0.6	1000
	만 50대	(195)	69.2	108	4.1	2.6	2.1	5.6	3.6	1.5	0.5	0.0	0.0	1000
	만 60대 이상	(367)	50.7	172	13.6	0.5	7.6	3.8	5.2	0.8	0.3	0.3	0.0	1000
전북지역	전주시 완산구	(187)	64.2	139	3.7	6.4	1.6	4.3	5.3	0.0	0.5	0.0	0.0	1000
	전주시 덕진구	(172)	66.9	105	5.2	1.7	3.5	7.6	2.9	0.6	0.6	0.6	0.0	1000
	군산시	(146)	47.9	17.1	12.3	6.2	8.9	2.1	4.1	0.7	0.7	0.0	0.0	1000
	익산시	(154)	51.3	18.2	11.7	7.1	5.8	0.6	2.6	1.3	0.0	0.6	0.6	1000
	정읍시	(59)	54.2	13.6	10.2	8.5	6.8	3.4	3.4	0.0	0.0	0.0	0.0	1000
	남원시	(45)	66.7	4.4	8.9	8.9	4.4	2.2	2.2	2.2	0.0	0.0	0.0	1000
	김제시	(47)	76.6	2.1	10.6	0.0	6.4	2.1	2.1	0.0	0.0	0.0	0.0	1000
	완주군	(53)	50.9	9.4	11.3	7.5	3.8	7.5	5.7	1.9	0.0	0.0	1.9	1000
	진안군	(15)	73.3	13.3	0.0	6.7	0.0	0.0	6.7	0.0	0.0	0.0	0.0	1000
	무주군	(14)	71.4	21.4	0.0	0.0	0.0	7.1	0.0	0.0	0.0	0.0	0.0	1000
	장수군	(12)	41.7	16.7	3.3	0.0	0.0	0.0	0.0	0.0	0.0	8.3	0.0	1000
	임실군	(18)	38.9	16.7	11.1	0.0	16.7	16.7	0.0	0.0	0.0	0.0	0.0	1000
	순창군	(18)	50.0	16.7	11.1	5.6	5.6	0.0	11.1	0.0	0.0	0.0	0.0	1000
	고창군	(30)	60.0	16.7	6.7	6.7	3.3	0.0	3.3	0.0	3.3	0.0	0.0	1000
	부안군	(30)	43.3	20.0	20.0	6.7	3.3	3.3	3.3	0.0	0.0	0.0	0.0	1000

[표 3-8] 배우자 선택시 중요한 점(순위 종합)

구분	사례 수	배우자 선택 시 중요 고려사항 (1+2순위)											계	
		성격	경제력	가정환경	장래성	외모	직업	종교	취미	학력	기타	가주지역		
전체	(1000)	76.5	35.2	25.8	17.6	17.1	12.9	7.5	3.4	2.8	0.7	0.5	100.0	
성별	남	(499)	78.8	24.4	27.3	15.8	25.5	11.4	7.6	4.2	3.6	0.8	0.6	100.0
	여	(501)	74.3	45.9	24.4	19.4	8.8	14.4	7.4	2.6	2.0	0.6	0.4	100.0
연령대	만 18-20대	(152)	64.5	30.3	21.7	11.2	47.4	11.2	3.3	7.2	3.3	0.0	0.0	100.0
	만 30대	(117)	88.0	40.2	13.7	12.8	27.4	8.5	3.4	5.1	0.0	0.0	0.9	100.0
	만 40대	(169)	77.5	35.5	23.1	16.0	17.8	14.2	8.9	1.8	1.8	2.4	1.2	100.0
	만 50대	(195)	85.6	32.8	17.4	17.4	9.2	20.0	10.8	1.5	5.1	0.0	0.0	100.0
	만 60대 이상	(367)	72.5	36.8	37.1	22.6	5.2	10.6	8.2	3.0	2.7	0.8	0.5	100.0
전북 지역	전주시 완산구	(187)	80.7	37.4	19.8	12.8	19.3	15.5	8.0	2.7	3.7	0.0	0.0	100.0
	전주시 덕진구	(172)	83.1	27.9	23.3	20.3	14.0	14.0	11.6	2.9	1.2	1.7	0.0	100.0
	군산시	(146)	67.1	40.4	28.1	21.9	19.2	12.3	4.8	2.1	3.4	0.0	0.7	100.0
	익산시	(154)	73.4	39.0	29.2	13.0	17.5	16.9	0.6	6.5	1.9	1.3	0.6	100.0
	정읍시	(59)	72.9	32.2	22.0	23.7	22.0	8.5	10.2	5.1	3.4	0.0	0.0	100.0
	남원시	(45)	86.7	35.6	33.3	17.8	11.1	4.4	4.4	0.0	4.4	2.2	0.0	100.0
	김제시	(47)	80.9	27.7	23.4	21.3	17.0	12.8	10.6	4.3	2.1	0.0	0.0	100.0
	완주군	(53)	75.5	24.5	30.2	15.1	18.9	15.1	13.2	1.9	1.9	0.0	3.8	100.0
	진안군	(15)	93.3	33.3	13.3	13.3	13.3	20.0	6.7	0.0	6.7	0.0	0.0	100.0
	무주군	(14)	92.9	50.0	14.3	0.0	7.1	7.1	14.3	0.0	7.1	0.0	7.1	100.0
	장수군	(12)	66.7	33.3	66.7	8.3	8.3	0.0	0.0	8.3	0.0	8.3	0.0	100.0
	임실군	(18)	77.8	22.2	27.8	27.8	11.1	5.6	22.2	0.0	5.6	0.0	0.0	100.0
	순창군	(18)	55.6	50.0	27.8	11.1	22.2	16.7	5.6	11.1	0.0	0.0	0.0	100.0
	고창군	(30)	80.0	33.3	23.3	26.7	20.0	3.3	6.7	3.3	3.3	0.0	0.0	100.0
부안군	(30)	56.7	50.0	36.7	23.3	13.3	6.7	6.7	3.3	3.3	0.0	0.0	100.0	

전라북도민의 배우지 선택 시 중요 고려사항을 1·2순위를 조사한 결과, 1순위에서 성격이 76.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경제력 35.2%, 가정환경 25.8%, 장래성 17.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성의 경우 성격이 78.8%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가정환경 27.3%, 외모 25.5%였으나 여성일 경우 성격 74.3%, 경제력 45.9%, 가정환경 24.4%였다. 남성일 경우 여성보다 배우자 선택에 있어 '외모'를 보는 경향이 높았다. 여성일 경우에는 남성보다 경제력, 장래성, 직업을 더 중요시 하는 경향을 보였다.

만 18~20대와 만 60대 이상을 제외한 연령대에서 공통적으로 배우자 선택 시 성격과 경제력이 1·2순위를 차지했으나 만 60대 이상이 다른 연령대보다 상대적으로 가정환경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만 18~20대의 청년층에서 외모비중이 47.4%로 다른 연령대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진안군·무주군이 다른 지역보다 배우자가 될 사람의 '성격'을 중요시하고 있었으며, 무주군·순창군·부안군이 다른 지역보다 '경제력'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3-9] 결혼과 가족에 대한 주관적 인식

구분	사례 수	결혼은 해야 한다	이혼할 수 있다	재혼할 수 있다	자녀는 있어야 한다	아들은 있어야 한다	노부모와 같이 살아야 한다	
		4점 평균	4점 평균	4점 평균	4점 평균	4점 평균	4점 평균	
전체	(1000)	2.95	2.83	2.89	2.98	2.17	2.17	
성 별	남	(499)	3.09	2.73	2.92	3.05	2.26	2.25
	여	(501)	2.80	2.94	2.87	2.90	2.08	2.09
연 령 대	만 18~20대	(152)	2.57	2.95	2.88	2.41	1.89	1.91
	만 30대	(117)	2.74	2.91	2.91	2.69	1.91	1.93
	만 40대	(169)	2.82	2.98	2.98	2.91	1.99	1.97
	만 50대	(195)	2.97	2.76	2.88	3.15	2.11	2.26
	만 60대 이상	(367)	3.22	2.73	2.87	3.23	2.49	2.39
전 라 북 도 지 역	전주시 완산구	(187)	2.91	2.87	2.86	2.96	2.01	2.07
	전주시 덕진구	(172)	2.95	2.82	2.98	2.95	1.97	2.10
	군산시	(146)	2.95	2.85	2.92	2.99	2.28	2.19
	익산시	(154)	2.88	2.89	2.86	2.88	2.29	2.13
	정읍시	(59)	2.97	2.86	2.93	2.92	2.12	2.24
	남원시	(45)	2.91	2.98	3.00	3.16	2.31	2.16
	김제시	(47)	3.02	2.72	2.85	3.13	2.23	2.15
	완주군	(53)	2.96	2.77	2.91	3.00	2.19	2.25
	진안군	(15)	2.87	2.73	2.80	2.87	2.27	2.33
	무주군	(14)	3.07	2.50	2.64	3.07	2.71	2.57
	장수군	(12)	3.00	2.67	2.67	2.67	2.00	2.17
	임실군	(18)	3.22	2.56	2.89	3.11	2.22	2.50
	순창군	(18)	3.17	2.72	2.72	3.22	2.56	2.61
	고창군	(30)	3.23	2.70	2.83	3.20	2.33	2.27
	부안군	(30)	2.77	2.90	2.83	2.83	2.30	2.17

전라북도민은 결혼·이혼·재혼·자녀 관련 평균(4점 만점)은 2점 후반대인 반면 아들·노부모와의 동거 관련 평균은 2점 초반대였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이혼 관련 응답 평균이 높았다.

만 60대 이상은 결혼·자녀·아들·노부모와의 동거 관련 응답 평균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 반면 이혼에 대해서는 다른 연령대보다 응답평균이 낮았다. 사회적으로 결혼과 출산 적령기인 만 18~20대, 만 30대일 경우 다른 연령대보다 결혼·자녀·아들·노부모와의 동거 관련 응답 평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의 6개의 시 중에서 남원시가 상대적으로 자녀 관련 응답 평균이 다른 시보다 높았다. 8개의 군에서 장수군이 자녀 관련(자녀·아들) 응답이 다른 군보다 평균점수가 낮았다.

[표 3-10] 결혼에 대한 인식

구분	사례수	결혼은 해야 한다				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는 편	동의하는 편	매우 동의함		
전체	(1000)	3.9	20.0	53.6	22.5	100.0	
성별	남	(499)	2.2	15.4	53.5	28.9	100.0
	여	(501)	5.6	24.6	53.7	16.2	100.0
연령대	만 18~20대	(152)	6.6	40.1	43.4	9.9	100.0
	만 30대	(117)	7.7	28.2	46.2	17.9	100.0
	만 40대	(169)	6.5	23.7	51.5	18.3	100.0
	만 50대	(195)	3.6	17.9	56.4	22.1	100.0
	만 60대 이상	(367)	0.5	8.4	59.7	31.3	100.0
전라북도 지역	전주시 완산구	(187)	5.3	24.1	44.9	25.7	100.0
	전주시 덕진구	(172)	6.4	20.3	45.3	27.9	100.0
	군산시	(146)	2.1	19.9	58.9	19.2	100.0
	익산시	(154)	2.6	24.0	56.5	16.9	100.0
	정읍시	(59)	3.4	16.9	59.3	20.3	100.0
	남원시	(45)	6.7	15.6	57.8	20.0	100.0
	김제시	(47)	4.3	10.6	63.8	21.3	100.0
	완주군	(53)	3.8	18.9	54.7	22.6	100.0
	진안군	(15)	6.7	20.0	53.3	20.0	100.0
	무주군	(14)	7.1	7.1	57.1	28.6	100.0
	장수군	(12)	0.0	16.7	66.7	16.7	100.0
	임실군	(18)	0.0	16.7	44.4	38.9	100.0
	순창군	(18)	0.0	16.7	50.0	33.3	100.0
	고창군	(30)	0.0	6.7	63.3	30.0	100.0
	부안군	(30)	0.0	26.7	70.0	3.3	100.0

전라북도민의 결혼에 대한 생각은 전체적으로 동의하는 편 53.6%, 매우 동의함 22.5%, 동의하지 않는 편 20.0%, 전혀 동의하지 않음 3.9%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결혼에 동의 한다는 의견이 남자 82.4%, 여자 69.9%로 동의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남녀 간의 차이는 존재하였다.

연령대별로는 만 18~20대는 매우 동의하는 편 9.9%, 동의하는 편 43.4%로 동의한다는 의견이 53.3%로 과반을 넘기는 했지만, 동의하지 않는 편 40.1%, 전혀 동의하지 않음 6.6%로 결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46.7%로 타 연령대에 비해 두 의견의 차이 정도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의 6개의 시 중에서 결혼에 대한 생각은 김제시 85.1%, 정읍시 79.6%, 군산시 78.1%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전주시 완산구가 70.6%로 가장 낮았다. 8개 군에서는 고창군이 93.3%, 무주군 85.7%, 장수 83.4%, 임실·순창군이 각 83.3% 등의 순으로 높았다.

[표 3-11] 이혼에 대한 인식

구분	사례수	이혼할 수 있다				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는 편	동의하는 편	매우 동의함		
전체	(1000)	5.5	16.5	67.4	10.6	100.0	
성별	남	(499)	8.2	19.6	63.5	8.6	100.0
	여	(501)	2.8	13.4	71.3	12.6	100.0
연령대	만 18~20대	(152)	5.9	8.6	70.4	15.1	100.0
	만 30대	(117)	6.8	13.7	60.7	18.8	100.0
	만 40대	(169)	1.8	17.2	62.7	18.3	100.0
	만 50대	(195)	7.2	19.5	63.6	9.7	100.0
	만 60대 이상	(367)	5.7	18.8	72.5	3.0	100.0
전북지역	전주시 완산구	(187)	5.3	14.4	68.4	11.8	100.0
	전주시 덕진구	(172)	7.0	20.3	56.4	16.3	100.0
	군산시	(146)	6.2	13.7	69.2	11.0	100.0
	익산시	(154)	3.9	14.3	70.8	11.0	100.0
	정읍시	(59)	0.0	20.3	72.9	6.8	100.0
	남원시	(45)	2.2	13.3	68.9	15.6	100.0
	김제시	(47)	8.5	17.0	68.1	6.4	100.0
	완주군	(53)	3.8	24.5	62.3	9.4	100.0
	진안군	(15)	0.0	26.7	73.3	0.0	100.0
	무주군	(14)	21.4	14.3	57.1	7.1	100.0
	장수군	(12)	8.3	16.7	75.0	0.0	100.0
	임실군	(18)	16.7	16.7	61.1	5.6	100.0
	순창군	(18)	5.6	16.7	77.8	0.0	100.0
	고창군	(30)	10.0	10.0	80.0	0.0	100.0
부안군	(30)	0.0	16.7	76.7	6.7	100.0	

전라북도민의 이혼에 대한 생각은 전체적으로 동의하는 편 67.4%, 동의하지 않는 편 16.5%, 매우 동의함 10.6%, 전혀 동의하지 않음 5.5% 순으로 나타났다. 이혼할 수 있다는 의견이 총 78.0%로 높게 나타났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22.0%로 나타났다.

성별 분석을 살펴보면 이혼에 할 수 있다는 의견은 여자 83.9%, 남자 72.1%로 모두 높은 비율을 보였고, 여자가 11.8% 더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 연령대별로는 이혼에 대한 동의가 전연령에서 70%가 넘게 나타났으나 만 50대와 만 60대 이상에서는 이혼에 매우 동의한다는 의견이 각 9.7%, 3.0%로 타 연령대에 비해 낮은 비율을 보였다. 매우 동의한다는 의견은 만 30대 18.8%, 만 40대 18.3%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3-12] 재혼에 대한 인식

구분	시료수	재혼할 수 있다.				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는 편	동의하는 편	매우 동의함		
전체	(1000)	3.5	15.3	69.5	11.7	100.0	
성별	남	(499)	2.4	15.0	70.9	11.6	100.0
	여	(501)	4.6	15.6	68.1	11.8	100.0
연령대	만 18~20대	(152)	3.9	17.1	65.8	13.2	100.0
	만 30대	(117)	5.1	12.8	68.4	13.7	100.0
	만 40대	(169)	4.7	11.8	64.5	18.9	100.0
	만 50대	(195)	6.2	15.4	63.1	15.4	100.0
	만 60대 이상	(367)	0.8	16.9	77.1	5.2	100.0
전라북도 지역	전주시 완산구	(187)	6.4	11.8	71.1	10.7	100.0
	전주시 덕진구	(172)	2.9	14.5	64.0	18.6	100.0
	군산시	(146)	2.1	15.8	69.9	12.3	100.0
	익산시	(154)	3.2	20.1	63.6	13.0	100.0
	정읍시	(59)	0.0	13.6	79.7	6.8	100.0
	남원시	(45)	2.2	13.3	66.7	17.8	100.0
	김제시	(47)	4.3	8.5	85.1	2.1	100.0
	완주군	(53)	3.8	15.1	67.9	13.2	100.0
	진안군	(15)	0.0	26.7	66.7	6.7	100.0
	무주군	(14)	14.3	14.3	64.3	7.1	100.0
	장수군	(12)	8.3	16.7	75.0	0.0	100.0
	임실군	(18)	5.6	11.1	72.2	11.1	100.0
	순창군	(18)	0.0	27.8	72.2	0.0	100.0
	고창군	(30)	3.3	13.3	80.0	3.3	100.0
	부안군	(30)	0.0	23.3	70.0	6.7	100.0

재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동의한다 81.2%, 동의하지 않는다 18.8%로 동의한다는 의견이 더 높은 비율을 나타내며 재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재혼에 동의하는 의견이 남자 82.5%, 여자 79.9%로 남자가 좀 더 높게 나타났다으나, 남녀 간 차이가 2.3%로 크지 않았다.

전라북도 14개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김제시가 87.2%로 재혼에 대해 가장 긍정적이었다. 그리고 무주군 71.4%, 순창군 72.2%, 진안군 73.4%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재혼에 대한 동의는 대체적으로 시 지역보다는 군 지역이 낮은 편이었다.

[표 3-13] 자녀에 대한 인식

구분	사례수	자녀는 있어야 한다				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는 편	동의하는 편	매우 동의함		
전체	(1000)	4.2	22.7	44.5	28.6	100.0	
성 별	남	(499)	2.6	20.0	46.9	30.5	100.0
	여	(501)	5.8	25.3	42.1	26.7	100.0
연 령 대	만 18-20대	(152)	9.2	49.3	32.2	9.2	100.0
	만 30대	(117)	11.1	23.9	49.6	15.4	100.0
	만 40대	(169)	4.1	27.8	41.4	26.6	100.0
	만 50대	(195)	2.1	13.3	51.8	32.8	100.0
	만 60대 이상	(367)	1.1	13.9	45.5	39.5	100.0
전 북 지 역	전주시 완산구	(187)	3.7	26.2	40.1	29.9	100.0
	전주시 덕진구	(172)	5.2	22.7	43.6	28.5	100.0
	군산시	(146)	2.7	28.8	35.6	32.9	100.0
	익산시	(154)	5.2	20.8	54.5	19.5	100.0
	정읍시	(59)	6.8	20.3	47.5	25.4	100.0
	남원시	(45)	0.0	20.0	44.4	35.6	100.0
	김제시	(47)	4.3	10.6	53.2	31.9	100.0
	완주군	(53)	7.5	18.9	39.6	34.0	100.0
	진안군	(15)	6.7	20.0	53.3	20.0	100.0
	무주군	(14)	7.1	14.3	42.9	35.7	100.0
	장수군	(12)	8.3	33.3	41.7	16.7	100.0
	임실군	(18)	0.0	27.8	33.3	38.9	100.0
	순창군	(18)	0.0	22.2	33.3	44.4	100.0
	고창군	(30)	0.0	10.0	60.0	30.0	100.0
	부안군	(30)	3.3	26.7	53.3	16.7	100.0

전라북도민의 자녀에 대한 생각은 동의하는 편 44.5%, 매우 동의함 28.6%, 동의하지 않는 편 22.7%, 전혀 동의하지 않음 4.2% 순으로 나타나 동의한다는 의견이 73.1%,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26.9%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자녀에 대해 남자는 77.4%, 여자는 68.8%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자녀에 동의하는 의견은 만 18-20대 집단이 41.4%로 가장 낮았고, 만 60대 이상 85.0%, 만 50대 84.6%, 만 40대 68.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자녀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 지역별 분석결과는 고창군 90.0%, 김제시 85.1%, 남원시 80.0% 순으로 높았고, 장수군 58.4%, 군산시 68.5%, 전주시 완산구 70.0% 순으로 낮았다.

[표 3-14] 아들에 대한 인식

구분	사례수	아들은 있어야 한다				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는 편	동의하는 편	매우 동의함		
전체	(1000)	20.9	46.9	26.3	5.9	100.0	
성별	남	(499)	16.2	47.7	29.9	6.2	100.0
	여	(501)	25.5	46.1	22.8	5.6	100.0
	만 18-20대	(152)	25.7	59.9	13.8	0.7	100.0
연령대	만 30대	(117)	36.8	39.3	20.5	3.4	100.0
	만 40대	(169)	28.4	46.7	21.9	3.0	100.0
	만 50대	(195)	24.1	48.2	20.0	7.7	100.0
	만 60대 이상	(367)	8.7	43.3	38.7	9.3	100.0
전북 지역	전주시 완산구	(187)	26.7	49.2	20.3	3.7	100.0
	전주시 덕진구	(172)	32.6	41.3	22.7	3.5	100.0
	군산시	(146)	13.0	53.4	26.0	7.5	100.0
	익산시	(154)	18.2	42.2	31.8	7.8	100.0
	정읍시	(59)	22.0	47.5	27.1	3.4	100.0
	남원시	(45)	11.1	51.1	33.3	4.4	100.0
	김제시	(47)	14.9	51.1	29.8	4.3	100.0
	완주군	(53)	22.6	43.4	26.4	7.5	100.0
	진안군	(15)	13.3	53.3	26.7	6.7	100.0
	무주군	(14)	14.3	35.7	14.3	35.7	100.0
	장수군	(12)	16.7	66.7	16.7	0.0	100.0
	임실군	(18)	22.2	44.4	22.2	11.1	100.0
	순창군	(18)	0.0	55.6	33.3	11.1	100.0
	고창군	(30)	16.7	40.0	36.7	6.7	100.0
	부안군	(30)	13.3	46.7	36.7	3.3	100.0

전라북도민의 아들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동의하는 편 26.3%, 매우 동의함 5.9%로 나타났고, 동의하지 않는 편 46.9%, 전혀 동의하지 않음 20.9%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총 67.8%, 동의한다는 의견이 총 32.2%로, 35.6%의 차이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는 동의 36.1%, 동의하지 않음 63.9% 였고, 여자는 동의 28.4%, 동의하지 않음 71.6%로 나타났다. 아들이 꼭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여자가 남자보다 7.7% 더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아들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만 60대 이상 48.0%, 만 50대 27.7%, 만 40대 24.9%, 만 30대 23.9%, 만 18-20대 14.5%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아들이 있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만 60대 이상과 만 18-20대는 33.5%의 큰 차이를 보였다.

[표 3-15] 노부모 부양에 대한 인식

구분	사례수	노부모와 같이 살아야 한다				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는 편	동의하는 편	매우 동의함		
전체	(1000)	14.7	56.5	26.2	2.6	100.0	
성 별	남	(499)	10.2	57.7	29.1	3.0	100.0
	여	(501)	19.2	55.3	23.4	2.2	100.0
연 령 대	만 18-20대	(152)	21.1	68.4	8.6	2.0	100.0
	만 30대	(117)	24.8	57.3	17.9	0.0	100.0
	만 40대	(169)	25.4	53.3	20.1	1.2	100.0
	만 50대	(195)	13.3	53.8	26.7	6.2	100.0
	만 60대 이상	(367)	4.6	54.2	38.7	2.5	100.0
전 라 북 지 역	전주시 완산구	(187)	20.3	54.0	24.1	1.6	100.0
	전주시 덕진구	(172)	16.9	58.7	22.1	2.3	100.0
	군산시	(146)	9.6	63.7	24.7	2.1	100.0
	익산시	(154)	14.3	60.4	23.4	1.9	100.0
	정읍시	(59)	11.9	54.2	32.2	1.7	100.0
	남원시	(45)	20.0	48.9	26.7	4.4	100.0
	김제시	(47)	14.9	57.4	25.5	2.1	100.0
	완주군	(53)	17.0	45.3	34.0	3.8	100.0
	진안군	(15)	6.7	60.0	26.7	6.7	100.0
	무주군	(14)	14.3	21.4	57.1	7.1	100.0
	장수군	(12)	8.3	66.7	25.0	0.0	100.0
	임실군	(18)	0.0	61.1	27.8	11.1	100.0
	순창군	(18)	0.0	50.0	38.9	11.1	100.0
	고창군	(30)	10.0	56.7	30.0	3.3	100.0
부안군	(30)	16.7	50.0	33.3	0.0	100.0	

노부모와의 동거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편 56.5%, 동의하는 편 26.2%, 전혀 동의하지 않음 14.7%, 매우 동의함 2.6% 등의 순이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71.2%, 동의한다는 의견이 28.8%로 응답 비율의 격차가 42.4%로 매우 크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 여자 모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각 67.9%, 74.5% 였다.

연령대별로는 동의하지 않는 의견이 만 18-20대 89.5%, 만 30대 82.1%, 만 40대 78.7%, 만 50대 67.1%, 만 60대 이상 58.8% 순으로 높게 나타나 연령대가 낮을수록 노부모와의 동거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 지역별로는 노부모와의 동거를 동의한다는 의견은 무주군이 64.2%로 가장 높았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전주시 덕진구가 24.4%로 가장 낮았다. 대체적으로 동의한다는 비율이 군지역에서는 높게 나타났고, 시 지역에서는 낮았다.

[표 3-16] 낙태 및 혼전 동거 등에 대한 주관적 인식

구분		사례수	사형제도	낙태	혼전 동거	동성애
			5점 평균	5점 평균	5점 평균	5점 평균
전체		(1000)	3.61	3.25	3.21	2.35
성별	남	(499)	3.56	3.15	3.17	2.25
	여	(501)	3.66	3.35	3.25	2.46
연령대	만 18~20대	(152)	3.68	3.43	3.58	2.85
	만 30대	(117)	3.87	3.47	3.56	2.58
	만 40대	(169)	3.70	3.46	3.50	2.51
	만 50대	(195)	3.43	3.20	3.06	2.27
	만 60대 이상	(367)	3.54	3.02	2.89	2.04
전북지역	전주시 완산구	(187)	3.50	3.29	3.21	2.41
	전주시 덕진구	(172)	3.52	3.34	3.37	2.52
	군산시	(146)	3.70	3.26	3.06	2.20
	익산시	(154)	3.79	3.28	3.21	2.39
	정읍시	(59)	3.51	3.24	3.27	2.29
	남원시	(45)	3.80	3.40	3.11	2.27
	김제시	(47)	3.79	3.06	3.11	2.28
	완주군	(53)	3.51	3.13	3.30	2.40
	진안군	(15)	3.27	3.00	3.40	2.40
	무주군	(14)	3.29	2.79	2.93	1.86
	장수군	(12)	3.33	3.42	3.42	2.00
	임실군	(18)	3.83	2.67	3.00	1.94
	순창군	(18)	3.50	3.06	2.72	2.17
	고창군	(30)	3.63	3.43	3.33	2.53
	부안군	(30)	3.57	3.03	3.27	2.37

전라북도민은 다른 항목에 비해 ‘동성애’에 대해 긍정적으로 여기지 않은 반면,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다른 항목에 비해 긍정적이었다. 성별로 보면 남성보다는 여성이 모든 항목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만 60대 이상은 ‘낙태’·‘혼전동거’·‘동성애’에 대해 다른 연령대보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만 18~20대는 ‘혼전동거’와 ‘동성애’에 대해 다른 연령대보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만 30대는 ‘낙태’와 ‘사형제도’에 대해 다른 연령대보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전라북도의 6개의 시에서 남원시가 사형제도와 낙태에 가장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전주시 덕진구가 혼전동거와 동성애에 대해 가장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전라북도의 8개의 군에서 무주군이 동성애에 대해 가장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표 3-17] 사형제도에 대한 인식

구분	사례수	사형제도					계	
		매우 반대	반대	중립	찬성	매우찬성		
전체	(1000)	2.6	10.3	27.7	42.5	16.9	100.0	
성별	남	(499)	3.8	12.2	26.1	40.5	17.4	100.0
	여	(501)	1.4	8.4	29.3	44.5	16.4	100.0
연령대	만 18~20대	(152)	0.0	6.6	35.5	40.8	17.1	100.0
	만 30대	(117)	0.9	9.4	20.5	40.2	29.1	100.0
	만 40대	(169)	3.0	10.1	26.0	35.5	25.4	100.0
	만 50대	(195)	6.7	13.8	27.7	33.3	18.5	100.0
	만 60대 이상	(367)	1.9	10.4	27.5	52.0	8.2	100.0
전북 지역	전주시 완산구	(187)	3.2	12.8	31.0	36.9	16.0	100.0
	전주시 덕진구	(172)	4.1	12.8	30.2	33.1	19.8	100.0
	군산시	(146)	2.1	6.8	26.7	47.9	16.4	100.0
	익산시	(154)	0.6	7.1	21.4	53.9	16.9	100.0
	정읍시	(59)	5.1	6.8	30.5	47.5	10.2	100.0
	남원시	(45)	0.0	4.4	33.3	40.0	22.2	100.0
	김제시	(47)	0.0	10.6	21.3	46.8	21.3	100.0
	완주군	(53)	3.8	17.0	22.6	37.7	18.9	100.0
	진안군	(15)	6.7	20.0	33.3	20.0	20.0	100.0
	무주군	(14)	14.3	14.3	21.4	28.6	21.4	100.0
	장수군	(12)	0.0	33.3	8.3	50.0	8.3	100.0
	임실군	(18)	0.0	11.1	22.2	38.9	27.8	100.0
	순창군	(18)	0.0	11.1	33.3	50.0	5.6	100.0
	고창군	(30)	0.0	10.0	26.7	53.3	10.0	100.0
	부안군	(30)	3.3	0.0	43.3	43.3	10.0	100.0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찬성 42.5%, 중립 27.7%, 매우 찬성 16.9%, 반대 10.3%, 매우 반대 2.6% 순이었다. 찬성 의견이 59.4%, 중립이 27.7%, 반대 의견이 12.9%로 찬성의견이 과반수 이상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분석한 결과, 남자는 57.9%, 여자는 60.9%로 비슷한 수준으로 사형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립의견은 남자 26.1%, 여자 29.3% 이었다.

전라북도의 6개의 시에서 찬성 의견이 익산시 70.8%, 김제시 68.1%, 군산시 64.3% 순으로 높았고, 전라북도의 8개의 군에서 임실군 66.7%, 고창군 63.3%, 장수군 58.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3-18] 낙태에 대한 인식

구분	사례수	낙태					계	
		매우 반대	반대	중립	찬성	매우 찬성		
전체	(1000)	5.4	16.0	34.6	36.5	7.5	1000	
성별	남	(499)	7.2	16.0	37.5	33.3	6.0	1000
	여	(501)	3.6	16.0	31.7	39.7	9.0	1000
연령대	만 18-20대	(152)	3.9	15.1	34.9	25.7	20.4	1000
	만 30대	(117)	6.0	6.8	34.2	40.2	12.8	1000
	만 40대	(169)	5.9	5.3	34.3	45.6	8.9	1000
	만 50대	(195)	9.2	9.2	39.0	37.4	5.1	1000
	만 60대 이상	(367)	3.5	27.8	32.4	35.1	1.1	1000
전라북도 지역	전주시 완산구	(187)	8.6	8.6	36.4	38.5	8.0	1000
	전주시 덕진구	(172)	4.7	15.1	34.3	33.1	12.8	1000
	군산시	(146)	4.8	12.3	39.7	38.4	4.8	1000
	익산시	(154)	1.9	20.8	30.5	40.9	5.8	1000
	정읍시	(59)	6.8	20.3	20.3	47.5	5.1	1000
	남원시	(45)	2.2	11.1	44.4	28.9	13.3	1000
	김제시	(47)	10.6	19.1	29.8	34.0	6.4	1000
	완주군	(53)	9.4	18.9	28.3	35.8	7.5	1000
	진안군	(15)	0.0	26.7	46.7	26.7	0.0	1000
	무주군	(14)	21.4	21.4	21.4	28.6	7.1	1000
	장수군	(12)	0.0	8.3	41.7	50.0	0.0	1000
	임실군	(18)	5.6	38.9	38.9	16.7	0.0	1000
	순창군	(18)	5.6	16.7	44.4	33.3	0.0	1000
	고창군	(30)	0.0	13.3	40.0	36.7	10.0	1000
	부안군	(30)	0.0	33.3	36.7	23.3	6.7	1000

전라북도민의 낙태에 대한 생각은 찬성 44.0%, 중립 34.6%, 반대 21.4% 이었다. 낙태 찬성 의견이 과반수를 넘지 않았지만 반대 의견과 2배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성별로는 낙태 찬성이 여자 48.7%, 남자 39.3%로 여자가 낙태제도에 긍정적이었다. 중립 의견은 여자 31.7%, 남자 37.5%를 나타내었다.

연령대별로는 만 40대가 54.5%, 만 30대 53.0%, 만 18~20대 46.1%, 만 50대 42.5%, 만 60대 이상 36.2% 순으로 높았다.

전라북도 지역별 분석결과, 낙태제도 찬성은 정읍시 52.6%, 장수군 50.0%, 익산시·고창군 46.7% 순으로 높았고, 임실군 16.7%, 진안군 26.7%, 부안군 30.0%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3-19] 혼전동거에 대한 인식

구분	사례수	혼전 동거					계	
		매우 반대	반대	중립	찬성	매우찬성		
전체	(1000)	4.4	16.9	38.3	34.1	6.3	1000	
성별	남	(499)	4.4	18.4	38.9	32.1	6.2	1000
	여	(501)	4.4	15.4	37.7	36.1	6.4	1000
	만 18~20대	(152)	0.7	9.9	34.9	40.1	14.5	1000
연령대	만 30대	(117)	4.3	5.1	34.2	43.6	12.8	1000
	만 40대	(169)	1.8	7.1	40.2	41.4	9.5	1000
	만 50대	(195)	8.7	14.9	41.0	32.3	3.1	1000
	만 60대 이상	(367)	4.9	29.2	38.7	26.2	1.1	1000
전북 지역	전주시 완산구	(187)	6.4	15.5	37.4	32.1	8.6	1000
	전주시 덕진구	(172)	4.7	13.4	32.0	40.1	9.9	1000
	군산시	(146)	2.7	21.2	45.2	28.8	2.1	1000
	익산시	(154)	2.6	16.9	42.2	33.1	5.2	1000
	정읍시	(59)	3.4	16.9	33.9	40.7	5.1	1000
	남원시	(45)	4.4	28.9	28.9	26.7	11.1	1000
	김제시	(47)	8.5	10.6	46.8	29.8	4.3	1000
	완주군	(53)	7.5	13.2	26.4	47.2	5.7	1000
	진안군	(15)	0.0	6.7	46.7	46.7	0.0	1000
	무주군	(14)	7.1	28.6	35.7	21.4	7.1	1000
	장수군	(12)	0.0	16.7	33.3	41.7	8.3	1000
	임실군	(18)	11.1	11.1	50.0	22.2	5.6	1000
	순창군	(18)	5.6	33.3	44.4	16.7	0.0	1000
	고창군	(30)	0.0	20.0	36.7	33.3	10.0	1000
	부안군	(30)	0.0	13.3	46.7	40.0	0.0	1000

전라북도민의 혼전 동거에 대한 의견은 찬성 40.4%, 중립 38.3%, 반대 21.3%인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과 중립 의견의 차이는 2.1%, 찬성과 반대 의견의 차이는 19.1%이다.

성별로는 혼전동거에 대해 남자는 38.3%, 여자는 42.5%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간 4.2%의 차이를 보이며 여자가 남자보다 혼전동거에 대한 생각이 더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만 18~20대 54.6%, 만 30대 56.4%, 만 40대 50.9%로 찬성 의견이 과반수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 50대와 만 60대 이상은 찬성 의견은 각 35.4%, 27.3%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중립 의견이 각 41.0%, 38.7%로 중립 의견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3-20] 동성애에 대한 인식

구분	사례수	동성애					계	
		매우 반대	반대	중립	찬성	매우찬성		
전체	(1000)	27.3	27.6	31.0	10.9	3.2	100.0	
성별	남	(499)	30.1	28.9	29.5	9.6	2.0	100.0
	여	(501)	24.6	26.3	32.5	12.2	4.4	100.0
연령대	만 18~20대	(152)	11.8	27.6	32.9	19.1	8.6	100.0
	만 30대	(117)	28.2	15.4	30.8	21.4	4.3	100.0
	만 40대	(169)	24.9	20.7	36.7	13.6	4.1	100.0
	만 50대	(195)	32.3	22.1	33.8	10.3	1.5	100.0
	만 60대 이상	(367)	31.9	37.6	26.2	3.3	1.1	100.0
전북 지역	전주시 완산구	(187)	28.9	19.3	36.9	11.8	3.2	100.0
	전주시 덕진구	(172)	28.5	19.8	30.2	14.5	7.0	100.0
	군산시	(146)	27.4	37.0	24.7	10.3	0.7	100.0
	익산시	(154)	21.4	35.7	28.6	11.0	3.2	100.0
	정읍시	(59)	27.1	28.8	35.6	5.1	3.4	100.0
	남원시	(45)	26.7	35.6	24.4	11.1	2.2	100.0
	김제시	(47)	29.8	23.4	38.3	6.4	2.1	100.0
	완주군	(53)	26.4	30.2	24.5	15.1	3.8	100.0
	진안군	(15)	13.3	40.0	40.0	6.7	0.0	100.0
	무주군	(14)	50.0	28.6	14.3	0.0	7.1	100.0
	장수군	(12)	41.7	16.7	41.7	0.0	0.0	100.0
	임실군	(18)	55.6	5.6	27.8	11.1	0.0	100.0
	순창군	(18)	33.3	16.7	50.0	0.0	0.0	100.0
	고창군	(30)	13.3	33.3	40.0	13.3	0.0	100.0
부안군	(30)	23.3	36.7	23.3	13.3	3.3	100.0	

동성애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중립 31.0%, 반대 27.6%, 매우 반대 27.3%, 찬성 10.9%, 매우 찬성 3.2% 순이었다. 반대 의견이 총 54.9%, 중립 의견이 31.0%, 찬성 의견이 14.1%로 동성애를 반대하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동성애 찬성비율이 더 높았다.

연령대별 동성애 반대 의견은 만 60대 이상 69.5%, 만 50대 54.4%, 만 40대 45.6%, 만 30대 43.6%, 만 18~20대 39.4% 순으로 나타나 연령대가 높을수록 동성애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의 6개의 시에서는 동성애 반대가 군산시 64.4%, 남원시 62.3%, 익산시 57.1% 순으로 높았고, 전주시가 약 48% 정도로 가장 낮았다. 전라북도의 8개의 군에서 무주군 78.6%, 임실군 61.2%, 완주군 56.6% 순으로 반대가 높았고, 고창군이 46.6%로 가장 낮았다.

[표 3-21] 이상적인 자녀의 수

구분	사례수	이상적인 자녀 수						계	
		0명	1명	2명	3명	4명	5명		
전체	(1000)	1.3	10.0	63.1	20.2	4.4	1.0	100.0	
성별	남	(499)	0.8	7.8	62.1	23.6	4.4	1.2	100.0
	여	(501)	1.8	12.2	64.1	16.8	4.4	0.8	100.0
연령대	만 18~20대	(152)	3.3	20.4	61.8	13.8	0.7	0.0	100.0
	만 30대	(117)	1.7	16.2	70.1	11.1	0.9	0.0	100.0
	만 40대	(169)	3.6	8.9	65.7	18.9	2.4	0.6	100.0
	만 50대	(195)	0.0	6.2	62.1	26.2	3.6	2.1	100.0
	만 60대 이상	(367)	0.0	6.3	60.8	23.2	8.4	1.4	100.0
전북 지역	전주시 완산구	(187)	0.5	13.4	63.1	18.7	3.7	0.5	100.0
	전주시 덕진구	(172)	2.9	9.9	64.5	15.1	5.8	1.7	100.0
	군산시	(146)	2.1	8.9	69.9	15.8	3.4	0.0	100.0
	익산시	(154)	0.6	13.6	60.4	19.5	5.2	0.6	100.0
	정읍시	(59)	1.7	5.1	64.4	25.4	3.4	0.0	100.0
	남원시	(45)	0.0	4.4	66.7	17.8	6.7	4.4	100.0
	김제시	(47)	0.0	6.4	59.6	34.0	0.0	0.0	100.0
	완주군	(53)	3.8	11.3	50.9	20.8	7.5	5.7	100.0
	진안군	(15)	0.0	6.7	60.0	26.7	6.7	0.0	100.0
	무주군	(14)	0.0	7.1	64.3	21.4	7.1	0.0	100.0
	장수군	(12)	0.0	8.3	58.3	33.3	0.0	0.0	100.0
	임실군	(18)	0.0	11.1	66.7	16.7	5.6	0.0	100.0
	순창군	(18)	0.0	0.0	55.6	44.4	0.0	0.0	100.0
	고창군	(30)	0.0	3.3	63.3	33.3	0.0	0.0	100.0
	부안군	(30)	0.0	13.3	60.0	20.0	6.7	0.0	100.0

전라북도민의 이상적인 자녀 수는 2명이 63.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3명 20.2%, 1명이 10.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남성과 여성 모두 이상적인 자녀의 수로 2명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3명 그리고 1명 등의 순이었다.

연령대별로도 자녀 2명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았으나 그 외 자녀수에 대해 다소 응답 차이가 존재했다. 사회적으로 출산연령대에 해당하는 만 20대, 만 30대는 이상적인 자녀 수 1명 응답이 2순위인 대신, 만 40대 이상부터는 이상적인 자녀수 3명이 2순위를 차지 하였다. 더불어 자녀수 0명일 경우 만 50대 이상부터는 응답을 하지 않았는데 만 18~20대, 만 30대, 만 40대는 비록 소수지만 응답을 했다.

전라북도 지역에서 대부분의 시(전주시·군산시·익산시·정읍시)와 완주군 지역에서 소수 이기는 하지만 자녀를 갖지 않겠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표 3-22] 성차별에 대한 인식

구분	사 례 수	성차별 인식							계	5점 평균	
		① 매우 그렇다 (여성 차별)	② 그런 편이다 (여성 차별)	③ 중간	④ 그런 편이다 (남성 차별)	⑤ 매우 그렇다 (남성 차별)	①+② (여성 차별)	④+⑤ (남성 차별)			
전체	(1000)	5.5	39.0	46.3	7.0	2.2	44.5	9.2	1000	2.61	
성 별	남	(499)	2.6	32.3	51.5	10.2	3.4	34.9	13.6	1000	2.80
	여	(501)	8.4	45.7	41.1	3.8	1.0	54.1	4.8	1000	2.43
연 령 대	만 18 ~20대	(152)	5.3	31.6	57.9	3.3	2.0	36.8	5.3	1000	2.65
	만 30대	(117)	8.5	34.2	40.2	12.8	4.3	42.7	17.1	1000	2.70
	만 40대	(169)	10.1	36.7	47.3	4.7	1.2	46.7	5.9	1000	2.50
	만 50대	(195)	7.7	37.4	40.5	10.3	4.1	45.1	14.4	1000	2.66
	만 60대 이상	(367)	1.4	45.5	46.0	6.0	1.1	46.9	7.1	1000	2.60
전 북 지 역	전주시 완산구	(187)	8.0	39.6	42.2	8.6	1.6	47.6	10.2	1000	2.56
	전주시 덕진구	(172)	5.2	33.1	50.0	9.3	2.3	38.4	11.6	1000	2.70
	군산시	(146)	2.7	42.5	50.0	4.1	.7	45.2	4.8	1000	2.58
	익산시	(154)	9.7	42.2	42.9	3.9	1.3	51.9	5.2	1000	2.45
	정읍시	(59)	5.1	42.4	42.4	8.5	1.7	47.5	10.2	1000	2.59
	남원시	(45)	4.4	37.8	44.4	4.4	8.9	42.2	13.3	1000	2.76
	김제시	(47)	2.1	36.2	53.2	4.3	4.3	38.3	8.5	1000	2.72
	완주군	(53)	3.8	37.7	52.8	3.8	1.9	41.5	5.7	1000	2.62
	진안군	(15)	6.7	33.3	46.7	6.7	6.7	40.0	13.3	1000	2.73
	무주군	(14)	0.0	28.6	50.0	14.3	7.1	28.6	21.4	1000	3.00
	장수군	(12)	0.0	50.0	33.3	16.7	0.0	50.0	16.7	1000	2.67
	임실군	(18)	5.6	16.7	38.9	38.9	0.0	22.2	38.9	1000	3.11
	순창군	(18)	0.0	27.8	72.2	0.0	0.0	27.8	0.0	1000	2.72
	고창군	(30)	3.3	50.0	33.3	6.7	6.7	53.3	13.3	1000	2.63
부안군	(30)	3.3	50.0	43.3	3.3	0.0	53.3	3.3	1000	2.47	

성차별과 관련해서는 ‘중간’ 응답이 가장 많으나, ‘중간’ 응답 46.3% 제외 여성과 남성 모두 남성차별보다 여성차별을 더 높게 인지하고 있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여성차별 인지 비율은 34.9%로 중간 51.5%보다 낮았으며, 여성일 경우 여성차별 인지비율은 54.1%로 중간 41.1%보다 높았다. 남성차별일 경우 남성응답이 13.6%로 여성응답 4.8%보다 높았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만 18대~20대가 ‘중간’응답이 57.9%, ‘여성차별’ 36.8%로 다른 연령대보다 ‘중간’응답과 ‘여성차별’ 응답간 차이가 컸다. ‘남성차별’일 경우 만 30대가 17.1%로 다른 연령대보다 응답비율이 높았다.

전라북도 지역에서 6개의 시에서 전주시 완산구·익산시·정읍시가, 8개의 군에서 장수군·고창군·부안군이 ‘중간’응답보다 ‘여성차별’응답비율이 더 높았다.

[표 3-23] 가사돌봄의 책임에 대한 인식

구분	사 례 수	가사돌봄 책임							계	5 점 평 균	
		① 매우 그렇다 (여성 책임)	② 그런 편이다 (여성 책임)	③ 중간	④ 그런 편이다 (남성 차별)	⑤ 매우 그렇다 (남성 책임)	①+② (여성 책임)	④+⑤ (남성 책임)			
전체	(1000)	0.9	16.1	79.2	2.8	1.0	17.0	3.8	1000	2.87	
성 별	남	(499)	1.0	13.8	80.6	3.6	1.0	14.8	4.6	1000	2.90
	여	(501)	0.8	18.4	77.8	2.0	1.0	19.2	3.0	1000	2.84
연 령 대	만 18 ~20대	(152)	0.0	10.5	85.5	3.3	0.7	10.5	3.9	1000	2.94
	만 30대	(117)	0.9	12.8	77.8	4.3	4.3	13.7	8.5	1000	2.98
	만 40대	(169)	0.6	11.2	85.2	3.0		11.8	3.0	1000	2.91
	만 50대	(195)	2.6	12.3	82.1	2.6	0.5	14.9	3.1	1000	2.86
	만 60대 이상	(367)	0.5	23.7	72.8	2.2	0.8	24.3	3.0	1000	2.79
전 북 지 역	전주시 완산구	(187)	1.1	13.9	80.7	1.6	2.7	15.0	4.3	1000	2.91
	전주시 덕진구	(172)	0.6	13.4	82.6	2.9	0.6	14.0	3.5	1000	2.90
	군산시	(146)	1.4	20.5	76.7	1.4	0.0	21.9	1.4	1000	2.78
	익산시	(154)	1.3	16.9	77.9	3.9	0.0	18.2	3.9	1000	2.84
	정읍시	(59)	0.0	10.2	78.0	10.2	1.7	10.2	11.9	1000	3.03
	남원시	(45)	0.0	11.1	80.0	4.4	4.4	11.1	8.9	1000	3.02
	김제시	(47)	0.0	19.1	80.9	0.0	0.0	19.1	0.0	1000	2.81
	완주군	(53)	0.0	24.5	75.5	0.0	0.0	24.5	0.0	1000	2.75
	진안군	(15)	6.7	20.0	73.3	0.0	0.0	26.7	0.0	1000	2.67
	무주군	(14)	0.0	14.3	71.4	7.1	7.1	14.3	14.3	1000	3.07
	장수군	(12)	0.0	16.7	83.3	0.0	0.0	16.7	0.0	1000	2.83
	임실군	(18)	0.0	27.8	66.7	5.6	0.0	27.8	5.6	1000	2.78
	순창군	(18)	0.0	0.0	88.9	11.1	0.0	0.0	11.1	1000	3.11
고창군	(30)	3.3	16.7	80.0	0.0	0.0	20.0	0.0	1000	2.77	
부안군	(30)	0.0	20.0	80.0	0.0	0.0	20.0	0.0	1000	2.80	

가사돌봄 책임과 관련하여 전체 ‘중간’ 응답은 79.2%였으나 ‘여성책임’ 응답이 17.0%로 ‘남성책임’ 3.8%보다 높았다. 성별로 살펴보면 중간응답이 높았으나 남성, 여성 모두 가사돌봄은 남성보다는 ‘여성책임’이라고 응답했다.

연령대별로도 ‘중간’ 응답 제외 가사돌봄은 남성보다는 ‘여성책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여성책임’이라고 응답한 연령대 중 만 18~20대는 10.5%로 연령대 중에서 응답비율이 가장 낮았으며, 만 60대 이상은 24.3%로 연령대 중에서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전라북도 6개 시에서 군산시가 가사돌봄은 ‘여성책임’ 21.9%로 가장 높았다. 전라북도의 8개의 군 중 대부분의 군이 가사돌봄이 ‘남성책임’이라는 응답이 무응답으로 나왔으며, ‘남성책임’으로 응답한 군은 무주군·임실군·순창군으로 무주군이 남성책임이 14.3%로 여성책임이라고 응답한 비율 14.3%와 동일했다.

[표 3-24]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1순위)

	사 례 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1순위)											계	
		건 강	가 정	능력 개발	성 공	취미 /여가	인간 관계	신 앙	외 모	명 예	정신 적 수양	이성 교제		기 타
전체	(1000)	66.3	13.7	6.0	5.5	3.1	2.5	1.4	0.4	0.3	0.3	0.3	0.2	100.0
성 별	남 (499)	64.9	13.6	6.2	6.4	2.6	3.2	1.6	0.0	0.4	0.4	0.4	0.2	100.0
	여 (501)	67.7	13.8	5.8	4.6	3.6	1.8	1.2	0.8	0.2	0.2	0.2	0.2	100.0
연 령 대	만 18 ~20대 (152)	49.3	9.2	15.1	14.5	2.0	3.9	0.7	2.6	0.0	0.0	2.0	0.7	100.0
	만 30대 (117)	59.0	19.7	5.1	7.7	4.3	2.6	0.9	0.0	0.0	0.0	0.0	0.9	100.0
	만 40대 (169)	66.9	18.3	4.7	4.7	0.6	1.2	1.8	0.0	1.8	0.0	0.0	0.0	100.0
	만 50대 (195)	77.9	8.7	1.0	3.1	1.5	2.6	4.1	0.0	0.0	1.0	0.0	0.0	100.0
	만 60대 이상 (367)	69.2	14.2	5.7	2.7	5.2	2.5	0.3	0.0	0.0	0.3	0.0	0.0	100.0
전 북 지 역	전주시 완산구 (187)	64.2	14.4	3.7	8.0	1.6	2.1	3.2	0.5	0.5	0.5	0.5	0.5	100.0
	전주시 덕진구 (172)	68.0	12.8	8.7	4.1	2.3	1.7	1.7	0.0	0.6	0.0	0.0	0.0	100.0
	군산시 (146)	63.7	14.4	6.8	8.2	2.1	1.4	0.7	0.7	0.7	0.7	0.7	0.0	100.0
	익산시 (154)	59.7	14.9	8.4	5.8	6.5	1.9	0.0	1.3	0.0	0.0	0.6	0.6	100.0
	정읍시 (59)	69.5	15.3	3.4	5.1	5.1	1.7	0.0	0.0	0.0	0.0	0.0	0.0	100.0
	남원시 (45)	64.4	22.2	4.4	0.0	2.2	6.7	0.0	0.0	0.0	0.0	0.0	0.0	100.0
	김제시 (47)	80.9	4.3	2.1	4.3	2.1	6.4	0.0	0.0	0.0	0.0	0.0	0.0	100.0
	완주군 (53)	64.2	13.2	3.8	7.5	5.7	1.9	1.9	0.0	0.0	1.9	0.0	0.0	100.0
	진안군 (15)	66.7	13.3	13.3	0.0	0.0	0.0	6.7	0.0	0.0	0.0	0.0	0.0	100.0
	무주군 (14)	78.6	7.1	7.1	0.0	0.0	7.1	0.0	0.0	0.0	0.0	0.0	0.0	100.0
	장수군 (12)	75.0	8.3	8.3	0.0	0.0	8.3	0.0	0.0	0.0	0.0	0.0	0.0	100.0
	임실군 (18)	72.2	11.1	0.0	5.6	5.6	0.0	5.6	0.0	0.0	0.0	0.0	0.0	100.0
	순창군 (18)	77.8	16.7	5.6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고창군 (30)	80.0	10.0	3.3	3.3	0.0	0.0	3.3	0.0	0.0	0.0	0.0	0.0	100.0
부안군 (30)	60.0	13.3	6.7	3.3	6.7	10.0	0.0	0.0	0.0	0.0	0.0	0.0	100.0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1순위는 '건강'이 66.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가정' 13.7%, '능력개발' 6.0%, '성공' 5.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성의 경우 '건강'이 64.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가정' 13.6%, '성공' 6.4%, '능력개발' 6.2% 등의 순이었으며, 여성의 경우 '건강'이 67.7%, '가정'이 13.8%, '능력개발' 5.8%, '성공'이 4.6% 등의 순으로 성별 간 다소 차이가 존재했다.

연령대별로도 '건강'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만 50대와 만 60대 이상이 차례대로 '건강' 응답 비율이 높았으나, 만 18~20대는 건강 응답 비율이 다른 연령대보다 낮았다. 특히 만 18~20대는 사회적으로 취업과 진학에 해당되는 연령대로 다른 연령대보다 '능력개발', '성공' 응답 비율이 높은 모습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남원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 '가정' 응답이, 진안군은 '능력개발'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3-25]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순위종합)

	사 례 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1+2순위)												계	
		건 강	가 정	성 공	능력 개발	인간 관계	취미 /여가	신 앙	명 예	정신 적 수양	외 모	기 타	이성 교제		
전체	(1000)	820	439	174	168	150	106	6.0	3.4	2.5	0.9	0.9	0.6	1000	
성 별	남	(499)	792	415	202	170	160	114	5.8	3.8	2.4	0.6	1.0	1.0	1000
	여	(501)	848	463	146	166	140	9.8	6.2	3.0	2.6	1.2	0.8	0.2	1000
연 령 대	만 18 ~20대	(152)	632	230	362	336	132	7.9	2.6	9.9	1.3	4.6	1.3	3.3	1000
	만 30대	(117)	829	530	231	128	7.7	103	4.3	1.7	0.9	0.0	2.6	0.9	1000
	만 40대	(169)	822	497	195	130	148	5.9	5.3	4.1	3.0	1.2	1.2	0.0	1000
	만 50대	(195)	872	467	113	8.2	195	103	9.7	1.5	5.6	0.0	0.0	0.0	1000
	만 60대 이상	(367)	866	455	101	174	158	142	6.3	1.9	1.6	0.0	0.5	0.0	1000
전 북 지 역	전주시 완산구	(187)	79.7	44.9	182	123	166	8.0	9.6	5.3	1.1	1.6	1.1	1.6	1000
	전주시 덕진구	(172)	802	436	169	180	134	9.9	7.0	5.2	3.5	0.0	2.3	0.0	1000
	군산시	(146)	788	438	233	212	130	7.5	2.7	3.4	2.7	2.7	0.0	0.7	1000
	익산시	(154)	799	461	169	195	136	130	1.9	2.6	2.6	1.3	1.3	1.3	1000
	정읍시	(59)	881	458	186	136	102	153	3.4	3.4	1.7	0.0	0.0	0.0	1000
	남원시	(45)	800	467	111	133	200	133	4.4	2.2	6.7	0.0	2.2	0.0	1000
	김제시	(47)	91.5	426	149	149	213	4.3	6.4	2.1	2.1	0.0	0.0	0.0	1000
	완주군	(53)	906	358	208	113	113	151	9.4	0.0	5.7	0.0	0.0	0.0	1000
	진안군	(15)	800	400	133	267	267	6.7	6.7	0.0	0.0	0.0	0.0	0.0	1000
	무주군	(14)	85.7	35.7	0.0	214	214	214	7.1	7.1	0.0	0.0	0.0	0.0	1000
	장수군	(12)	83.3	500	8.3	167	167	250	0.0	0.0	0.0	0.0	0.0	0.0	1000
	임실군	(18)	889	61.1	11.1	5.6	11.1	5.6	16.7	0.0	0.0	0.0	0.0	0.0	1000
	순창군	(18)	94.4	44.4	11.1	16.7	16.7	11.1	5.6	0.0	0.0	0.0	0.0	0.0	1000
	고창군	(30)	86.7	36.7	133	133	200	133	100	3.3	3.3	0.0	0.0	0.0	1000
부안군	(30)	76.7	36.7	200	300	167	133	6.7	0.0	0.0	0.0	0.0	0.0	1000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1+2순위에서 '건강'이 82.0%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가정' 43.9%, '성공' 17.4%, '능력개발' 16.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건강' 79.2%, '가정' 41.5%, '성공' 20.2%, 등의 순이었으나 여성은 '건강' 84.8%, '가정' 46.3%, '능력개발' 16.6%, '성공' 14.6% 등의 순으로 성별간 다소 차이가 존재했다.

연령대별로도 다소 차이가 존재했는데 만 18~20대는 다른 연령대와 다르게 '건강' 다음으로 '성공' 36.2%, '능력개발' 33.6%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가정을 2순위로 응답한 연령대에서 만 30대의 비중이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임실군이 다른 시군보다 '가정'과 '신앙'을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6] 복지와 분배에 대한 주관적 인식

	사례수	국가가 복지를 책임져야 한다	능력에 관계없이 모두가 잘 살아야 한다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분배는 공정한 편이다	
		4점 평균	4점 평균	4점 평균	
전체	(1000)	3.11	2.71	2.15	
성별	남	(499)	3.09	2.69	2.15
	여	(501)	3.13	2.73	2.15
연령대	만 18~20대	(152)	3.04	2.73	2.34
	만 30대	(117)	2.99	2.50	2.04
	만 40대	(169)	3.20	2.59	1.90
	만 50대	(195)	3.26	2.67	1.88
	만 60대 이상	(367)	3.05	2.84	2.36
전북 지역	전주시 완산구	(187)	3.16	2.68	2.07
	전주시 덕진구	(172)	3.18	2.58	1.99
	군산시	(146)	3.02	2.68	2.20
	익산시	(154)	3.05	2.71	2.31
	정읍시	(59)	3.15	2.85	2.22
	남원시	(45)	3.07	2.71	2.33
	김제시	(47)	3.17	2.77	2.13
	완주군	(53)	3.11	2.83	2.30
	진안군	(15)	3.27	2.87	1.93
	무주군	(14)	3.14	2.71	2.14
	장수군	(12)	3.08	2.67	1.67
	임실군	(18)	3.17	2.67	2.17
	순창군	(18)	3.11	2.94	2.17
	고창군	(30)	3.07	2.87	1.93
	부안군	(30)	3.00	2.83	2.30

‘국가가 복지를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이 4점 평균에서 3.1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능력에 관계없이 모두가 잘 살아야 한다’ 2.71점,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분배는 공정한 편이다’ 2.15점 순이었다. 해당 순서는 성별·연령·전북 지역에서 모두 동일하게 나타났다.

남성과 여성일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국가가 복지를 책임져야 한다’와 ‘능력에 관계없이 모두가 잘 살아야 한다’의 평균이 높았다. 연령대에서는 만 50대가 ‘국가가 복지를 책임져야 한다’ 점수가 3.26점으로 제일 높았으며,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분배는 공정한 편이다’에 대해서는 1.88점으로 점수가 가장 낮았다. 전라북도 지역에서 대부분의 군(완주군, 진안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이 ‘능력에 상관없이 모두가 잘 살아야 한다’의 평균 2.71점을 웃도는 점수를 기록했다.

[표 3-27] 복지 책임에 대한 인식

	사례수	국가가 복지를 책임져야 한다				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는 편	동의하는 편	매우 동의함		
전체	(1000)	0.3	10.5	67.1	22.1	100.0	
성별	남	(499)	0.6	12.4	63.9	23.1	100.0
	여	(501)	0.0	8.6	70.3	21.2	100.0
연령대	만 18~20대	(152)	0.0	13.8	68.4	17.8	100.0
	만 30대	(117)	0.9	16.2	65.8	17.1	100.0
	만 40대	(169)	0.0	8.3	63.3	28.4	100.0
	만 50대	(195)	0.0	7.7	58.5	33.8	100.0
	만 60대 이상	(367)	0.5	9.8	73.2	16.4	100.0
전북 지역	전주시 완산구	(187)	0.0	9.6	65.2	25.1	100.0
	전주시 덕진구	(172)	0.0	7.0	68.0	25.0	100.0
	군산시	(146)	0.0	13.1	71.7	15.2	100.0
	익산시	(154)	0.6	13.0	67.5	18.8	100.0
	정읍시	(59)	0.0	13.6	57.6	28.8	100.0
	남원시	(45)	0.0	15.6	62.2	22.2	100.0
	김제시	(47)	0.0	14.9	53.2	31.9	100.0
	완주군	(53)	1.9	3.8	75.5	18.9	100.0
	진안군	(15)	0.0	0.0	73.3	26.7	100.0
	무주군	(14)	0.0	14.3	57.1	28.6	100.0
	장수군	(12)	0.0	16.7	58.3	25.0	100.0
	임실군	(18)	5.6	11.1	44.4	38.9	100.0
	순창군	(18)	0.0	5.6	77.8	16.7	100.0
	고창군	(30)	0.0	10.0	73.3	16.7	100.0
	부안군	(30)	0.0	6.7	86.7	6.7	100.0

‘국가가 복지를 책임져야 한다’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편이 67.1%로 가장 높았고, 매우 동의함 22.1%, 동의하지 않는 편 10.5%, 전혀 동의하지 않음 0.3%를 나타내며 국가가 복지를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동의비율이 더 높았다. 연령대별로도 동의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는데, 만 50대가 92.3%로 가장 높게 높았고, 만 30대가 82.9%로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 진안군에서 100% 동의한다는 의견을 보였고, 순창군 94.5%, 완주군 94.4% 등의 의견을 나타내며, 모든 지역에서 ‘동의한다’ 의견이 83.0% 이상으로 나타났다.

[표 3-28] 능력주의에 대한 인식

		사례수	능력에 관계없이 모두 잘 살아야 한다				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는 편	동의하는 편	매우 동의함	
전체		(1000)	4.3	31.6	53.0	11.1	100.0
성별	남	(499)	5.6	31.7	51.0	11.6	100.0
	여	(501)	3.0	31.5	54.9	10.6	100.0
연령대	만 18~20대	(152)	1.3	32.2	58.6	7.9	100.0
	만 30대	(117)	7.7	42.7	41.0	8.5	100.0
	만 40대	(169)	5.3	42.0	40.8	11.8	100.0
	만 50대	(195)	7.2	35.4	40.5	16.9	100.0
	만 60대 이상	(367)	2.5	21.0	66.7	9.8	100.0
전북지역	전주시 완산구	(187)	5.3	35.8	44.4	14.4	100.0
	전주시 덕진구	(172)	4.7	38.4	51.2	5.8	100.0
	군산시	(146)	4.1	30.3	58.6	6.9	100.0
	익산시	(154)	3.9	29.9	57.8	8.4	100.0
	정읍시	(59)	5.1	18.6	62.7	13.6	100.0
	남원시	(45)	2.2	40.0	42.2	15.6	100.0
	김제시	(47)	6.4	23.4	57.4	12.8	100.0
	완주군	(53)	7.5	17.0	60.4	15.1	100.0
	진안군	(15)	0.0	46.7	20.0	33.3	100.0
	무주군	(14)	0.0	50.0	28.6	21.4	100.0
	장수군	(12)	0.0	41.7	50.0	8.3	100.0
	임실군	(18)	5.6	33.3	50.0	11.1	100.0
	순창군	(18)	0.0	27.8	50.0	22.2	100.0
	고창군	(30)	3.3	20.0	63.3	13.3	100.0
부안군	(30)	0.0	26.7	63.3	10.0	100.0	

전라북도민은 '능력에 관계없이 모두가 잘 살아야 한다'에 대해 동의하는 편 53.0%, 동의하지 않는 편 31.6%, 매우 동의함 11.1%, 전혀 동의하지 않음 4.3% 등의 순이었다. 64.1%가 해당 의견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분석한 결과, 남자 62.6%, 여자 65.5%로 비슷한 비율로 해당 의견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별 응답 비율이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찬성 응답 비율은 만 60대 이상이 76.5%, 만 18~20대 66.5%, 만 50대 57.4%, 만 40대 52.6%, 만 30대 49.5% 순이었다. 지역별로도 전체 시군 전부 동의한다는 비율이 더 높았으며, 그 중 고창군이 76.6%로 전체 시군 중 가장 동의비율이 높았다.

[표 3-29] 경제적 분배의 공정성 정도에 대한 인식

		사례수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분배는 공정한 편이다.				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는 편	동의하는 편	매우 동의함	
전체		(1000)	19.5	47.6	31.2	1.6	100.0
성별	남	(499)	18.7	49.4	30.1	1.8	100.0
	여	(501)	20.4	45.9	32.3	1.4	100.0
연령대	만 18-20대	(152)	9.9	46.1	44.1	0.0	100.0
	만 30대	(117)	25.6	47.9	23.1	3.4	100.0
	만 40대	(169)	28.4	53.8	17.2	0.6	100.0
	만 50대	(195)	29.7	53.3	15.9	1.0	100.0
	만 60대 이상	(367)	12.0	42.3	43.2	2.5	100.0
전라북도 지역	전주시 완산구	(187)	20.3	54.0	23.5	2.1	100.0
	전주시 덕진구	(172)	26.2	48.8	24.4	0.6	100.0
	군산시	(146)	19.3	41.4	39.3	0.0	100.0
	익산시	(154)	12.3	47.4	37.7	2.6	100.0
	정읍시	(59)	20.3	39.0	39.0	1.7	100.0
	남원시	(45)	8.9	55.6	28.9	6.7	100.0
	김제시	(47)	17.0	53.2	29.8	0.0	100.0
	완주군	(53)	17.0	37.7	43.4	1.9	100.0
	진안군	(15)	20.0	66.7	13.3	0.0	100.0
	무주군	(14)	28.6	42.9	14.3	14.3	100.0
	장수군	(12)	50.0	33.3	16.7	0.0	100.0
	임실군	(18)	22.2	38.9	38.9	0.0	100.0
	순창군	(18)	11.1	61.1	27.8	0.0	100.0
	고창군	(30)	26.7	53.3	20.0	0.0	100.0
부안군	(30)	16.7	36.7	46.7	0.0	100.0	

전라북도민의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분배는 공정한 편이다'에 대한 분석 결과, 동의하지 않는 편 47.6%, 동의하는 편 31.2%, 전혀 동의하지 않음 19.5%, 매우 동의함 1.6%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녀 모두 경제적 분배가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 68.1%, 여자 66.3%로 비슷한 응답 비율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경제적 분배가 공정한 편이라는 의견이 만 60대 이상 집단이 45.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만 18~20대 44.1%, 만 30대 26.5%, 만 40대 17.8%, 만 50대 16.9% 순이었다. 만 40대와 만 50대 집단이 상대적으로 더 경제적 분배가 공정하지 않다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체 시군에서 동의하지 않는 편 비율이 높았다. 그 중 부안군이 동의하는 편과 동의하지 않는 편 비율 차이가 6.7%로 가장 적었다.

4. 정치인식과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

정치성향을 조사한 결과 ‘약간 진보’ 40.2%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중도’ 38.6%, ‘약간 보수’ 13.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진보’가 45.6%로 ‘보수’ 15.8%보다 높았다. 성별로 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진보’가 가장 많았다. 연령대에서는 만 30대만이 ‘중도’ 비중이 53.8%로 유일하게 50%를 넘겨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다. ‘진보’ 응답 연령대에서 만 18~20대 응답비중이 56.6%로 매우 높았다. ‘보수’ 응답은 만 60대 이상이 18.3%로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도 다소 차이가 존재했는데 주로 군에서 ‘진보’ 응답비중이 높은 편이었으며, 특히 장수군이 83.3%로 가장 많이 응답했다. 무주군도 ‘진보’ 응답비중이 많았으나 다른 지역에 비해 정치성향 응답 2순위가 보수 28.6%로 전라북도 지역에서 ‘보수’ 응답비중이 가장 높은 편에 속했다.

[표 3-30] 정치성향에 대한 주관적 인식

구분	사 례 수	정치성향							계	5점 평균	
		① 매우 보수	② 약간 보수	③ 중도	④ 약간 진보	⑤ 매우 진보	①+② (보수)	④+⑤ (진보)			
전체	(1000)	2.0	13.8	38.6	40.2	5.4	15.8	45.6	100.0	3.33	
성 별	남	(499)	1.6	14.2	36.1	42.1	6.0	15.8	48.1	100.0	3.37
	여	(501)	2.4	13.4	41.1	38.3	4.8	15.8	43.1	100.0	3.30
연 령 대	만 18 ~20대	(152)	0.0	11.8	31.6	50.0	6.6	11.8	56.6	100.0	3.51
	만 30대	(117)	0.9	16.2	53.8	27.4	1.7	17.1	29.1	100.0	3.13
	만 40대	(169)	1.2	9.5	39.6	42.0	7.7	10.7	49.7	100.0	3.46
	만 50대	(195)	4.6	13.3	35.4	39.0	7.7	17.9	46.7	100.0	3.32
	만 60대 이상	(367)	2.2	16.1	37.9	40.1	3.8	18.3	43.9	100.0	3.27
전 북 지 역	전주시	(187)	2.7	12.8	41.2	38.5	4.8	15.5	43.3	100.0	3.30
	완산구										
	전주시 덕진구	(172)	0.6	16.3	40.1	40.7	2.3	16.9	43.0	100.0	3.28
	군산시	(146)	2.1	14.4	47.3	32.9	3.4	16.4	36.3	100.0	3.21
	익산시	(154)	2.6	16.2	33.8	42.2	5.2	18.8	47.4	100.0	3.31
	정읍시	(59)	5.1	6.8	44.1	33.9	10.2	11.9	44.1	100.0	3.37
	남원시	(45)	2.2	11.1	42.2	44.4	0.0	13.3	44.4	100.0	3.29
	김제시	(47)	2.1	19.1	27.7	44.7	6.4	21.3	51.1	100.0	3.34
완주군	(53)	0.0	13.2	20.8	52.8	13.2	13.2	66.0	100.0	3.66	

[표 3-31] 정치성향에 대한 주관적 인식(표계속)

구분	사 례 수	정치성향							계	5점 평균	
		① 매우 보수	② 약간 보수	③ 중도	④ 약간 진보	⑤ 매우 진보	①+② (보수)	④+⑤ (진보)			
전 북 지 역	진안군	(15)	6.7	6.7	40.0	46.7	0.0	13.3	46.7	100.0	327
	무주군	(14)	7.1	21.4	21.4	28.6	21.4	28.6	50.0	100.0	336
	장수군	(12)	0.0	0.0	16.7	58.3	25.0	0.0	83.3	100.0	408
	임실군	(18)	0.0	0.0	44.4	50.0	5.6	0.0	55.6	100.0	361
	순창군	(18)	0.0	16.7	27.8	50.0	5.6	16.7	55.6	100.0	344
	고창군	(30)	0.0	20.0	40.0	33.3	6.7	20.0	40.0	100.0	327
	부안군	(30)	0.0	6.7	46.7	40.0	6.7	6.7	46.7	100.0	347

[표 3-32] 정치에 대한 관심정도

구분	사 례 수	정치관심							계	5점 평균	
		① 전혀 관심 없음	② 별로 관심 없음	③ 보통	④ 약간 관심 있음	⑤ 매우 관심 있음	①+② (관심 없음)	④+⑤ (관심 있음)			
전체	(1000)	2.4	18.0	29.2	36.8	13.6	20.4	50.4	100.0	341	
성 별	남	(499)	1.0	18.0	26.1	37.7	17.2	19.0	54.9	100.0	352
	여	(501)	3.8	18.0	32.3	35.9	10.0	21.8	45.9	100.0	330
연 령 대	만 18 ~20대	(152)	2.6	41.4	32.2	17.8	5.9	44.1	23.7	100.0	288
	만 30대	(117)	3.4	17.1	25.6	41.9	12.0	20.5	53.8	100.0	342
	만 40대	(169)	3.0	13.0	29.0	41.4	13.6	16.0	55.0	100.0	350
	만 50대	(195)	2.1	7.2	26.7	43.1	21.0	9.2	64.1	100.0	374
	만 60대 이상	(367)	1.9	16.6	30.5	37.6	13.4	18.5	51.0	100.0	344
전 북 지 역	전주시 완산구	(187)	2.7	16.6	30.5	38.0	12.3	19.3	50.3	100.0	341
	전주시 덕진구	(172)	1.7	15.7	29.7	39.0	14.0	17.4	52.9	100.0	348
	군산시	(146)	3.4	29.5	26.0	30.8	10.3	32.9	41.1	100.0	315
	익산시	(154)	3.2	21.4	28.6	37.0	9.7	24.7	46.8	100.0	329

[표 3-33] 정치에 대한 관심정도(표 계속)

구분	사 례 수	정치관심							계	5점 평균
		① 전혀 관심 없음	② 별로 관심 없음	③ 보통	④ 약간 관심 있음	⑤ 매우 관심 있음	①+② (관심 없음)	④+⑤ (관심 있음)		
전 북 지 역	정읍시 (59)	1.7	13.6	25.4	42.4	16.9	15.3	59.3	100.0	3.59
	남원시 (45)	2.2	17.8	37.8	31.1	11.1	20.0	42.2	100.0	3.31
	김제시 (47)	4.3	17.0	25.5	31.9	21.3	21.3	53.2	100.0	3.49
	완주군 (53)	0.0	11.3	32.1	39.6	17.0	11.3	56.6	100.0	3.62
	진안군 (15)	0.0	6.7	33.3	40.0	20.0	6.7	60.0	100.0	3.73
	무주군 (14)	0.0	0.0	14.3	42.9	42.9	0.0	85.7	100.0	4.29
	장수군 (12)	0.0	8.3	25.0	25.0	41.7	8.3	66.7	100.0	4.00
	임실군 (18)	5.6	11.1	16.7	44.4	22.2	16.7	66.7	100.0	3.67
	순창군 (18)	0.0	33.3	38.9	27.8	0.0	33.3	27.8	100.0	2.94
	고창군 (30)	3.3	10.0	30.0	46.7	10.0	13.3	56.7	100.0	3.50
부안군 (30)	0.0	10.0	40.0	36.7	13.3	10.0	50.0	100.0	3.53	

정치에 대한 관심은 ‘약간 관심있음’ 응답이 36.8%로 가장 높았으며, ‘보통’ 29.2%, ‘별로 관심없음’ 18.0%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관심있음’ 비중은 50.4%로 ‘관심없음’ 20.4%에 비해 높았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54.9%로 여성 45.9%에 비해 정치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에서 다소 차이가 존재했는데 만 30대 이상부터는 정치 관심이 있는 반면 만 18~20대는 ‘관심없음’이 44.1%로 정치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에 대한 관심은 만 50대가 64.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하면, 20대 이하는 정치적 무관심의 정도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고 40대와 50대의 장년층은 정치적 관심도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한편, 지역별로는 순창군이 다른 지역과는 달리 ‘관심없음’이 33.3%로 ‘관심있음’ 27.8%보다 높았다.

[표 3-34] 주관적 생활수준에 대한 평가

구분	사 례 수	생활수준							계	5점 평균	
		① 하류	② 중하류	③ 중류	④ 중상류	⑤ 상류	①+② (Bottom2)	④+⑤ (Top2)			
전체	(1000)	5.0	29.9	53.7	10.7	0.7	34.9	11.4	100.0	2.72	
성별	남	(499)	3.6	29.1	55.1	11.4	0.8	32.7	12.2	100.0	2.77
	여	(501)	6.4	30.7	52.3	10.0	0.6	37.1	10.6	100.0	2.68
연령대	만 18~20대	(152)	3.9	34.9	53.3	7.2	0.7	38.8	7.9	100.0	2.66
	만 30대	(117)	3.4	35.0	56.4	5.1	0.0	38.5	5.1	100.0	2.63
	만 40대	(169)	4.1	26.0	58.6	10.7	0.6	30.2	11.2	100.0	2.78
	만 50대	(195)	5.1	25.6	53.3	14.9	1.0	30.8	15.9	100.0	2.81
	만 60대 이상	(367)	6.3	30.2	51.0	11.7	0.8	36.5	12.5	100.0	2.71
전북 지역	전주시 완산구	(187)	2.7	24.1	58.3	12.8	2.1	26.7	15.0	100.0	2.88
	전주시 덕진구	(172)	3.5	25.6	60.5	10.5	0.0	29.1	10.5	100.0	2.78
	군산시	(146)	6.8	26.7	54.1	11.0	1.4	33.6	12.3	100.0	2.73
	익산시	(154)	9.7	39.0	42.2	9.1	0.0	48.7	9.1	100.0	2.51
	정읍시	(59)	3.4	28.8	57.6	10.2	0.0	32.2	10.2	100.0	2.75
	남원시	(45)	6.7	28.9	53.3	11.1	0.0	35.6	11.1	100.0	2.69
	김제시	(47)	2.1	40.4	44.7	12.8	0.0	42.6	12.8	100.0	2.68
	완주군	(53)	1.9	22.6	62.3	11.3	1.9	24.5	13.2	100.0	2.89
	진안군	(15)	13.3	46.7	33.3	6.7	0.0	60.0	6.7	100.0	2.33
	무주군	(14)	7.1	21.4	57.1	14.3	0.0	28.6	14.3	100.0	2.79
	장수군	(12)	0.0	33.3	50.0	16.7	0.0	33.3	16.7	100.0	2.83
	임실군	(18)	5.6	44.4	44.4	5.6	0.0	50.0	5.6	100.0	2.50
	순창군	(18)	0.0	44.4	50.0	5.6	0.0	44.4	5.6	100.0	2.61
	고창군	(30)	6.7	50.0	36.7	6.7	0.0	56.7	6.7	100.0	2.43
	부안군	(30)	3.3	16.7	70.0	10.0	0.0	20.0	10.0	100.0	2.87

생활수준 정도에서는 ‘중류’ 53.7%가 가장 높았고, ‘중하류’ 29.9%, ‘중상류’ 10.7%, ‘하류’ 5.0%, ‘상류’ 0.7% 순이었다. 대체로 하류수준(Bottom2) 전체 응답비중은 34.9%로 ‘상류수준(Top2)’ 11.4%보다 높았다. 성별로 보면 상대적으로 여성이 37.1%로 남성 32.7%보다 생활수준이 ‘하류수준(Bottom2)’이라고 더 많이 응답했다. 연령대는 공통적으로 ‘중류’ 응답이 많았으며, ‘하류수준(Bottom2),’ ‘상류수준(Top2)’ 순이었다.

전라북도 지역에서는 익산시·진안군·임실군·고창군은 ‘하류수준(Bottom2)’ 응답이 ‘중류’ 수준보다 높았다. 그 중 진안군이 14개 시군에서 ‘하류수준(Bottom2)’ 응답이 60.0%로 가장 높았다. ‘중류’ 응답은 부안군이 70.0%로 14개의 시군에서 가장 많았으며, ‘하류수준(Bottom2)’ 응답은 20.0%로 가장 낮았다. ‘상류수준(Top2)’ 응답은 장수군이 16.7%로 가장 높았다.

[표 3-35]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주관적 신뢰정도

구분	정치인	검찰	방송	법원	신문	변호사	포털 사이트 (네이버 등)	시민 단체	유튜브	
	100점 평균	100점 평균	100점 평균	100점 평균	100점 평균	100점 평균	100점 평균	100점 평균	100점 평균	
전체	30.10	33.74	43.33	44.11	40.25	47.88	46.75	49.85	40.10	
성별	남	31.74	33.61	43.84	44.44	40.69	50.63	47.65	50.36	42.34
	여	28.47	33.86	42.82	43.78	39.80	45.14	45.85	49.35	37.86
연령대	만 18 ~20대	33.37	43.92	49.45	51.59	47.57	68.23	55.32	53.57	47.11
	만 30대	25.06	29.90	35.36	37.86	34.41	38.13	38.98	34.34	33.30
	만 40대	23.56	24.63	37.86	39.71	34.95	40.63	39.31	43.44	37.28
	만 50대	28.52	24.48	38.27	37.11	34.96	40.33	42.60	49.57	39.41
	만 60대 이상	34.20	39.85	48.54	48.75	44.32	49.91	51.30	56.35	41.02
전북지역	전주시 완산구	26.02	29.22	40.67	41.29	39.49	41.95	43.92	45.65	38.76
	전주시 덕진구	26.88	27.56	38.30	42.75	35.88	47.58	41.84	43.24	38.69
	군산시	33.40	38.71	46.36	46.14	42.95	48.39	48.29	54.67	40.80
	익산시	30.89	38.05	47.62	44.12	41.92	53.32	50.10	50.94	41.38
	정읍시	27.88	35.76	45.44	46.92	41.53	48.22	48.14	49.42	32.63
	남원시	34.56	38.80	45.89	45.69	43.11	46.96	46.67	50.13	42.02
	김제시	32.62	32.49	44.79	45.30	43.19	51.43	54.47	62.83	41.06
	완주군	32.83	35.34	46.06	46.45	42.66	50.89	51.19	52.04	43.34
	진안군	26.00	22.53	32.67	34.60	32.40	35.53	44.07	47.60	36.80
	무주군	33.21	29.14	45.36	38.21	36.43	50.21	47.07	59.21	49.93
	장수군	27.50	29.58	36.67	31.67	29.17	39.17	39.58	52.92	40.42
	임실군	37.50	42.50	43.44	48.72	38.89	53.72	47.78	50.00	38.83
	순창군	35.56	38.89	49.17	59.89	44.67	57.11	51.67	36.89	41.11
고창군	30.27	29.20	36.70	40.87	32.37	39.63	36.60	53.97	46.73	
부안군	36.53	44.07	46.90	49.20	48.67	53.70	55.80	60.23	41.47	

[표 3-36]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주관적 신뢰정도 (표 계속)

구분	행정 공무원	SNS (페이 스북 등)	교사	대 기업	교수	점, 사주, 무속	경찰	종교 인	소방 관	의사	기상 청	
	100점 평균	100점 평균	100점 평균	100점 평균	100점 평균	100점 평균	100점 평균	100점 평균	100점 평균	100점 평균	100점 평균	
전체	53.38	40.30	57.63	47.70	55.01	19.10	51.30	38.50	71.40	61.23	61.18	
성 별	남	55.16	42.45	59.93	49.01	56.99	18.51	51.89	38.43	73.09	61.97	63.21
	여	51.60	38.16	55.34	46.39	53.04	19.68	50.70	38.55	69.73	60.49	59.16
연 령 대	만 18 ~20대	56.98	43.03	60.83	52.13	60.74	17.64	57.21	33.55	71.89	69.84	62.01
	만 30대	42.57	29.18	45.51	40.25	43.14	15.48	43.99	28.29	63.50	54.77	46.19
	만 40대	47.47	37.19	52.85	40.21	47.05	19.07	47.51	34.05	71.97	59.76	57.07
	만 50대	52.17	39.66	54.15	43.96	51.07	17.67	45.87	37.48	73.42	58.14	60.24
	만 60대 이상	58.69	44.49	64.22	53.68	62.18	21.63	55.80	46.38	72.39	62.04	68.01
전 북 지 역	전주시 완산구	48.98	39.42	55.56	43.90	50.41	16.59	46.37	35.53	68.29	59.36	59.35
	전주시 덕진구	49.37	37.31	55.99	45.13	51.54	14.91	48.23	36.01	72.07	60.94	59.73
	군산시	55.84	39.67	58.45	51.36	56.68	18.66	52.73	37.25	70.79	60.90	59.23
	익산시	55.68	40.85	57.51	48.51	56.74	22.01	53.58	37.76	72.81	65.50	63.03
	정읍시	52.88	37.20	54.02	47.54	53.73	19.42	52.29	37.97	72.00	57.83	61.49
	남원시	50.78	45.07	61.00	53.56	59.56	18.04	50.04	46.02	67.20	58.31	61.33
	김제시	57.23	46.06	61.60	52.06	56.81	17.81	55.91	35.77	75.17	60.79	65.49
	완주군	57.89	42.11	58.25	49.98	58.17	28.04	55.79	46.60	74.91	62.26	64.53
	진안군	48.87	33.53	51.00	38.73	49.33	15.07	37.93	38.33	65.00	54.13	59.93
	무주군	65.29	42.07	66.57	47.86	69.64	24.29	60.36	46.43	82.79	68.98	62.64
	장수군	49.17	35.83	53.75	44.17	55.67	20.00	52.00	31.58	67.08	48.33	59.00
	임실군	56.67	41.94	55.00	51.50	56.67	21.11	55.83	55.28	75.22	64.17	62.78
	순창군	58.33	46.11	68.33	55.00	62.78	27.50	59.72	53.33	75.39	72.06	64.78
	고창군	52.67	44.67	58.70	40.90	49.67	17.80	49.73	38.53	69.30	58.83	57.73
부안군	64.97	45.37	66.13	50.80	69.37	27.30	61.60	40.90	72.87	63.23	68.60	

인물이나 단체에 대한 신뢰점수는 ‘소방관’ 71.4점이 가장 높았으며 ‘의사’ 61.23점, ‘기상청’ 61.18점, ‘교사’ 57.63점 등의 순이었다. ‘점·사주·무속’은 19.10점으로 가장 점수가 낮았다.

성별로 보면, 남성일 경우 ‘소방관’ 73.09점, ‘기상청’ 63.21점, ‘의사’ 61.97점, ‘교사’ 59.93점, ‘교수’ 56.99점 등의 순이었으나 여성일 경우 ‘소방관’ 69.73점, ‘의사’ 60.49점, ‘기상청’ 59.16점 등의 순으로 순위에 다소 차이가 존재했다. 성별도 전체 경향과 마찬가지로 ‘점·사주·무속’과 ‘정치인’에 대해 공통적으로 신뢰점수가 낮았다.

연령대별로 다소 차이가 존재했는데 만 18~20대는 ‘소방관’, ‘의사’, ‘변호사’가 높은 점수를 차지했지만 만 30대·만 40대·만 50대는 ‘소방관’, ‘의사’, ‘기상청’의 점수가 높았고, 60대 이상은 ‘소방관’, ‘기상청’, ‘교사’의 점수가 높았다.

만 18~20대와 만 30대는 ‘점·사주·무속’, ‘종교인’, ‘정치인’의 신뢰점수가 낮았다. 만 40대, 만 50대, 만 60대 이상은 ‘점·사주·무속’, ‘정치인’, ‘검찰’에 대한 신뢰점수가 낮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주시(덕진구, 완산구)·군산시·익산시·정읍시·완주군·진안군·임실군은 동일하게 ‘소방관’, ‘의사’, ‘기상청’에 대한 신뢰점수가 높았다. 고창군과 순창군은 동일하게 ‘소방관’, ‘의사’, ‘교사’에 대한 신뢰점수가 높았다.

전주시(완산구, 덕진구)·남원시·김제시·완주군·진안군·무주군·고창군은 동일하게 점·사주·무속, 정치인, 검찰에 대한 신뢰점수가 낮았다. 군산시·익산시·부안군은 동일하게 ‘점·사주·무속’, ‘종교인’, ‘정치인’에 대한 신뢰점수가 낮았다.

[표 3-37] 현재 직업에 대한 만족 정도

구분	사 례 수	현재 직업 만족도							계	5점 평균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①+② (불 만족)	④+⑤ (만족)			
전체	(933)	1.2	7.3	43.3	36.0	12.2	8.5	48.2	100.0	3.51	
성 별	남	(478)	0.8	4.8	40.6	37.0	16.7	5.6	53.8	100.0	3.64
	여	(455)	1.5	9.9	46.2	34.9	7.5	11.4	42.4	100.0	3.37
연 령 대	만 18 ~20대	(143)	2.1	4.2	46.2	40.6	7.0	6.3	47.6	100.0	3.46
	만 30대	(114)	0.9	13.2	40.4	34.2	11.4	14.0	45.6	100.0	3.42
	만 40대	(165)	2.4	7.3	37.0	36.4	17.0	9.7	53.3	100.0	3.58
	만 50대	(186)	1.1	7.0	37.1	38.7	16.1	8.1	54.8	100.0	3.62
	만 60대 이상	(325)	0.3	6.8	49.8	32.9	10.2	7.1	43.1	100.0	3.46
전 북 지 역	전주시 완산구	(174)	0.0	7.5	33.9	41.4	17.2	7.5	58.6	100.0	3.68
	전주시 덕진구	(157)	1.3	6.4	42.0	35.0	15.3	7.6	50.3	100.0	3.57
	군산시	(137)	2.2	6.6	47.4	35.0	8.8	8.8	43.8	100.0	3.42
	익산시	(146)	2.1	10.3	44.5	37.0	6.2	12.3	43.2	100.0	3.35
	정읍시	(55)	1.8	7.3	40.0	40.0	10.9	9.1	50.9	100.0	3.51
	남원시	(39)	0.0	7.7	59.0	30.8	2.6	7.7	33.3	100.0	3.28
	김제시	(46)	2.2	2.2	63.0	17.4	15.2	4.3	32.6	100.0	3.41
	완주군	(50)	2.0	10.0	48.0	26.0	14.0	12.0	40.0	100.0	3.40
	진안군	(15)	0.0	6.7	33.3	40.0	20.0	6.7	60.0	100.0	3.73
	무주군	(13)	0.0	0.0	61.5	23.1	15.4	0.0	38.5	100.0	3.54
	장수군	(12)	0.0	16.7	41.7	41.7	0.0	16.7	41.7	100.0	3.25
	임실군	(16)	0.0	6.3	31.3	50.0	12.5	6.3	62.5	100.0	3.69
	순창군	(15)	0.0	6.7	46.7	26.7	20.0	6.7	46.7	100.0	3.60
	고창군	(29)	0.0	0.0	37.9	44.8	17.2	0.0	62.1	100.0	3.79
	부안군	(29)	0.0	10.3	34.5	44.8	10.3	10.3	55.2	100.0	3.55

현재 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만족+매우 만족)’이 48.2%, ‘보통’ 43.3%, ‘불만족(불만족+매우 불만족)’ 8.5% 순이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현재 ‘직업 만족도(만족+매우 만족)’가 53.8%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여성은 ‘보통’ 응답이 46.2%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렇듯 남성이 여성보다 현재 직업만족도가 더 높았다.

연령대를 살펴보면 만 60대 이상 연령층 제외한 모든 연령층이 현재 직업에 대해 ‘만족(만족+매우 만족)’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 50대의 ‘만족(만족+매우 만족)’ 비중이 가장 큰 대신, 만 60대 이상의 ‘만족(만족+매우 만족)’ 비중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불만족(불만족+매우 불만족)’ 응답은 만 30대의 비중이 높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시(군산시·익산시·남원시·김제시)는 현재 직업 만족도에 대해 ‘보통’ 정도를 더 많이 응답하였다. 시군 중에서 장수군이 16.7%로 현재 직업에 대해 가장 많이 불만족했다.

[표 3-38] 직업선택 시 고려사항(1순위)

	사 례 수	직업 선택 시 가장 중요 요인(1순위)										계	
		보수/ 급여	개인 적성	장래 성	복리 후생	사회 적 평판	사회 공헌	업무 량 /강도	전공	근무 지역	기타		
전체	(1000)	39.9	24.2	9.6	8.3	5.7	4.1	3.8	2.4	1.7	0.3	100.0	
성 별	남	(499)	39.5	24.8	9.8	7.0	5.8	5.0	3.8	2.6	1.2	0.4	100.0
	여	(501)	40.3	23.6	9.4	9.6	5.6	3.2	3.8	2.2	2.2	0.2	100.0
연 령 대	만 18~ 20대	(152)	38.8	19.7	8.6	11.8	5.9	4.6	7.2	0.7	2.6	0.0	100.0
	만 30대	(117)	44.4	19.7	6.8	7.7	5.1	1.7	9.4	2.6	1.7	0.9	100.0
	만 40대	(169)	45.6	25.4	7.7	5.9	3.6	1.8	3.0	3.6	3.0	0.6	100.0
	만 50대	(195)	49.2	22.1	8.2	4.1	4.6	3.6	3.6	2.6	1.5	0.5	100.0
	만 60대 이상	(367)	31.3	28.1	12.5	10.4	7.4	6.0	1.1	2.5	0.8	0.0	100.0
전 북 지 역	전주시 완산구	(187)	35.8	30.5	7.0	7.0	6.4	4.3	2.7	3.2	2.7	0.5	100.0
	전주시 덕진구	(172)	39.0	29.7	9.3	6.4	2.3	4.1	5.2	2.3	1.2	0.6	100.0
	군산시	(146)	41.8	12.3	15.8	15.1	5.5	2.1	4.1	1.4	2.1	0.0	100.0
	익산시	(154)	41.6	23.4	9.1	9.7	9.1	1.9	1.3	1.3	1.9	0.6	100.0
	정읍시	(59)	40.7	22.0	5.1	8.5	8.5	5.1	8.5	1.7	0.0	0.0	100.0
	남원시	(45)	44.4	24.4	8.9	6.7	8.9	4.4	2.2	0.0	0.0	0.0	100.0
	김제시	(47)	44.7	19.1	12.8	6.4	6.4	4.3	2.1	4.3	0.0	0.0	100.0
	완주군	(53)	34.0	18.9	17.0	5.7	1.9	9.4	9.4	3.8	0.0	0.0	100.0
	진안군	(15)	26.7	13.3	0.0	13.3	6.7	20.0	6.7	6.7	6.7	0.0	100.0
	무주군	(14)	35.7	28.6	7.1	0.0	0.0	14.3	7.1	0.0	7.1	0.0	100.0
	장수군	(12)	50.0	33.3	8.3	8.3	0.0	0.0	0.0	0.0	0.0	0.0	100.0
	임실군	(18)	22.2	38.9	0.0	11.1	5.6	5.6	0.0	11.1	5.6	0.0	100.0
	순창군	(18)	61.1	16.7	11.1	0.0	11.1	0.0	0.0	0.0	0.0	0.0	100.0
	고창군	(30)	43.3	33.3	3.3	0.0	3.3	3.3	3.3	6.7	3.3	0.0	100.0
부안군	(30)	46.7	23.3	10.0	10.0	3.3	3.3	3.3	0.0	0.0	0.0	100.0	

직업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은 '보수/급여'가 39.9%로 가장 높았으며, '개인 적성' 24.2%, '장래성' 9.6%, '복리후생' 8.3%, '사회적 평판' 5.7% 등의 순이었다. 성별로 보면 '보수/급여', '개인 적성'의 순위는 동일하나 그 이후 남성은 '장래성', '복리후생', '사회적 평판', '사회공헌' 등의 순위였다면 여성은 '복리후생', '장래성', '사회적 평판' 등의 순이었다.

연령대별로도 '보수/급여', '개인 적성' 순위는 동일하나 그 외 순위에 다소 차이가 존재했다. 만 18~20대는 '복리후생', '장래성', '업무량/강도' 등의 순이었다면 만 30대는 '업무량/강도', '복리후생', '장래성' 등의 순이었다. 만 40대는 '장래성', '복리후생', '사회적 평판' 등의 순으로 만 60대 이상과 3·4·5순위가 동일했다. 만 50대 이상은 '장래성', '사회적 평판', '복리후생'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임실군은 '개인적성'이 38.9%로 '보수/급여'보다 가장 비중이 높았다.

[표 3-39] 직업선택 시 고려사항(순위종합)

	사 례 수	직업 선택 시 가장 중요 요인(1+2순위)										계	
		보수/ 급여	개인 적성	장래 성	복리 후생	사회 적 평판	업무 량/ 강도	사회 공헌	전공	근무 지역	기타		
전체	(1000)	62.9	41.7	27.5	20.0	13.9	11.7	9.2	7.2	5.4	0.5	100.0	
성 별	남	(499)	62.7	41.7	29.7	18.0	14.6	11.0	10.8	7.4	3.4	100.0	
	여	(501)	63.1	41.7	25.3	22.0	13.2	12.4	7.6	7.0	7.4	100.0	
연 령 대	만 18-20대	(152)	60.5	30.9	27.6	22.4	23.0	16.4	7.9	6.6	4.6	100.0	
	만 30대	(117)	65.0	37.6	17.1	23.9	11.1	24.8	5.1	7.7	6.0	100.0	
	만 40대	(169)	67.5	42.0	23.7	19.5	11.8	11.8	6.5	10.1	6.5	100.0	
	만 50대	(195)	68.7	45.1	23.6	15.4	8.7	12.8	11.8	7.2	5.6	100.0	
	만 60대 이상	(367)	58.0	45.5	34.6	20.4	14.7	4.9	10.9	6.0	4.9	100.0	
전 북 지 역	전주시 완산구	(187)	57.8	52.9	24.6	15.5	13.9	10.2	10.2	8.6	5.9	100.0	
	전주시 덕진구	(172)	61.6	47.1	22.1	16.3	12.8	16.3	11.0	7.6	4.1	100.0	
	군산시	(146)	63.0	26.7	36.3	29.5	14.4	13.7	4.1	4.8	7.5	100.0	
	익산시	(154)	69.5	34.4	29.2	24.7	14.3	10.4	5.2	4.5	7.1	100.0	
	정읍시	(59)	61.0	37.3	22.0	22.0	15.3	18.6	11.9	10.2	0.0	100.0	
	남원시	(45)	68.9	46.7	22.2	17.8	17.8	13.3	6.7	2.2	4.4	100.0	
	김제시	(47)	63.8	44.7	27.7	19.1	21.3	4.3	8.5	8.5	2.1	100.0	
	완주군	(53)	62.3	32.1	34.0	15.1	7.5	15.1	15.1	13.2	5.7	100.0	
	진안군	(15)	46.7	26.7	6.7	33.3	6.7	13.3	46.7	6.7	13.3	0.0	100.0
	무주군	(14)	50.0	42.9	35.7	7.1	14.3	7.1	21.4	14.3	7.1	100.0	
	장수군	(12)	58.3	50.0	41.7	16.7	8.3	0.0	16.7	0.0	8.3	100.0	
	임실군	(18)	50.0	61.1	22.2	27.8	11.1	0.0	11.1	11.1	5.6	100.0	
	순창군	(18)	77.8	44.4	38.9	5.6	22.2	0.0	5.6	0.0	5.6	100.0	
고창군	(30)	70.0	53.3	20.0	10.0	16.7	10.0	3.3	10.0	6.7	100.0		
부안군	(30)	70.0	43.3	36.7	23.3	6.7	3.3	6.7	10.0	0.0	100.0		

직업 선택 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요인(1+2)순위로 보수/급여 62.9%, 개인적성 41.7%, 장래성 27.5% 등의 순이었다. 성별로 보면, 1~5순위(보수/급여, 개인적성, 장래성, 복리후생, 사회적 평판)의 는 동일했다. 주요 순위 제외 여성과 남성의 응답은 근무지역에서 다소 크게 나타났다. 보수/급여, 개인적성 제외 연령대별로도 다소 차이가 있었다.

만 30대는 다른 연령대와 다르게 업무량/강도를 3순위로 선택했다. 지역별로도 군산시와 완주군은 보수/급여 다음에 장래성을 선택했고, 임실군은 개인적성이 보수/급여보다 응답비중이 더 높았다.

[표 3-40] 현재 재테크 수단

구분	사 례 수	현재 재테크 수단(복수응답)											계	
		예 적 금	주 식	부 동 산	없 음	편 드	금 은 등 귀 금 속	코 인	채 권	외 환	골 동 품/ 미 술품	기 타		
전체	(100)	71.1	37.8	30.1	12.8	11.3	8.8	7.0	3.3	1.8	1.6	0.6	100.0	
성 별	남	(49)	65.1	41.7	33.1	13.8	11.8	7.2	9.2	4.4	1.8	1.6	0.6	100.0
	여	(50)	77.0	33.9	27.1	11.8	10.8	10.4	4.8	2.2	1.8	1.6	0.6	100.0
연 령 대	만 18 ~20대	(15)	67.8	40.1	5.9	20.4	19.1	2.6	13.8	2.6	2.0	0.0	0.0	100.0
	만 30대	(11)	72.6	51.3	17.9	7.7	9.4	5.1	7.7	5.1	3.4	2.6	0.0	100.0
	만 40대	(16)	66.9	47.3	36.7	11.2	16.0	14.2	6.5	4.1	2.4	3.6	0.0	100.0
	만 50대	(19)	66.7	39.0	42.1	13.8	9.2	7.7	7.2	2.6	2.1	0.5	2.1	100.0
	만 60대 이상	(36)	76.3	27.5	34.6	11.4	7.6	10.6	4.1	3.0	0.8	1.6	0.5	100.0
전 북 지 역	전주시 완산구	(18)	71.1	40.1	34.2	12.3	12.8	7.5	6.4	3.2	2.1	1.6	0.5	100.0
	전주시 덕진구	(17)	66.3	45.3	27.9	12.8	11.6	8.1	5.2	5.8	2.3	2.3	0.0	100.0
	군산시	(14)	75.3	43.2	30.8	6.8	12.3	13.7	10.3	4.1	3.4	2.7	0.7	100.0
	익산시	(15)	77.9	38.3	28.6	10.4	13.0	11.7	8.4	3.9	1.3	0.6	0.0	100.0
	정읍시	(5)	69.5	42.4	32.2	15.3	8.5	3.4	3.4	1.7	5.1	0.0	0.0	100.0
	남원시	(4)	82.2	33.3	40.0	11.1	4.4	11.1	4.4	0.0	0.0	2.2	0.0	100.0
	김제시	(4)	57.4	23.4	21.3	17.0	8.5	8.5	14.9	4.3	0.0	4.3	0.0	100.0
	완주군	(5)	67.9	30.2	28.3	13.2	11.3	1.9	7.5	1.9	0.0	0.0	3.8	100.0
	진안군	(1)	80.0	26.7	40.0	13.3	20.0	6.7	6.7	0.0	0.0	0.0	0.0	100.0
	무주군	(1)	64.3	28.6	42.9	28.6	7.1	28.6	0.0	0.0	0.0	0.0	0.0	100.0
	장수군	(1)	83.3	16.7	25.0	0.0	0.0	0.0	0.0	0.0	0.0	0.0	8.3	100.0
	임실군	(1)	55.6	27.8	27.8	27.8	22.2	0.0	0.0	0.0	0.0	0.0	5.6	100.0
	순창군	(1)	61.1	33.3	22.2	27.8	11.1	5.6	0.0	0.0	0.0	5.6	0.0	100.0
	고창군	(3)	66.7	23.3	13.3	20.0	3.3	13.3	10.0	3.3	0.0	0.0	0.0	100.0
부안군	(3)	70.0	26.7	33.3	20.0	10.0	0.0	6.7	0.0	0.0	0.0	0.0	100.0	

현재 재테크 수단으로 예적금이 71.1%로 가장 높았고 주식 37.8%, 부동산 30.1%, 없음 12.8%, 펀드 등의 순이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이 주식, 펀드, 부동산, 코인, 채권을 재테크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여성은 남성보다 예적금, 금은 등 귀금속과 같이 당장 현금화가 가능한 것을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연령대에서 공통 1순위인 예적금 제외, 만 18~20대·만 30대·만 40대는 주식을, 만 50대와 만 60대 이상은 부동산을 재테크 수단 2순위로 활용하고 있었다. 특히 만 18~20대는 다른 연령대보다 코인을 재테크 수단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었다.

지역별로도 남원시·진안군·무주군·장수군·부안군이 재테크 수단 2순위로 부동산 응답이 많았으며, 무주군일 경우 다른 지역보다 금은 등 귀금속을 재테크 수단으로 상대적으로 더 많이 활용하고 있었다.

[표 3-41] 생활비 중 가장 부담스러운 항목(1순위)

구분	사 례 수	생활비 중 가장 부담 항목(1순위)										
		식 생활 비 (주식, 부식, 외식 등)	주거비 (전 월세 비, 관리 비 등)	교육 비	연금 상환	공공 서비 스 (가스, 전기, 수도 등)	경 조사 비	개인 보험, 연금	의료 비	세금	교통, 자동 차 유지 비	
전체	(1000)	34.8	14.6	10.9	6.2	4.3	4.2	4.1	3.5	3.2	2.6	
성 별	남	(499)	30.5	16.6	11.6	6.6	3.4	5.0	3.2	3.6	3.4	2.8
	여	(501)	39.1	12.6	10.2	5.8	5.2	3.4	5.0	3.4	3.0	2.4
연 령 대	만 18 ~20대	(152)	32.9	24.3	2.6	0.0	5.9	1.3	0.0	0.7	3.3	6.6
	만 30대	(117)	29.9	26.5	11.1	7.7	2.6	1.7	0.0	5.1	2.6	0.9
	만 40대	(169)	27.8	10.1	23.7	10.7	4.1	1.2	4.7	1.2	4.7	2.4
	만 50대	(195)	22.6	8.2	20.0	10.8	6.2	4.6	7.7	4.6	1.0	1.5
	만 60대 이상	(367)	46.9	12.3	3.5	3.8	3.3	7.4	4.9	4.6	3.8	2.2
전 북 지 역	전주시 완산구	(187)	28.3	16.0	17.6	5.3	5.9	3.7	3.7	3.7	3.2	2.7
	전주시 덕진구	(172)	26.7	16.9	12.8	11.6	5.2	5.8	2.9	1.7	4.1	0.0
	군산시	(146)	33.6	13.7	8.2	5.5	2.7	1.4	4.8	5.5	4.8	2.7
	익산시	(154)	44.2	11.0	5.8	3.9	5.2	5.2	4.5	3.9	3.9	4.5
	정읍시	(59)	37.3	16.9	8.5	6.8	1.7	5.1	3.4	1.7	1.7	0.0
	남원시	(45)	37.8	15.6	8.9	0.0	0.0	6.7	6.7	8.9	2.2	2.2
	김제시	(47)	29.8	23.4	6.4	6.4	4.3	8.5	6.4	4.3	2.1	4.3
	완주군	(53)	47.2	13.2	13.2	1.9	5.7	1.9	1.9	1.9	1.9	3.8
	진안군	(15)	33.3	6.7	0.0	6.7	13.3	6.7	6.7	6.7	0.0	6.7
	무주군	(14)	42.9	7.1	28.6	0.0	0.0	0.0	14.3	0.0	0.0	0.0
	장수군	(12)	25.0	16.7	8.3	8.3	8.3	0.0	0.0	0.0	0.0	16.7
	임실군	(18)	33.3	16.7	11.1	11.1	0.0	5.6	0.0	5.6	0.0	11.1
	순창군	(18)	38.9	16.7	16.7	5.6	0.0	5.6	0.0	0.0	11.1	0.0
고창군	(30)	40.0	6.7	3.3	13.3	3.3	3.3	6.7	0.0	0.0	0.0	
부안군	(30)	50.0	10.0	10.0	3.3	3.3	0.0	3.3	3.3	0.0	0.0	

[표 3-42] 생활비 중 가장 부담스러운 항목(1순위)(표 계속)

구분	생활비 중 가장 부담 항목(1순위)											계	
	여가, 여행비	저축, 투자금	의류 잡화비	내구재 구입비 (자동차, 가전 등)	정보통신비	노인, 돌봄, 영유아 보육비	국민연금, 사회보험	용돈	보건 위생비	유희비	기타		
전체	2.5	2.0	1.4	1.4	1.3	0.8	0.8	0.7	0.4	0.2	0.1	100.0	
성별	남	2.8	2.0	1.6	1.6	2.0	1.0	0.8	0.8	0.6	0.0	0.0	100.0
	여	2.2	2.0	1.2	1.2	0.6	0.6	0.8	0.6	0.2	0.4	0.2	100.0
연령대	만 18~20대	2.0	3.9	6.6	0.7	5.3	0.0	0.7	3.3	0.0	0.0	0.0	100.0
	만 30대	0.9	1.7	0.9	2.6	0.9	1.7	1.7	0.9	0.0	0.9	0.0	100.0
	만 40대	2.4	1.2	0.0	2.4	1.2	0.6	1.2	0.0	0.0	0.6	0.0	100.0
	만 50대	2.6	3.1	0.0	2.6	1.0	1.0	1.0	0.0	1.0	0.0	0.5	100.0
	만 60대 이상	3.3	1.1	0.8	0.3	0.0	0.8	0.3	0.3	0.5	0.0	0.0	100.0
전북지역	전주시 완산구	2.7	2.1	1.6	0.5	0.5	1.1	0.5	0.5	0.0	0.0	0.0	100.0
	전주시 덕진구	2.9	3.5	1.7	2.3	0.6	0.6	0.0	0.0	0.0	0.0	0.6	100.0
	군산시	2.7	4.8	1.4	2.1	3.4	0.0	0.7	2.1	0.0	0.0	0.0	100.0
	익산시	1.3	0.0	0.6	0.6	1.3	0.0	2.6	1.3	0.0	0.0	0.0	100.0
	정읍시	5.1	1.7	0.0	1.7	1.7	3.4	1.7	0.0	1.7	0.0	0.0	100.0
	남원시	2.2	0.0	0.0	0.0	2.2	0.0	0.0	0.0	2.2	4.4	0.0	100.0
	김제시	2.1	0.0	0.0	2.1	0.0	0.0	0.0	0.0	0.0	0.0	0.0	100.0
	완주군	1.9	0.0	0.0	1.9	0.0	0.0	0.0	1.9	1.9	0.0	0.0	100.0
	진안군	0.0	6.7	0.0	0.0	0.0	6.7	0.0	0.0	0.0	0.0	0.0	100.0
	무주군	0.0	0.0	0.0	0.0	0.0	0.0	7.1	0.0	0.0	0.0	0.0	100.0
	장수군	0.0	0.0	0.0	0.0	8.3	8.3	0.0	0.0	0.0	0.0	0.0	100.0
	임실군	5.6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순창군	0.0	0.0	0.0	0.0	0.0	5.6	0.0	0.0	0.0	0.0	0.0	100.0
	고창군	3.3	3.3	6.7	6.7	0.0	0.0	0.0	0.0	3.3	0.0	0.0	100.0
	부안군	3.3	0.0	10.0	0.0	3.3	0.0	0.0	0.0	0.0	0.0	0.0	100.0

생활비 중 가장 부담을 느끼는 항목은 ‘식생활비’ 34.8%이었다. 그 뒤로 ‘주거비’ 14.6%, ‘교육비’ 10.9% 등의 순이었다. 성별로 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1·2·3순위가 식생활비, 주거비, 교육비였으며, 그 외 항목에서 다소 순위 차이가 존재했다. 여성이 남성보다 ‘식생활비’, ‘공공서비스’, ‘개인보험·연금’에 더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연령대일 경우 공통 1순위인 ‘식생활비’를 제외하고 만 18~20대, 만 30대, 만 60대 이상은 다른 연령대보다 ‘주거비’ 부담을 상대적으로 더 높게 느끼고 있었고, 만 40대와 만 50대는 다른 연령대보다 ‘교육비’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전라북도 지역에서 김제시가 주거비 관련 23.4% 정도 응답하여 다른 지역보다 더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무주군은 교육비 28.6%, 진안군은 공공서비스 13.3%로 응답해 다른 지역보다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수군일 경우 교통·자동차 유지비가 16.7%로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부안군일 경우 의류잡화비가 10.0%로 다른 지역보다 더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3] 생활비 중 가장 부담스러운 항목(순위종합)

구분	사례 수	생활비 중 가장 부담 항목(1+2순위)										
		식 생활비 (주식, 부식, 외식 등)	주비 (전월세비, 관리비 등)	교육비	원리금상환	의료비	공공서비스 (가스, 전기, 수도 등)	교통, 자동차 유지비	경조사비	개인보험, 연금	세금	여가, 여행비
전체	(1000)	49.3	29.4	17.1	12.7	11.2	10.7	9.6	8.7	8.5	7.8	5.8
성별	남 (499)	44.7	30.9	17.6	13.4	12.6	8.4	10.2	8.4	6.6	7.2	7.0
	여 (501)	53.9	27.9	16.6	12.0	9.8	13.0	9.0	9.0	10.4	8.4	4.6
연령대	만 18~20대 (152)	48.7	42.1	9.9	2.0	2.6	8.6	11.8	2.0	2.6	6.6	10.5
	만 30대 (117)	53.0	45.3	17.9	17.1	8.5	8.5	6.0	4.3	1.7	6.0	2.6
	만 40대 (169)	42.0	26.0	40.2	17.2	3.6	13.0	6.5	4.1	11.2	8.9	5.9
	만 50대 (195)	35.4	21.0	24.6	19.5	13.3	11.8	6.7	10.3	13.8	7.2	5.1
	만 60대 이상 (367)	59.1	25.1	5.2	10.1	18.0	10.6	12.8	14.2	9.0	8.7	5.2
전북지역	전주시 완산구 (187)	46.0	31.6	25.7	12.3	8.6	13.4	9.6	6.4	9.6	8.0	4.3
	전주시 덕진구 (172)	39.5	34.9	19.2	20.3	7.0	9.3	5.8	11.6	6.4	9.9	9.3
	군산시 (146)	47.3	22.6	14.4	12.3	12.3	8.2	9.6	4.8	8.2	9.6	6.8
	익산시 (154)	57.1	29.9	14.9	7.1	14.3	10.4	12.3	9.1	7.8	6.5	3.9
	정읍시 (59)	49.2	30.5	13.6	16.9	6.8	6.8	8.5	11.9	8.5	5.1	8.5
	남원시 (45)	53.3	31.1	11.1	6.7	20.0	8.9	8.9	13.3	13.3	2.2	2.2
	김제시 (47)	42.6	31.9	8.5	8.5	17.0	12.8	17.0	14.9	6.4	17.0	6.4
	완주군 (53)	54.7	32.1	17.0	7.5	11.3	17.0	9.4	5.7	3.8	9.4	3.8
	진안군 (15)	66.7	20.0	0.0	20.0	13.3	26.7	13.3	13.3	6.7	0.0	0.0
	무주군 (14)	50.0	28.6	28.6	7.1	14.3	0.0	7.1	7.1	14.3	0.0	7.1
	장수군 (12)	41.7	25.0	8.3	8.3	16.7	16.7	25.0	0.0	16.7	8.3	0.0
	임실군 (18)	55.6	27.8	16.7	11.1	11.1	16.7	11.1	5.6	11.1	0.0	5.6
	순창군 (18)	55.6	27.8	16.7	5.6	11.1	11.1	5.6	16.7	11.1	11.1	0.0
고창군 (30)	56.7	13.3	10.0	26.7	13.3	6.7	3.3	10.0	10.0	0.0	10.0	
부안군 (30)	70.0	26.7	20.0	10.0	10.0	6.7	10.0	3.3	13.3	6.7	6.7	

[표 3-44] 생활비 중 가장 부담스러운 항목(순위종합)(표 계속).

구분	사례 수	생활비 중 가장 부담 항목(1+2순위)										계
		저축, 투자금	내재구입비 (자동차, 가전 등)	정보통신비	의류잡화비	국민연금, 사회보험	노인, 돌봄, 영유아 보육비	용돈	유흥비	보건위생비	기타	
전체	(1000)	5.7	5.3	4.3	4.2	3.6	2.0	1.6	1.5	0.8	0.2	1000
성별	남 (499)	7.0	6.6	5.4	3.4	3.2	2.0	2.2	1.8	1.2	0.0	1000
	여 (501)	4.4	4.0	3.2	5.0	4.0	2.0	1.0	1.2	0.4	0.4	1000
연령대	만 18~20대 (152)	5.9	3.3	17.1	14.5	2.6	0.7	5.9	2.6	0.0	0.0	1000
	만 30대 (117)	6.0	6.8	0.9	2.6	4.3	4.3	0.9	2.6	0.9	0.0	1000
	만 40대 (169)	2.4	5.9	2.4	1.2	2.4	3.0	0.6	3.0	0.0	0.6	1000
	만 50대 (195)	7.2	7.2	2.1	1.0	7.2	2.6	1.0	0.5	2.1	0.5	1000
	만 60대 이상 (367)	6.3	4.4	2.2	3.5	2.5	1.1	0.8	0.5	0.8	0.0	1000
전북지역	전주시 완산구 (187)	5.3	3.2	2.7	4.3	3.7	2.7	1.1	1.1	0.5	0.0	1000
	전주시 덕진구 (172)	7.6	5.2	0.6	2.9	5.2	1.7	0.6	2.3	0.0	0.6	1000
	군산시 (146)	8.9	6.8	8.2	6.2	5.5	2.1	2.7	1.4	1.4	0.7	1000
	익산시 (154)	3.9	3.9	5.2	3.2	4.5	0.0	3.9	1.3	0.6	0.0	1000
	정읍시 (59)	3.4	5.1	8.5	3.4	5.1	3.4	1.7	1.7	1.7	0.0	1000
	남원시 (45)	4.4	6.7	4.4	2.2	0.0	0.0	2.2	6.7	2.2	0.0	1000
	김제시 (47)	4.3	6.4	2.1	4.3	0.0	0.0	0.0	0.0	0.0	0.0	1000
	완주군 (53)	5.7	5.7	3.8	3.8	1.9	3.8	1.9	0.0	1.9	0.0	1000
	진안군 (15)	6.7	6.7	0.0	0.0	0.0	6.7	0.0	0.0	0.0	0.0	1000
	무주군 (14)	0.0	21.4	0.0	0.0	7.1	7.1	0.0	0.0	0.0	0.0	1000
	장수군 (12)	0.0	8.3	16.7	0.0	0.0	8.3	0.0	0.0	0.0	0.0	1000
	임실군 (18)	5.6	5.6	5.6	0.0	0.0	5.6	0.0	5.6	0.0	0.0	1000
	순창군 (18)	11.1	5.6	0.0	5.6	0.0	5.6	0.0	0.0	0.0	0.0	1000
고창군 (30)	6.7	10.0	6.7	13.3	0.0	0.0	0.0	0.0	3.3	0.0	1000	
부안군 (30)	0.0	0.0	6.7	10.0	0.0	0.0	0.0	0.0	0.0	0.0	1000	

생활비 중 가장 부담을 느끼는 항목 1+2순위를 조사한 결과 식생활비 49.3%, 주거비 29.4%, 교육비 17.1%, 원리금 상환 12.7% 등의 순이었다. 대체적으로 개인생활을 영위 하는데 필수적인 항목(ex. 식생활비, 주거비 등)과 자녀교육이 항목 중에서 상위권(1~5 위)에 위치하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식생활비가 44.7%로 가장 높았고, 주거비 30.9%, 교육비 17.6%, 원리금 상환 13.4% 등의 순이었다. 여성의 경우는 식생활비 53.9%, 주거비 27.9%, 교육비 16.6%, 공공서비스 13.0% 등의 순이었다. 여성은 남성보다 식생활비, 공공서비스, 개인보험·연금, 세금, 의류잡화비, 국민연금·사회보험에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도 차이가 나타났는데 1순위 식생활비 제외 만 18~20대, 만 30대, 만 60대 이상은 '식생활비' 다음으로 주거비에 부담을 느꼈다면 만 40대와 만 50대는 '교육비'에 부담을 느꼈다.

전라북도 지역에서 진안군이 다른 지역보다 '공공서비스'에 대해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김제시일 경우 '세금'을 다른 지역보다 크게 부담을 느꼈으며, 무주군일 경우 '내구재 구입비'에 대해 크게 부담을 느꼈다. 마지막으로 장수군은 '정보통신비'에 대해 다른 지역보다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도민 및 국민으로서의 정체성과 신뢰

전라북도민이 갖고 있는 장점으로 '근면'이 22.8%로 가장 높았고 '여유' 12.9%, '단결심' 9.6%, '인정' 9.3% 등의 순이었다. 남성은 '근면' 응답이 22.2%로 가장 높았으며, 여유 12.8%, 인정 8.2%, 예의 7.8% 등의 순이었다. 여성은 근면 23.4%, 여유 13.0%, 단결심 12.4%, 인정 10.4% 등의 순이었다. 연령대에서 공통 1순위 근면을 제외하고, 만 18~20대·만 30대·만 40대는 '여유'를 2순위로 뽑았으나 만 50대는 '인정'을 14.4%, 만 60대는 '단결심'을 15.0%로 2순위로 선택했다.

전라북도 지역에서 전주시 덕진구가 다른 시군에 비해 '여유'를, 임실군은 '검소'와 '포용력'을, 순창군은 '의리'를, 고창군은 '창의성'을 다른 시군에 비해 전라북도민의 큰 장점으로 생각했다.

[표 3-45] 전라북도 도민의 가장 큰 장점에 대한 생각(1순위)

구분	사 례 수	전북도민 장점(1순위)															계
		근 면	여 유	단 결 심	인 정	검 소	예 의	의 리	인 내 심	포 용 력	창 의 성	책 임 감	합 리 성	기 타	적 극 성	화 목	
전체	(1000)	228	129	9.6	9.3	7.2	6.3	5.8	5.3	4.4	4.2	4.0	2.3	2.2	2.0	1.7	1000
성 별	남 (499)	222	128	6.8	8.2	7.0	7.8	6.8	6.2	4.8	5.2	4.0	2.4	2.0	1.2	2.4	1000
	여 (501)	234	130	12.4	10.4	7.4	4.8	4.8	4.4	4.0	3.2	4.0	2.2	2.4	2.8	1.0	1000
연 령 대	만 18~ 20대 (152)	19.1	17.1	5.9	5.3	8.6	5.9	6.6	7.9	3.3	8.6	3.9	1.3	0.7	2.0	3.9	1000
	만 30대 (117)	20.5	14.5	6.0	10.3	10.3	8.5	3.4	2.6	6.0	2.6	4.3	0.0	5.1	4.3	1.7	1000
	만 40대 (169)	21.3	13.6	9.5	10.7	7.7	5.3	6.5	8.3	2.4	2.4	1.8	2.4	4.1	1.8	2.4	1000
	만 50대 (195)	20.5	12.3	4.6	14.4	7.7	8.7	5.1	6.2	5.1	2.6	4.1	3.6	3.1	2.1	0.0	1000
	만 60대 이상 (367)	27.0	10.6	15.0	7.4	5.2	4.9	6.3	3.3	4.9	4.6	4.9	2.7	0.5	1.4	1.4	1000
전 북 지 역	전주시 완산구 (187)	20.3	13.9	2.7	14.4	5.3	10.7	3.2	6.4	4.8	4.3	3.2	2.1	4.3	2.7	1.6	1000
	전주시 덕진구 (172)	23.3	20.3	5.8	8.7	7.6	9.9	4.7	4.1	6.4	1.7	2.9	0.6	1.2	0.6	2.3	1000
	군산시 (146)	16.4	13.0	13.0	6.2	11.0	3.4	10.3	4.1	3.4	6.8	3.4	2.1	1.4	4.1	1.4	1000
	익산시 (154)	27.9	9.7	12.3	7.8	5.8	1.9	6.5	5.8	2.6	5.8	7.1	1.3	2.6	1.9	0.6	1000
	정읍시 (59)	22.0	10.2	10.2	10.2	8.5	1.7	1.7	6.8	8.5	5.1	1.7	5.1	0.0	3.4	5.1	1000
	남원시 (45)	15.6	13.3	11.1	13.3	11.1	11.1	2.2	2.2	4.4	0.0	8.9	2.2	2.2	0.0	2.2	1000
	김제시 (47)	31.9	12.8	4.3	10.6	4.3	2.1	4.3	8.5	6.4	0.0	4.3	6.4	0.0	4.3	0.0	1000
	완주군 (53)	24.5	11.3	13.2	9.4	7.5	3.8	3.8	11.3	3.8	0.0	3.8	1.9	3.8	0.0	1.9	1000
	진안군 (15)	20.0	6.7	6.7	6.7	6.7	13.3	6.7	13.3	0.0	0.0	6.7	6.7	0.0	0.0	6.7	1000
	무주군 (14)	21.4	7.1	21.4	0.0	7.1	7.1	14.3	0.0	0.0	7.1	0.0	7.1	7.1	0.0	0.0	1000
	장수군 (12)	25.0	0.0	8.3	16.7	8.3	0.0	0.0	0.0	0.0	8.3	8.3	8.3	16.7	0.0	0.0	1000
	임실군 (18)	11.1	5.6	16.7	5.6	22.2	0.0	16.7	0.0	16.7	5.6	0.0	0.0	0.0	0.0	0.0	1000
	순창군 (18)	27.8	5.6	22.2	0.0	5.6	11.1	22.2	0.0	0.0	0.0	0.0	0.0	0.0	0.0	5.6	1000
	고창군 (30)	33.3	6.7	13.3	6.7	0.0	10.0	0.0	3.3	0.0	13.3	6.7	3.3	0.0	3.3	0.0	1000
	부안군 (30)	30.0	13.3	23.3	6.7	0.0	3.3	10.0	3.3	0.0	6.7	0.0	3.3	0.0	0.0	0.0	1000

[표 3-46] 전라북도 도민의 가장 큰 장점에 대한 생각(순위종합)

구분	사 례 수	전북도민 장점(1+2순위)															계	
		근 면	여 유	검 소	인 정	단 결 심	예 의	의 리	인 내 심	포 용 력	책 임 감	창 의 성	합 리 성	적 극 성	화 목	기 타		
전체	(100)	32.1	21.6	19.9	19.5	16.8	15.1	13.2	12.3	10.8	10.2	8.8	7.0	6.3	3.8	2.6	100	
성 별	남	(499)	30.1	22.4	19.2	19.8	13.0	17.2	13.6	12.4	12.8	8.8	10.4	7.0	5.6	5.0	2.4	100
	여	(501)	34.1	20.8	20.6	19.2	20.6	13.0	12.8	12.2	8.8	11.6	7.2	7.0	7.0	2.6	2.8	100
연 령 대	만 18~ 20대	(152)	22.4	26.3	19.1	16.4	14.5	11.2	17.1	18.4	7.2	7.2	17.1	9.2	7.2	5.9	0.7	100
	만 30대	(117)	31.6	26.5	28.2	20.5	11.1	18.8	7.7	7.7	11.1	7.7	6.0	3.4	8.5	6.0	5.1	100
	만 40대	(169)	35.5	16.6	18.3	21.3	18.3	16.0	10.1	13.0	12.4	8.9	4.1	9.5	6.5	4.1	5.3	100
	만 50대	(195)	32.8	22.1	20.0	26.7	8.2	24.6	11.8	11.8	10.3	9.2	4.6	8.2	4.1	2.1	3.6	100
	만 60대 이상	(367)	34.3	20.2	18.3	15.8	23.4	10.1	15.5	11.2	11.7	13.4	10.6	5.4	6.3	3.0	0.8	100
전 북 도 지 역	전주시 완산구	(187)	30.5	20.9	15.5	28.3	9.1	22.5	11.2	12.3	11.8	5.9	7.0	6.4	5.9	8.6	4.3	100
	전주시 덕진구	(172)	34.9	26.7	25.6	18.0	14.5	20.3	7.6	12.2	14.5	7.6	4.7	4.7	3.5	2.9	2.3	100
	군산시	(146)	24.7	22.6	22.6	18.5	21.9	9.6	19.9	9.6	6.8	11.6	11.6	6.2	11.0	2.1	1.4	100
	익산시	(154)	39.6	18.2	19.5	14.9	18.2	10.4	13.6	12.3	7.8	13.0	13.0	5.2	9.1	1.9	3.2	100
	정읍시	(59)	28.8	15.3	18.6	18.6	16.9	10.2	10.2	10.2	15.3	11.9	15.3	16.9	6.8	5.1	0.0	100
	남원시	(45)	26.7	24.4	17.8	24.4	13.3	17.8	13.3	11.1	15.6	15.6	4.4	11.1	0.0	2.2	2.2	100
	김제시	(47)	38.3	23.4	21.3	21.3	17.0	14.9	6.4	12.8	6.4	10.6	4.3	12.8	10.6	0.0	0.0	100
	완주군	(53)	34.0	22.6	22.6	20.8	17.0	9.4	15.1	20.8	13.2	9.4	1.9	1.9	1.9	5.7	3.8	100
	진안군	(15)	20.0	13.3	20.0	20.0	13.3	26.7	20.0	20.0	6.7	6.7	6.7	6.7	0.0	13.3	6.7	100
	무주군	(14)	42.9	21.4	7.1	7.1	21.4	7.1	28.6	0.0	0.0	14.3	14.3	21.4	0.0	7.1	7.1	100
	장수군	(12)	25.0	25.0	16.7	16.7	33.3	16.7	0.0	8.3	16.7	8.3	8.3	8.3	0.0	0.0	16.7	100
	임실군	(18)	22.2	16.7	33.3	11.1	22.2	0.0	22.2	11.1	22.2	11.1	11.1	11.1	5.6	0.0	0.0	100
	순창군	(18)	33.3	11.1	11.1	11.1	27.8	16.7	22.2	22.2	0.0	16.7	0.0	11.1	11.1	5.6	0.0	100
	고창군	(30)	36.7	20.0	16.7	13.3	23.3	13.3	6.7	13.3	10.0	16.7	16.7	3.3	10.0	0.0	0.0	100
부안군	(30)	30.0	26.7	10.0	13.3	26.7	13.3	26.7	13.3	10.0	10.0	16.7	3.3	0.0	0.0	0.0	100	

전라북도민의 장점 1+2순위에서 ‘근면’이 32.1%로 가장 높았으며, ‘여유’ 21.6%, ‘검소’ 19.9%, ‘인정’ 19.5% 등의 순이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의 경우 ‘근면’이 30.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여유’ 22.4%, ‘인정’ 19.8% 등의 순이었다. 여성의 경우 ‘근면’이 34.1%, ‘여유’ 20.8%, 단결심과 검소는 20.6%, ‘인정’ 19.2% 등의 순이었다. ‘단결심’ 부분에서 응답차이가 다소 났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단결심’을 전라북도 도민의 큰 장점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연령대에서 만 18~20대는 ‘여유’를 26.3%, ‘근면’을 22.4%, ‘검소’를 19.1% 정도 응답했다. 만 30대는 ‘근면’, ‘검소’, ‘여유’를, 만 40대는 ‘근면’, ‘인정’, ‘검소’를, 만 50대는 ‘근면’, ‘인정’, ‘예의’를, 만 60대는 ‘근면’, ‘단결심’, ‘여유’를 전라북도민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차례대로 순위를 매겼다.

전라북도 지역에서 다른 시군과 다르게 진안군은 ‘예의’를 26.7%로 전라북도민의 가장 큰 장점 1순위로 선택했다. 임실군은 ‘검소’를 33.3%로 전라북도민의 가장 큰 장점 1순위로 생각했으며, 장수군은 ‘단결심’을 33.3%로 전라북도민의 가장 큰 장점 1순위로 선택했다. 나머지 시군은 근면을 1순위를 선택했다.

[표 3-47] 전라북도 도민의 가장 큰 단점에 대한 생각(1순위)

구분	사 례 수	전북도민 단점(1순위)														계		
		단 결 심 부 족	소 극 적	창 의 성 부 족	조 급 성	포 용 력 부 족	시 기, 질 투	비 합 리 성	계 으 름	인 내 심 부 족	무 책 임	의 리 없 음	인 정 없 음	사 치	예 의 없 음		기 타	
전체	(1000)	129	125	11.7	8.7	8.6	8.5	7.6	5.9	5.9	5.2	3.7	3.6	3.3	1.4	0.5	1000	
성 별	남 (499)	140	114	120	9.4	7.6	8.8	6.4	6.0	5.8	4.8	4.8	3.6	3.6	1.4	0.2	1000	
	여 (501)	118	136	114	8.0	9.6	8.2	8.8	5.8	6.0	5.6	2.6	3.6	3.0	1.4	0.8	1000	
연 령 대	만 18 ~20대 (152)	7.9	125	105	13.8	7.2	9.2	5.3	8.6	3.3	6.6	5.3	5.9	2.6	0.0	1.3	1000	
	만 30대 (117)	13.7	188	11.1	6.0	10.3	6.8	7.7	8.5	5.1	4.3	2.6	1.7	1.7	1.7	0.0	1000	
	만 40대 (169)	10.1	148	17.2	3.0	13.6	5.9	8.9	7.1	5.3	1.2	5.9	3.0	1.2	1.8	1.2	1000	
	만 50대 (195)	17.9	108	15.9	7.7	8.2	8.7	8.7	6.2	3.6	5.6	2.6	0.5	2.6	1.0	0.0	1000	
	만 60대 이상 (367)	13.4	104	7.6	10.6	6.5	9.8	7.4	3.3	8.7	6.5	3.0	5.2	5.4	1.9	0.3	1000	
전 라 북 도 지 역	전주시 완산구 (187)	150	144	9.1	7.0	8.0	8.0	10.2	9.1	6.4	3.7	4.3	2.1	1.6	0.5	0.5	1000	
	전주시 덕진구 (172)	163	169	13.4	8.1	9.3	6.4	5.2	6.4	2.3	5.2	4.7	2.3	1.7	0.6	1.2	1000	
	군산시 (146)	6.2	8.9	10.3	12.3	10.3	6.2	10.3	6.2	8.2	6.2	3.4	4.8	5.5	1.4	0.0	1000	
	익산시 (154)	9.7	11.7	12.3	9.1	9.1	7.1	7.8	3.9	6.5	3.9	2.6	6.5	7.1	2.6	0.0	1000	
	정읍시 (59)	13.6	13.6	10.2	10.2	8.5	5.1	5.1	3.4	8.5	8.5	6.8	3.4	1.7	1.7	0.0	1000	
	남원시 (45)	13.3	8.9	13.3	6.7	6.7	11.1	2.2	11.1	4.4	11.1	0.0	6.7	4.4	0.0	0.0	1000	
	김제시 (47)	14.9	12.8	19.1	4.3	2.1	19.1	6.4	6.4	6.4	0.0	2.1	0.0	4.3	2.1	0.0	1000	
	완주군 (53)	13.2	13.2	13.2	11.3	17.0	7.5	3.8	1.9	5.7	5.7	0.0	7.5	0.0	0.0	0.0	1000	
	진안군 (15)	20.0	0.0	13.3	0.0	0.0	13.3	13.3	13.3	0.0	6.7	6.7	0.0	0.0	13.3	0.0	1000	
	무주군 (14)	14.3	7.1	7.1	14.3	0.0	28.6	7.1	7.1	0.0	0.0	0.0	0.0	0.0	7.1	7.1	0.0	1000
	장수군 (12)	16.7	16.7	8.3	8.3	8.3	0.0	8.3	0.0	8.3	8.3	0.0	0.0	0.0	0.0	0.0	16.7	1000
	임실군 (18)	27.8	5.6	0.0	0.0	5.6	0.0	11.1	11.1	11.1	5.6	11.1	0.0	11.1	0.0	0.0	1000	
	순창군 (18)	11.1	5.6	5.6	11.1	11.1	27.8	5.6	0.0	5.6	5.6	5.6	5.6	0.0	0.0	0.0	1000	
	고창군 (30)	13.3	20.0	16.7	0.0	6.7	10.0	10.0	0.0	10.0	13.3	0.0	0.0	0.0	0.0	0.0	1000	
	부안군 (30)	10.0	6.7	16.7	20.0	6.7	13.3	6.7	0.0	3.3	0.0	10.0	3.3	0.0	3.3	0.0	1000	

전라북도민의 단점은 ‘단결심 부족’이 12.9%로 가장 높았으며, 소극적 12.5%, 창의성 부족 11.7%, 조급성 8.7% 등의 순이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의 경우 ‘단결심 부족’이 14.0%로 가장 높았고, ‘창의성 부족’ 12.0%, ‘소극적’ 11.4% 등의 순이었다. 여성은 ‘소극적’ 13.6%가 가장 높았고, ‘단결심 부족’ 11.8%, ‘창의력 부족’ 11.4% 등의 순이었다.

연령대에서는 만 18~20대는 ‘조급성’이 13.8%로 가장 높았고, 만 30대는 ‘소극적’이 18.8%, 만 40대는 ‘창의성 부족’이 17.2%, 만 50대와 만 60대 이상은 ‘단결심 부족’이 가장 높았다.

전라북도 지역에서 시군별로 응답률 1위 항목들이 서로 상이하게 나왔으며, 공동 1위인 경우도 등장했다. 정읍시는 단결심 부족·소극적이 13.6%, 남원시는 단결심 부족·창의성 부족이 13.3%, 장수군은 단결심 부족·소극적이 16.7%로 공동 1위를 차지했다.

[표 3-48] 전라북도 도민의 가장 큰 단점(순위종합)

구분	사 례 수	전북도민 단점(1+2순위)															계	
		소극적	창의성부족	단결심부족	시기, 질투	포용력부족	조급성	비합리성	무책임	인내심부족	게으름	사치	인정없음	의리없음	예의없음	기타		
전체	(100)	283	231	231	207	172	168	152	126	104	8.8	6.2	6.2	5.2	4.8	1.4	100	
성별	남	(499)	281	220	248	212	158	182	134	106	11.2	9.0	6.8	6.2	6.6	4.8	1.0	100
	여	(501)	285	242	214	202	186	154	170	146	9.6	8.6	5.6	6.2	3.8	4.8	1.8	100
연령대	만 18~20대	(152)	283	204	138	21.7	132	224	112	191	9.9	9.9	5.3	7.2	7.9	7.9	2.0	100
	만 30대	(117)	359	239	274	128	205	11.1	179	120	6.8	120	4.3	5.1	3.4	5.1	1.7	100
	만 40대	(169)	290	308	219	207	231	11.8	178	3.6	8.9	101	3.6	5.3	7.7	3.6	2.4	100
	만 50대	(195)	308	29.7	31.3	17.9	16.9	133	190	128	8.7	7.2	3.1	2.1	4.6	1.5	1.0	100
	만 60대 이상	(367)	243	169	21.8	24.3	15.3	204	128	142	134	7.6	10.1	8.7	3.8	5.7	0.8	100
전북지역	전주시 완산구	(187)	358	214	278	209	155	8.6	166	139	7.5	123	3.7	3.7	5.9	4.3	2.1	100
	전주시 덕진구	(172)	320	262	285	169	174	151	169	11.6	7.0	9.9	4.7	3.5	5.2	2.9	2.3	100
	군산시	(146)	17.1	24.7	192	178	178	240	15.1	15.1	137	8.2	8.9	6.2	6.2	5.5	0.7	100
	익산시	(154)	240	234	156	20.1	188	240	123	7.1	136	4.5	11.0	11.7	3.9	8.4	1.3	100
	정읍시	(59)	339	169	169	186	203	153	136	169	169	102	1.7	6.8	8.5	3.4	0.0	100
	남원시	(45)	267	222	244	200	156	178	11.1	156	8.9	133	133	11.1	0.0	0.0	0.0	100
	김제시	(47)	31.9	40.4	234	27.7	106	128	6.4	8.5	170	6.4	4.3	0.0	4.3	4.3	2.1	100
	완주군	(53)	358	17.0	208	245	226	189	15.1	11.3	7.5	7.5	1.9	11.3	3.8	1.9	0.0	100
	진안군	(15)	200	200	467	200	133	6.7	200	133	0.0	133	0.0	6.7	6.7	133	0.0	100
	무주군	(14)	35.7	21.4	214	35.7	7.1	143	143	0.0	0.0	143	7.1	7.1	7.1	143	0.0	100
	장수군	(12)	333	8.3	333	167	250	8.3	250	167	8.3	0.0	8.3	0.0	0.0	0.0	167	100
	임실군	(18)	222	5.6	333	0.0	11.1	167	333	11.1	11.1	222	16.7	0.0	11.1	5.6	0.0	100
	순창군	(18)	278	16.7	11.1	500	222	11.1	11.1	16.7	5.6	5.6	0.0	11.1	5.6	5.6	0.0	100
	고창군	(30)	26.7	26.7	300	300	16.7	133	233	200	133	0.0	0.0	0.0	0.0	0.0	0.0	100
	부안군	(30)	133	233	133	26.7	16.7	26.7	133	16.7	100	3.3	6.7	100	100	100	0.0	100

전라북도민의 단점 1+2 순위에서 '소극적'이 28.3%로 가장 높았고, '창의성 부족'과 '단결심 부족'이 모두 23.1%로 공동 2위를 차지했다. 그 외에는 '시기·질투' 20.7%, '포용력 부족' 17.2%, '조급성' 16.8%, '비합리성' 15.2% 등의 순이었다.

성별을 보면 남성은 '소극적'이 28.1%, '단결심 부족' 24.8%, '창의성 부족' 22.0%, '시기·질투' 21.2% 등의 순이었다. 여성은 '소극적' 28.5%, '창의성 부족' 24.2%, 단결심 부족 21.4% 등의 순으로 순위가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전라북도민의 단점이 '무책임'이라는 응답에서 여성과 남성의 응답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연령대에서 만 18~20대, 만 30대는 '소극적'을 1순위로 선택했고, 만 40대는 '창의성 부족'을 30.8%로, 만 50대는 '단결심 부족'을 31.3%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만 60대 이상은 '소극적'과 '시기·질투'를 공동 1순위로 선택했다.

전라북도의 대부분의 시(전주시, 정읍시, 남원시, 익산시)는 전라북도민의 단점을 '소극적'으로 가장 많이 선택한 데 비해 군은 1순위 응답이 '시'보다는 다양했다.

[표 3-49] 전라북도의 차별에 대한 인식

구분	사 례 수	전북 차별 의식						계	4점 평균	
		① 전혀 동의 하지 않는다	②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③ 어느 정도 동의한다	④ 매우 동의 한다	①+② (비동의)	③+④ (동의)			
전체	(978)	1.1	9.4	59.3	30.2	10.5	89.5	100.0	3.19	
성 별	남	(488)	1.2	11.1	56.6	31.1	12.3	87.7	100.0	3.18
	여	(490)	1.0	7.8	62.0	29.2	8.8	91.2	100.0	3.19
연 령 대	만 18~20대	(142)	0.0	12.7	66.9	20.4	12.7	87.3	100.0	3.08
	만 30대	(110)	1.8	8.2	50.9	39.1	10.0	90.0	100.0	3.27
	만 40대	(166)	0.6	9.0	50.6	39.8	9.6	90.4	100.0	3.30
	만 50대	(193)	2.1	9.3	51.3	37.3	11.4	88.6	100.0	3.24
	만 60대 이상	(367)	1.1	8.7	67.0	23.2	9.8	90.2	100.0	3.12
전 북 지 역	전주시 완산구	(180)	1.1	5.6	51.1	42.2	6.7	93.3	100.0	3.34
	전주시 덕진구	(169)	0.0	9.5	50.9	39.6	9.5	90.5	100.0	3.30
	군산시	(139)	1.4	10.1	66.2	22.3	11.5	88.5	100.0	3.09
	익산시	(150)	0.7	10.0	63.3	26.0	10.7	89.3	100.0	3.15
	정읍시	(59)	0.0	15.3	67.8	16.9	15.3	84.7	100.0	3.02
	남원시	(45)	2.2	17.8	55.6	24.4	20.0	80.0	100.0	3.02
	김제시	(47)	2.1	4.3	59.6	34.0	6.4	93.6	100.0	3.26
	완주군	(52)	3.8	9.6	67.3	19.2	13.5	86.5	100.0	3.02
	진안군	(15)	0.0	20.0	46.7	33.3	20.0	80.0	100.0	3.13
	무주군	(14)	14.3	7.1	42.9	35.7	21.4	78.6	100.0	3.00
	장수군	(12)	0.0	8.3	75.0	16.7	8.3	91.7	100.0	3.08
	암실군	(18)	0.0	5.6	55.6	38.9	5.6	94.4	100.0	3.33
	순창군	(18)	0.0	5.6	66.7	27.8	5.6	94.4	100.0	3.22
	고창군	(30)	0.0	3.3	73.3	23.3	3.3	96.7	100.0	3.20
	부안군	(30)	0.0	16.7	70.0	13.3	16.7	83.3	100.0	2.97

타 지역 대비 차별 정도에 대해 전라북도민의 89.5%가 ‘차별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4점 평균에 집단별 응답평균이 최소 2.97~최대 3.34점이므로 차별을 높게 인지하고 있었다.

성별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게 인지하고 있었으며, 연령대에서는 만 40대가 다른 연령대보다 차별을 높게 인지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전라북도 지역일 경우 전주시 완산구가 3.34점으로 가장 평균이 높았으며, 부안군은 2.97점으로 차별을 적게 인지하고 있었다.

[표 3-50] 전라북도의 발전전망

구분	사 례 수	10년 후 전북 발전 전망							계	5점 평균	
		① 지금 보다 매우 낙후될 것이다	② 지금 보다 조금 낙후될 것이다	③ 지금과 비슷할 것이다	④ 지금 보다 조금 발전할 것이다	⑤ 지금 보다 매우 발전할 것이다	①+② (낙후)	④+⑤ (발전)			
전체	(996)	10.2	17.3	46.0	24.3	2.2	27.5	26.5	1000	2.91	
성 별	남	(495)	11.5	17.8	42.8	25.7	2.2	29.3	27.9	1000	2.89
	여	(501)	9.0	16.8	49.1	23.0	2.2	25.7	25.1	1000	2.93
연 령 대	만 18~20대	(148)	10.8	13.5	44.6	28.4	2.7	24.3	31.1	1000	2.99
	만 30대	(117)	17.9	23.9	41.9	13.7	2.6	41.9	16.2	1000	2.59
	만 40대	(169)	12.4	20.1	41.4	26.0	0.0	32.5	26.0	1000	2.81
	만 50대	(195)	10.8	22.1	39.5	23.6	4.1	32.8	27.7	1000	2.88
	만 60대 이상	(367)	6.3	12.8	53.4	25.6	1.9	19.1	27.5	1000	3.04
전 라 북 도 지 역	전주시 완산구	(187)	11.8	19.8	42.2	23.0	3.2	31.6	26.2	1000	2.86
	전주시 덕진구	(172)	11.6	22.7	41.9	21.5	2.3	34.3	23.8	1000	2.80
	군산시	(142)	8.5	14.1	46.5	26.8	4.2	22.5	31.0	1000	3.04
	익산시	(154)	10.4	16.2	48.1	23.4	1.9	26.6	25.3	1000	2.90
	정읍시	(59)	5.1	16.9	50.8	25.4	1.7	22.0	27.1	1000	3.02
	남원시	(45)	8.9	15.6	57.8	17.8	0.0	24.4	17.8	1000	2.84
	김제시	(47)	14.9	23.4	34.0	27.7	0.0	38.3	27.7	1000	2.74
	완주군	(53)	3.8	11.3	60.4	24.5	0.0	15.1	24.5	1000	3.06
	진안군	(15)	26.7	20.0	20.0	33.3	0.0	46.7	33.3	1000	2.60
	무주군	(14)	14.3	14.3	42.9	21.4	7.1	28.6	28.6	1000	2.93
	장수군	(12)	8.3	16.7	58.3	16.7	0.0	25.0	16.7	1000	2.83
	임실군	(18)	5.6	16.7	55.6	22.2	0.0	22.2	22.2	1000	2.94
	순창군	(18)	5.6	5.6	66.7	22.2	0.0	11.1	22.2	1000	3.06
	고창군	(30)	10.0	16.7	33.3	36.7	3.3	26.7	40.0	1000	3.07
부안군	(30)	13.3	3.3	50.0	33.3	0.0	16.7	33.3	1000	3.03	

향후 10년 후 전라북도 발전수준에 대해 ‘지금과 비슷할 것이다’는 46.0%로 가장 높았고, 낙후 관련 응답 27.5%, 발전 관련 응답 26.5% 순이었다. 전체적으로 집단별 응답 평균이 5점 평균 기준 2점 후반~3점 초반으로 도민들은 향후 10년 후에도 전라북도의 발전 수준은 지금과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성별일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지금과 비슷할 것이다’에 더 많은 응답을 하였다.

연령대에서는 만 18~2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전라북도가 향후 10년 후에도 발전할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에 만 30대는 다른 연령대보다 향후 10년 후에 다른 지역보다

전라북도가 낙후될 것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했다. 전라북도 지역에서 고창군이 다른 시군보다 향후 10년 후 전라북도가 발전할 것이라고 가장 많이 기대하고 있었다.

[표 3-51] 타지역으로의 이사에 대한 인식

구분	사 례 수	다른 지역으로 이사						계	4점 평균	
		① 전혀 웁기고 싶지 않다	② 별로 웁기고 싶지 않다	③ 기회가 주어지면 웁기 겠다	④ 반드시 웁기 겠다	①+② (웁기고 싶지않음)	③+④ (웁기고 싶음)			
전체	(999)	14.2	42.8	40.2	2.7	57.1	42.9	1000	2.31	
성별	남	(498)	14.7	43.4	39.6	2.4	58.0	42.0	1000	2.30
	여	(501)	13.8	42.3	40.9	3.0	56.1	43.9	1000	2.33
연령대	만 18~20대	(152)	3.3	37.5	54.6	4.6	40.8	59.2	1000	2.61
	만 30대	(117)	6.0	32.5	54.7	6.8	38.5	61.5	1000	2.62
	만 40대	(169)	11.8	30.2	52.7	5.3	42.0	58.0	1000	2.51
	만 50대	(195)	19.0	36.9	43.6	0.5	55.9	44.1	1000	2.26
	만 60대 이상	(366)	19.9	57.4	22.1	0.5	77.3	22.7	1000	2.03
전북 지역	전주시 완산구	(187)	14.4	36.4	45.5	3.7	50.8	49.2	1000	2.39
	전주시 덕진구	(172)	11.0	40.1	47.7	1.2	51.2	48.8	1000	2.39
	군산시	(146)	11.6	43.8	39.0	5.5	55.5	44.5	1000	2.38
	익산시	(153)	9.8	46.4	41.2	2.6	56.2	43.8	1000	2.37
	정읍시	(59)	23.7	44.1	32.2	0.0	67.8	32.2	1000	2.08
	남원시	(45)	13.3	37.8	44.4	4.4	51.1	48.9	1000	2.40
	김제시	(47)	29.8	40.4	27.7	2.1	70.2	29.8	1000	2.02
	완주군	(53)	11.3	56.6	28.3	3.8	67.9	32.1	1000	2.25
	진안군	(15)	13.3	53.3	33.3	0.0	66.7	33.3	1000	2.20
	무주군	(14)	21.4	50.0	28.6	0.0	71.4	28.6	1000	2.07
	장수군	(12)	8.3	58.3	33.3	0.0	66.7	33.3	1000	2.25
	임실군	(18)	22.2	27.8	44.4	5.6	50.0	50.0	1000	2.33
	순창군	(18)	16.7	50.0	33.3	0.0	66.7	33.3	1000	2.17
	고창군	(30)	13.3	40.0	46.7	0.0	53.3	46.7	1000	2.33
	부안군	(30)	23.3	53.3	23.3	0.0	76.7	23.3	1000	2.00

전라북도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옮길 의향에 대해 ‘옮기고 싶지 않음’이 57.1%로 ‘옮기고 싶음’ 42.9%보다 더 높았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것을 더 유지하고 싶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에서 만 30대가 61.5%로 가장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싶어했으며, 만 18~20대는 59.2%로 그 뒤를 이었다. 전라북도 거주를 가장 유지하고 싶은 연령층은 만 60대 이상이었다.

전라북도 지역에서는 부안군이 전라북도 거주를 가장 유지하고 싶어했으며, 반응이 동일한 임실군 제외 전주시 완산구가 전라북도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2] 타지역으로 이사하고 싶은 주된 이유(1순위)

구분	사 례 수	전라북도를 떠나고 싶은 가장 큰 이유(1순위)								
		문화 혜택 부족	직장 이나 사업 문제	전북이 낙후 되어서	경제적 문제	교육 문제	개인적 활동 영역을 넓히기 위해	교통 시설 부족	주민 들의 의식 수준 이 낮아서	
전체	(430)	18.6	14.2	14.2	12.6	9.3	8.8	7.9	4.4	
성 별	남	(210)	19.0	14.3	17.6	12.4	10.5	8.1	5.7	4.8
	여	(220)	18.2	14.1	10.9	12.7	8.2	9.5	10.0	4.1
연 령 대	만 18 ~20대	(90)	22.2	20.0	13.3	4.4	5.6	13.3	10.0	3.3
	만 30대	(72)	18.1	18.1	12.5	15.3	9.7	8.3	4.2	4.2
	만 40대	(98)	17.3	13.3	15.3	14.3	22.4	5.1	4.1	2.0
	만 50대	(86)	20.9	16.3	9.3	17.4	5.8	9.3	7.0	7.0
	만 60대 이상	(84)	14.3	3.6	20.2	11.9	1.2	8.3	14.3	6.0
전 북 지 역	전주시 완산구	(92)	18.5	20.7	12.0	9.8	9.8	7.6	5.4	5.4
	전주시 덕진구	(84)	19.0	13.1	19.0	14.3	7.1	9.5	6.0	1.2
	군산시	(65)	15.4	9.2	15.4	13.8	13.8	9.2	7.7	3.1
	익산시	(68)	16.2	17.6	11.8	20.6	5.9	8.8	7.4	4.4
	정읍시	(19)	31.6	10.5	10.5	5.3	10.5	5.3	15.8	0.0
	남원시	(22)	18.2	13.6	13.6	18.2	9.1	18.2	4.5	4.5
	김제시	(14)	7.1	7.1	35.7	7.1	7.1	7.1	7.1	7.1
	완주군	(17)	17.6	17.6	11.8	0.0	17.6	0.0	23.5	0.0
	진안군	(5)	0.0	0.0	0.0	0.0	20.0	0.0	20.0	20.0
	무주군	(4)	25.0	0.0	25.0	0.0	25.0	0.0	0.0	25.0
	장수군	(4)	0.0	0.0	25.0	25.0	0.0	0.0	25.0	25.0
	임실군	(9)	11.1	0.0	0.0	0.0	11.1	22.2	11.1	11.1
	순창군	(6)	33.3	16.7	0.0	0.0	0.0	16.7	16.7	16.7
	고창군	(14)	35.7	21.4	14.3	14.3	0.0	7.1	7.1	0.0
부안군	(7)	42.9	0.0	0.0	14.3	14.3	14.3	0.0	14.3	

전라북도를 떠나고 싶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당 이유 1순위를 조사한 결과 ‘문화혜택 부족’이 18.6%로 가장 높았고 ‘직장이나 사업문제’와 ‘전북이 낙후되어서’가 14.2%, ‘경제적 문제’ 12.6% 등의 순이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전북이 낙후되어 있어서’에서 남녀 간 응답 차이가 가장 높았으며, 남성이 여성보다 ‘전북이 낙후되어 있어서’ 떠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3] 타지역으로 이사하고 싶은 주된 이유(1순위)(표계속)

구분	전라북도를 떠나고 싶은 가장 큰 이유(1순위)					계	
	뚜렷한 이유는 없지만 왠지 옮기고 싶어서	타향 이거나 아는 사람이 없어서	전북 지역의 환경공해 등이 좋지 않아서	주거 문제	기타		
전체	3.7	3.0	1.6	1.4	0.2	100.0	
성별	남	3.3	2.9	1.0	0.5	0.0	100.0
	여	4.1	3.2	2.3	2.3	0.5	100.0
연령대	만 18~20대	4.4	3.3	0.0	0.0	0.0	100.0
	만 30대	2.8	2.8	2.8	1.4	0.0	100.0
	만 40대	2.0	2.0	1.0	0.0	1.0	100.0
	만 50대	2.3	2.3	1.2	1.2	0.0	100.0
	만 60대 이상	7.1	4.8	3.6	4.8	0.0	100.0
전북지역	전주시 완산구	4.3	6.5	0.0	0.0	0.0	100.0
	전주시 덕진구	2.4	3.6	2.4	2.4	0.0	100.0
	군산시	4.6	1.5	4.6	1.5	0.0	100.0
	익산시	0.0	1.5	2.9	2.9	0.0	100.0
	정읍시	5.3	5.3	0.0	0.0	0.0	100.0
	남원시	0.0	0.0	0.0	0.0	0.0	100.0
	김제시	7.1	0.0	0.0	7.1	0.0	100.0
	완주군	5.9	5.9	0.0	0.0	0.0	100.0
	진안군	40.0	0.0	0.0	0.0	0.0	100.0
	무주군	0.0	0.0	0.0	0.0	0.0	100.0
	장수군	0.0	0.0	0.0	0.0	0.0	100.0
	임실군	22.2	0.0	0.0	0.0	11.1	100.0
	순창군	0.0	0.0	0.0	0.0	0.0	100.0
	고창군	0.0	0.0	0.0	0.0	0.0	100.0
부안군	0.0	0.0	0.0	0.0	0.0	100.0	

연령대에서 만 18~20대·만 30대·만 50대는 ‘문화혜택 부족’으로, 만 40대는 ‘교육문제’로, 만 60대 이상은 ‘전북이 낙후되어서’ 전라북도를 떠나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 30대일 경우 ‘직장이나 사업문제’도 18.1%로 ‘문화혜택 부족’과 함께 전라북도를 떠나고 싶은 주요 동기로 작용했다. 전라북도 지역별로는 김제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북이 낙후되어 있어서’가 전라북도를 떠나고 싶은 가장 큰 이유였다.

[표 3-54] 타지역으로 이사하고 싶은 주된 이유(순위종합)

구분	사 례 수	전라북도를 떠나고 싶은 가장 큰 이유(1+2순위)							
		문화 혜택 부족	전북이 낙후 되어서	직장이나 사업문제	개인적 활동 영역을 넓히기 위해	경제적 문제	교육 문제	교통시설 부족	
전체	(430)	35.8	30.2	28.1	22.6	22.3	13.3	11.6	
성 별	남	(210)	32.9	31.4	30.5	25.2	20.0	15.2	9.0
	여	(220)	38.6	29.1	25.9	20.0	24.5	11.4	14.1
연 령	만 18 ~20대	(90)	37.8	28.9	43.3	27.8	8.9	7.8	20.0
	만 30대	(72)	40.3	27.8	30.6	18.1	26.4	20.8	5.6
	만 40대	(98)	40.8	32.7	22.4	19.4	28.6	26.5	7.1
	만 50대	(86)	34.9	24.4	29.1	24.4	27.9	9.3	7.0
	만 60대 이상	(84)	25.0	36.9	15.5	22.6	20.2	1.2	17.9
전 북 지 역	전주시 완산구	(92)	38.0	32.6	33.7	21.7	19.6	12.0	8.7
	전주시 덕진구	(84)	36.9	39.3	22.6	23.8	27.4	13.1	7.1
	군산시	(65)	30.8	29.2	24.6	23.1	24.6	16.9	15.4
	익산시	(68)	29.4	27.9	33.8	20.6	25.0	13.2	8.8
	정읍시	(19)	57.9	21.1	31.6	21.1	15.8	10.5	21.1
	남원시	(22)	22.7	31.8	36.4	22.7	31.8	9.1	4.5
	김제시	(14)	28.6	42.9	28.6	21.4	14.3	7.1	14.3
	완주군	(17)	47.1	11.8	29.4	17.6	11.8	17.6	29.4
	진안군	(5)	40.0	0.0	0.0	20.0	20.0	20.0	20.0
	무주군	(4)	50.0	25.0	0.0	0.0	25.0	50.0	0.0
	장수군	(4)	0.0	25.0	0.0	0.0	25.0	0.0	50.0
	임실군	(9)	33.3	33.3	11.1	33.3	0.0	11.1	11.1
	순창군	(6)	33.3	0.0	50.0	16.7	16.7	16.7	16.7
	고창군	(14)	42.9	28.6	35.7	35.7	14.3	7.1	21.4
	부안군	(7)	71.4	14.3	0.0	42.9	28.6	14.3	0.0

전라북도를 떠나고 싶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당 이유 1순위와 2순위를 조사한 결과 ‘문화혜택 부족’이 35.8%로 가장 높았고, ‘전북이 낙후되어서’ 30.2%, ‘직장이나 사업문제’ 28.1%, ‘개인적 활동영역을 넓히기 위해’ 22.6% 등의 순이었다.

성별로 보면 여성과 남성 모두 ‘문화혜택 부족’으로 가장 많이 전라북도를 떠나고 싶어 했으며, 여성의 응답비율이 남성보다 높았다. ‘개인적 활동영역을 넓히기 위해’, ‘주민들의 의식수준이 낮아서’ 항목에서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컸으며 남성의 응답률이 더 높았다.

[표 3-55] 타지역으로 이사하고 싶은 주민 이유(순위종합)(표 계속)

구분	전라북도를 떠나고 싶은 가장 큰 이유(1+2순위)						계	
	뚜렷한 이유는 없지만, 왠지 옮기고 싶어서	주민들의 의식수준이 낮아서	주거 문제	타향이거나 아는사람이 없어서	전북 지역의 환경(공해 등)이 좋지 않아서	기타		
전체	11.2	10.2	5.3	4.7	2.8	1.9	100.0	
성별	남	10.5	12.9	3.8	4.3	2.9	1.4	100.0
	여	11.8	7.7	6.8	5.0	2.7	2.3	100.0
연령대	만 18~20대	10.0	5.6	4.4	3.3	2.2	0.0	100.0
	만 30대	8.3	9.7	2.8	5.6	2.8	1.4	100.0
	만 40대	4.1	7.1	3.1	5.1	1.0	2.0	100.0
	만 50대	12.8	12.8	5.8	4.7	1.2	5.8	100.0
	만 60대	21.4	16.7	10.7	4.8	7.1	0.0	100.0
	이상							
전북지역	전주시 완산구	10.9	8.7	5.4	7.6	0.0	1.1	100.0
	전주시 덕진구	8.3	6.0	6.0	4.8	2.4	2.4	100.0
	군산시	10.8	7.7	3.1	4.6	7.7	1.5	100.0
	익산시	13.2	10.3	10.3	2.9	4.4	0.0	100.0
	정읍시	10.5	0.0	0.0	10.5	0.0	0.0	100.0
	남원시	9.1	22.7	4.5	4.5	0.0	0.0	100.0
	김제시	14.3	7.1	14.3	0.0	7.1	0.0	100.0
	완주군	5.9	5.9	5.9	5.9	5.9	5.9	100.0
	진안군	40.0	20.0	0.0	0.0	0.0	20.0	100.0
	무주군	0.0	50.0	0.0	0.0	0.0	0.0	100.0
	장수군	25.0	50.0	0.0	0.0	0.0	25.0	100.0
	임실군	33.3	22.2	0.0	0.0	0.0	11.1	100.0
	순창군	16.7	33.3	0.0	0.0	0.0	0.0	100.0
	고창군	0.0	14.3	0.0	0.0	0.0	0.0	100.0
부안군	14.3	14.3	0.0	0.0	0.0	0.0	100.0	

연령대에서는 만 18~20대는 ‘직장이나 사업문제’로, 만 30~50대는 ‘문화혜택 부족’으로, 만 60대 이상은 ‘전북이 낙후되어 있어서’ 전라북도를 떠나고 싶어 했다. 전라북도 지역일 경우 대다수의 시군이 ‘문화혜택 부족’으로 전라북도를 떠나고 싶어했다

[표 3-56] 전라북도 도민으로서의 자긍심 정도

구분	사 례 수	나는 전라북도 사람인 것이 자랑스럽다	내 자손도 전라북도에 서 살기를 바란다	전라 북도는 살기 좋은 곳이다	전라북도 역사는 자랑스럽다	전라북도 사람들은 인정이 많다	
		5점 평균	5점 평균	5점 평균	5점 평균	5점 평균	
전체	(1000)	3.32	3.10	3.45	3.57	3.60	
성 별	남	(499)	3.35	3.20	3.48	3.60	3.64
	여	(501)	3.29	3.00	3.42	3.55	3.55
연 령 대	만 18~20대	(152)	3.56	3.37	3.62	3.68	3.66
	만 30대	(117)	2.85	2.69	3.19	3.25	3.25
	만 40대	(169)	3.13	2.77	3.25	3.37	3.47
	만 50대	(195)	3.20	2.86	3.31	3.51	3.62
	만 60대 이상	(367)	3.52	3.40	3.64	3.75	3.73
전 북 지 역	전주시 완산구	(187)	3.15	2.91	3.38	3.56	3.50
	전주시 덕진구	(172)	3.20	2.91	3.33	3.51	3.56
	군산시	(146)	3.38	3.15	3.47	3.55	3.62
	익산시	(154)	3.41	3.20	3.44	3.58	3.58
	정읍시	(59)	3.54	3.44	3.81	3.81	3.86
	남원시	(45)	3.38	3.07	3.27	3.64	3.56
	김제시	(47)	3.51	3.04	3.47	3.45	3.68
	완주군	(53)	3.43	3.47	3.87	3.70	3.64
	진안군	(15)	3.33	2.80	3.40	3.67	3.67
	무주군	(14)	3.14	2.86	3.50	3.64	3.71
	장수군	(12)	3.25	3.25	3.50	3.75	3.42
	임실군	(18)	3.22	3.06	3.44	3.61	3.50
	순창군	(18)	3.22	3.17	3.11	3.44	3.61
	고창군	(30)	3.23	3.20	3.47	3.27	3.53
	부안군	(30)	3.60	3.47	3.60	3.70	3.80

전라북도 및 전북도민에 대한 평가일 경우 ‘전라북도 사람들은 인정이 많다’는 5점 평균에 3.6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전라북도 역사는 자랑스럽다’ 3.57점, ‘전라북도 사람들은 애항심이 강하다’와 ‘전라북도는 살기 좋은 곳이다’ 3.45점 등의 순이었다.

성별일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평균 점수대가 대체적으로 높았으나 ‘전라북도 사람들은 애항심이 강하다’, ‘전라북도 사람들은 단결력이 강하다’, ‘전라북도 사람들은 적극적이다’ 일 경우 여성의 응답이 남성의 응답보다 더 높았다.

[표 3-57] 전라북도 도민에 대한 주관적 평가

구분	전라북도 사람들은 애항심이 강하다	전라북도 사람들은 단결력 이 강하다	전라북도 사람들은 신뢰할 수 있다	전라북도 사람들은 적극적이다	전라북도 사람들은 포용력이 강하다	
	5점 평균	5점 평균	5점 평균	5점 평균	5점평균	
전체	3.45	3.22	3.32	3.02	3.13	
성 별	남	3.44	3.17	3.34	3.02	3.13
	여	3.46	3.26	3.30	3.03	3.13
연 령 대	만 18~20대	3.43	3.51	3.48	3.25	3.35
	만 30대	3.32	3.03	3.10	2.66	2.89
	만 40대	3.36	3.11	3.20	2.86	2.93
	만 50대	3.34	2.89	3.18	2.74	2.99
	만 60대 이상	3.60	3.38	3.45	3.27	3.28
전 라 북 도 지 역	전주시 완산구	3.32	2.97	3.18	2.81	3.09
	전주시 덕진구	3.31	3.11	3.16	2.73	2.99
	군산시	3.49	3.38	3.38	3.21	3.15
	익산시	3.51	3.36	3.42	3.23	3.21
	정읍시	3.54	3.31	3.37	3.02	3.31
	남원시	3.51	3.16	3.22	3.04	3.04
	김제시	3.32	3.26	3.38	3.06	3.17
	완주군	3.62	3.43	3.47	3.09	3.11
	진안군	3.93	3.00	3.40	3.13	2.87
	무주군	3.79	3.29	3.57	2.93	3.14
	장수군	3.08	2.83	3.25	3.00	2.75
	임실군	3.33	3.17	3.22	3.11	3.28
	순창군	3.50	3.17	3.50	3.00	3.17
	고창군	3.50	3.20	3.47	3.33	3.17
	부안군	3.90	3.60	3.70	3.53	3.57

연령대에서 만 60대가 주로 각 문항별 1순위를 차지하였다. 전라북도 지역일 경우 각 문항(‘전라북도 사람인 것이 자랑스럽다’, ‘나의 자손이 전라북도에서 살기를 바란다’ 등)에서 부안군이 주로 1순위를 차지하였다.

[표 3-58] 전라북도 도민으로서의 자랑스러움 정도

구분	사 례 수	나는 전라북도 사람인 것이 자랑스럽다					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1000)	3.9	10.5	40.6	39.6	5.4	100.0	
성 별	남	(499)	3.2	12.2	37.7	40.3	6.6	100.0
	여	(501)	4.6	8.8	43.5	38.9	4.2	100.0
연 령 대	만 18~20대	(152)	2.0	7.9	27.6	57.2	5.3	100.0
	만 30대	(117)	10.3	17.9	51.3	17.1	3.4	100.0
	만 40대	(169)	4.7	14.2	49.1	27.2	4.7	100.0
	만 50대	(195)	4.1	14.4	45.6	29.2	6.7	100.0
	만 60대 이상	(367)	2.2	5.4	36.0	50.7	5.7	100.0
전 라 북 도 지 역	전주시 완산구	(187)	7.0	12.3	43.9	32.6	4.3	100.0
	전주시 덕진구	(172)	3.5	14.0	45.9	32.0	4.7	100.0
	군산시	(146)	3.4	8.2	39.0	45.2	4.1	100.0
	익산시	(154)	3.9	11.0	32.5	45.5	7.1	100.0
	정읍시	(59)	0.0	6.8	39.0	47.5	6.8	100.0
	남원시	(45)	2.2	15.6	33.3	40.0	8.9	100.0
	김제시	(47)	4.3	4.3	34.0	51.1	6.4	100.0
	완주군	(53)	1.9	7.5	43.4	39.6	7.5	100.0
	진안군	(15)	0.0	13.3	53.3	20.0	13.3	100.0
	무주군	(14)	14.3	0.0	50.0	28.6	7.1	100.0
	장수군	(12)	0.0	8.3	58.3	33.3	0.0	100.0
	임실군	(18)	5.6	11.1	38.9	44.4	0.0	100.0
	순창군	(18)	0.0	16.7	50.0	27.8	5.6	100.0
	고창군	(30)	6.7	10.0	40.0	40.0	3.3	100.0
	부안군	(30)	0.0	3.3	36.7	56.7	3.3	100.0

‘나는 전라북도 사람인 것이 자랑스럽다’에 전혀 그렇지 않다 3.9%, 별로 그렇지 않다 10.5%, 보통이다 40.6%, 대체로 그렇다 39.6%, 매우 그렇다 5.4%로 응답하였다. ‘그렇다’는 응답이 45.0%로 보통이다 40.6%보다 조금 더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만 30대(51.3%), 만 40대(49.1%), 만 50대(45.6%)는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만 18~20대(57.2%)와 만 60대 이상(50.7%)은 ‘대체로 그렇다’라는 의견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 지역별에서 김제시 57.5%, 정읍시 54.3%, 익산시 52.6% 순으로 높았고, 진안군 33.3%, 순창군 33.4% 등의 순으로 낮았다. 전주시 완산구(36.9%), 전주시 덕진구(36.7%)를 제외하고 시보다는 군지역에서 자랑스럽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9] 자녀의 전라북도 거주에 대한 인식

구분	사 례 수	내 자손도 전라북도에서 살기를 바란다.					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1000)	9.3	20.7	30.0	30.8	9.2	100.0	
성 별	남	(499)	7.4	18.6	30.9	32.7	10.4	100.0
	여	(501)	11.2	22.8	29.1	28.9	8.0	100.0
연 령 대	만 18~20대	(152)	8.6	15.1	21.1	41.4	13.8	100.0
	만 30대	(117)	18.8	26.5	28.2	19.7	6.8	100.0
	만 40대	(169)	11.8	27.8	36.7	18.9	4.7	100.0
	만 50대	(195)	11.8	27.2	31.3	23.1	6.7	100.0
	만 60대 이상	(367)	4.1	14.4	30.5	39.5	11.4	100.0
전 라 부 도 지 역	전주시 완산구	(187)	12.3	23.5	32.6	24.1	7.5	100.0
	전주시 덕진구	(172)	10.5	27.3	32.6	19.8	9.9	100.0
	군산시	(146)	9.6	19.2	26.7	35.6	8.9	100.0
	익산시	(154)	9.1	20.1	25.3	32.5	13.0	100.0
	정읍시	(59)	0.0	15.3	35.6	39.0	10.2	100.0
	남원시	(45)	8.9	15.6	42.2	26.7	6.7	100.0
	김제시	(47)	17.0	14.9	23.4	36.2	8.5	100.0
	완주군	(53)	1.9	7.5	39.6	43.4	7.5	100.0
	진안군	(15)	20.0	13.3	40.0	20.0	6.7	100.0
	무주군	(14)	14.3	35.7	7.1	35.7	7.1	100.0
	장수군	(12)	0.0	33.3	16.7	41.7	8.3	100.0
	임실군	(18)	5.6	27.8	22.2	44.4	0.0	100.0
	순창군	(18)	5.6	11.1	50.0	27.8	5.6	100.0
	고창군	(30)	3.3	30.0	16.7	43.3	6.7	100.0
	부안군	(30)	10.0	10.0	20.0	43.3	16.7	100.0

‘내 자손도 전라북도에서 살기를 바란다’에 대해 ‘대체로 그렇다’가 30.8%로 가장 높았으나, 보통이다 30.0%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의견이 40.0%, 보통이다 30.0%, 그렇지 않다 30.0%으로 나타나 각 문항 응답률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43.1%, 여자는 36.9%로 남자가 6.2% 더 높았다. 더하여 남자는 ‘그렇다’라는 의견과 ‘보통이다’라는 의견의 합이 74.0%였고, 여자는 66.0%로 나타났다.

연령대에서 만 18~20대(41.4%)와 만 60대 이상(39.5%) 집단은 ‘대체로 그렇다’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보통이다’ 의견이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 ‘그렇다’ 의견이 부안군이 60.0%로 가장 높았고, 완주군 50.9%, 장수군·고창군 50.0%, 정읍시 49.2% 등의 순이었다. 6개 시 중에서는 전주시 덕진구가 29.7%, 8개 군에서는 진안군이 26.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3-60] 전라북도의 거주환경에 대한 인식

구분	사 례 수	전라북도는 살기 좋은 곳이다					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1000)	3.2	11.7	32.3	42.1	10.7	100.0	
성 별	남	(499)	2.2	13.0	30.9	41.9	12.0	100.0
	여	(501)	4.2	10.4	33.7	42.3	9.4	100.0
연 령 대	만 18~20대	(152)	1.3	11.8	24.3	48.7	13.8	100.0
	만 30대	(117)	5.1	23.9	28.2	32.5	10.3	100.0
	만 40대	(169)	4.1	14.2	40.2	34.9	6.5	100.0
	만 50대	(195)	5.1	13.3	34.9	38.5	8.2	100.0
	만 60대 이상	(367)	1.9	5.7	31.9	47.7	12.8	100.0
전 라 북 도 지 역	전주시 완산구	(187)	3.7	13.9	31.6	42.2	8.6	100.0
	전주시 덕진구	(172)	4.1	15.1	34.9	35.5	10.5	100.0
	군산시	(146)	4.8	11.0	27.4	45.9	11.0	100.0
	익산시	(154)	2.6	11.7	35.1	40.3	10.4	100.0
	정읍시	(59)	0.0	3.4	28.8	50.8	16.9	100.0
	남원시	(45)	2.2	20.0	37.8	28.9	11.1	100.0
	김제시	(47)	2.1	14.9	27.7	44.7	10.6	100.0
	완주군	(53)	1.9	1.9	24.5	50.9	20.8	100.0
	진안군	(15)	0.0	20.0	33.3	33.3	13.3	100.0
	무주군	(14)	7.1	0.0	35.7	50.0	7.1	100.0
	장수군	(12)	8.3	0.0	33.3	50.0	8.3	100.0
	임실군	(18)	5.6	5.6	33.3	50.0	5.6	100.0
	순창군	(18)	0.0	22.2	44.4	33.3	0.0	100.0
	고창군	(30)	3.3	10.0	33.3	43.3	10.0	100.0
	부안군	(30)	0.0	3.3	40.0	50.0	6.7	100.0

‘전라북도민은 전라북도는 살기 좋은 곳이다’에 대해 대체로 ‘그렇다’는 의견이 42.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별로 그렇지 않다’ 11.7%, ‘전혀 그렇지 않다’ 3.2%로 부정적인 의견은 낮은 수준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만 18~20대가 62.5%, 만 60대 이상이 60.5%로 전라북도는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 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만 40대가 41.4%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전라북도 지역별 분석결과는 완주군 71.7%, 정읍시 67.7%, 장수군 58.3%, 무주군 57.1%, 군산시 56.9%, 부안군 56.7%, 임실군 55.6%, 김제시 55.3%, 고창군 53.3%, 전주시 완산구 50.8%, 익산시 50.7%, 진안군 46.6%, 전주시 덕진구 46.0%, 남원시 40.0%의 순으로 살기 좋은 곳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3-61] 전라북도의 역사에 대한 인식

구분	사 례 수	전라북도 역사는 자랑스럽다.					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1000)	2.4	7.4	35.2	40.5	14.5	100.0	
성 별	남	(499)	3.2	7.6	32.7	39.1	17.4	100.0
	여	(501)	1.6	7.2	37.7	41.9	11.6	100.0
연 령 대	만 18~20대	(152)	1.3	8.6	29.6	41.4	19.1	100.0
	만 30대	(117)	6.8	13.7	36.8	33.3	9.4	100.0
	만 40대	(169)	2.4	9.5	45.6	33.7	8.9	100.0
	만 50대	(195)	3.1	7.7	38.5	36.4	14.4	100.0
	만 60대 이상	(367)	1.1	3.8	30.5	47.7	16.9	100.0
전 라 북 도 의 시 군 구	전주시 완산구	(187)	3.2	7.5	36.4	35.8	17.1	100.0
	전주시 덕진구	(172)	1.2	12.8	34.3	37.8	14.0	100.0
	군산시	(146)	1.4	8.2	37.7	39.0	13.7	100.0
	익산시	(154)	3.2	5.2	33.8	46.1	11.7	100.0
	정읍시	(59)	1.7	1.7	30.5	45.8	20.3	100.0
	남원시	(45)	0.0	2.2	42.2	44.4	11.1	100.0
	김제시	(47)	2.1	10.6	44.7	25.5	17.0	100.0
	완주군	(53)	3.8	3.8	28.3	47.2	17.0	100.0
	진안군	(15)	0.0	13.3	33.3	26.7	26.7	100.0
	무주군	(14)	7.1	0.0	28.6	50.0	14.3	100.0
	장수군	(12)	0.0	0.0	41.7	41.7	16.7	100.0
	임실군	(18)	11.1	0.0	22.2	50.0	16.7	100.0
	순창군	(18)	0.0	11.1	44.4	33.3	11.1	100.0
	고창군	(30)	6.7	13.3	30.0	46.7	3.3	100.0
	부안군	(30)	0.0	3.3	33.3	53.3	10.0	100.0

‘전라북도의 역사에 대해서 자랑스럽다’에 대해 ‘그렇다’ 55.0%, ‘보통이다’ 35.2%, ‘그렇지 않다’ 9.8%로 응답하여 전라북도민들은 전라북도 역사에 대해서 자랑스럽다고 생각하는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로는 ‘자랑스럽다’는 의견이 만 60대 이상에서 64.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만 18~20대 60.5%, 만 50대 50.8%, 만 40대 42.6%, 만 30대 42.7% 순으로 높았다.

전라북도의 6개의 시에서는 정읍시가 66.1%로 ‘자랑스럽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익산시 57.8%, 남원시 55.5%, 전주시 완산구 52.9%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라북도의 8개의 군에서는 임실군이 66.7%로 가장 높았고, 무주군 64.3%, 완주군 64.2%, 부안군 63.3% 등의 순으로 높았다.

[표 3-62] 전라북도 도민의 인정과 정감에 대한 인식

구분	사례수	전라북도 사람들은 인정이 많다.					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1000)	2.8	7.4	29.1	48.8	11.9	100.0	
성별	남	(499)	3.4	7.8	25.7	47.3	15.8	100.0
	여	(501)	2.2	7.0	32.5	50.3	8.0	100.0
연령대	만 18~20대	(152)	3.9	6.6	27.0	44.7	17.8	100.0
	만 30대	(117)	6.0	13.7	37.6	35.0	7.7	100.0
	만 40대	(169)	2.4	8.9	35.5	46.2	7.1	100.0
	만 50대	(195)	2.6	8.7	25.6	50.3	12.8	100.0
	만 60대 이상	(367)	1.6	4.4	26.2	55.3	12.5	100.0
전라북도 지역	전주시 완산구	(187)	4.8	7.0	32.6	44.9	10.7	100.0
	전주시 덕진구	(172)	1.7	8.7	31.4	48.3	9.9	100.0
	군산시	(146)	2.1	8.9	26.0	50.7	12.3	100.0
	익산시	(154)	3.2	8.4	26.6	50.6	11.0	100.0
	정읍시	(59)	1.7	1.7	23.7	54.2	18.6	100.0
	남원시	(45)	2.2	11.1	24.4	53.3	8.9	100.0
	김제시	(47)	2.1	6.4	31.9	40.4	19.1	100.0
	완주군	(53)	1.9	7.5	32.1	41.5	17.0	100.0
	진안군	(15)	6.7	0.0	33.3	40.0	20.0	100.0
	무주군	(14)	7.1	0.0	21.4	57.1	14.3	100.0
	장수군	(12)	0.0	16.7	25.0	58.3	0.0	100.0
	임실군	(18)	5.6	0.0	38.9	50.0	5.6	100.0
	순창군	(18)	5.6	11.1	11.1	61.1	11.1	100.0
	고창군	(30)	0.0	6.7	40.0	46.7	6.7	100.0
	부안군	(30)	0.0	3.3	26.7	56.7	13.3	100.0

전라북도민의 '전라북도 사람들은 인정이 많다'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그렇다'는 의견이 총 60.7%로 전라북도민들은 인정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 별로는 '대체로 그렇다' 48.8%, '보통이다' 29.1%, '매우 그렇다' 11.9%, '별로 그렇지 않다' 7.4%, '전혀 그렇지 않다' 2.8% 순이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전라북도민의 인정에 대해서 남자는 63.1%, 여자는 58.3%로 긍정적인 답변을 나타냈다. 여자보다 남자가 4.8% 더 높은 긍정 의견을 보였다.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만 30대 집단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대체로 그렇다'는 의견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만 30대 집단은 '보통이다'가 37.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에서는 정읍시가 '그렇다' 관련 응답이 72.8%로 가장 높았다.

[표 3-63] 전라북도 도민의 애향심에 대한 인식

	사례수	전라북도 사람들은 애향심이 강하다.					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1000)	2.1	12.1	34.4	41.6	9.8	100.0	
성별	남	(499)	1.8	13.6	33.7	40.3	10.6	100.0
	여	(501)	2.4	10.6	35.1	42.9	9.0	100.0
연령대	만 18~20대	(152)	2.6	13.8	32.9	39.5	11.2	100.0
	만 30대	(117)	0.9	19.7	35.0	35.0	9.4	100.0
	만 40대	(169)	3.6	10.7	42.0	34.3	9.5	100.0
	만 50대	(195)	4.1	11.8	38.5	36.9	8.7	100.0
	만 60대 이상	(367)	0.5	9.8	29.2	50.4	10.1	100.0
전라북도 지역	전주시 완산구	(187)	3.7	11.8	40.6	36.9	7.0	100.0
	전주시 덕진구	(172)	1.7	19.8	32.6	37.2	8.7	100.0
	군산시	(146)	2.7	9.6	34.2	42.5	11.0	100.0
	익산시	(154)	1.9	10.4	31.8	46.8	9.1	100.0
	정읍시	(59)	0.0	10.2	40.7	33.9	15.3	100.0
	남원시	(45)	0.0	8.9	35.6	51.1	4.4	100.0
	김제시	(47)	2.1	14.9	42.6	29.8	10.6	100.0
	완주군	(53)	0.0	11.3	28.3	47.2	13.2	100.0
	진안군	(15)	0.0	0.0	33.3	40.0	26.7	100.0
	무주군	(14)	7.1	7.1	14.3	42.9	28.6	100.0
	장수군	(12)	0.0	33.3	25.0	41.7	0.0	100.0
	임실군	(18)	0.0	11.1	50.0	33.3	5.6	100.0
	순창군	(18)	11.1	5.6	16.7	55.6	11.1	100.0
	고창군	(30)	0.0	13.3	30.0	50.0	6.7	100.0
	부안군	(30)	0.0	0.0	23.3	63.3	13.3	100.0

전라북도민의 애향심의 강한 정도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2.1%, '별로 그렇지 않다' 12.1%, '보통이다' 34.4%, '대체로 그렇다' 41.6%, '매우 그렇다' 9.8% 등이었다. '그렇다'는 편이 51.4%로 전라북도민은 애향심이 강하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전라북도 사람들은 애향심이 강하다 의견은 만 60대 이상이 60.5%로 가장 높았다.

전라북도 지역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전라북도의 6개의 시에서는 익산시 55.9%, 남원시 55.5%, 군산시 53.5% 순으로 애향심이 강하다고 생각했으며, 전라북도의 8개의 군에서 부안군 76.6%, 진안군·순창군 66.7%, 완주군 60.4% 순으로 전라북도민의 애향심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64] 전라북도 도민의 단결심에 대한 인식

	시려수	전라북도 사람들은 단결력이 강하다.					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1000)	4.2	19.0	35.9	32.9	8.0	100.0	
성별	남	(499)	4.2	21.6	35.5	29.9	8.8	100.0
	여	(501)	4.2	16.4	36.3	35.9	7.2	100.0
연령대	만 18-20대	(152)	3.3	15.1	22.4	46.1	13.2	100.0
	만 30대	(117)	7.7	23.1	36.8	23.9	8.5	100.0
	만 40대	(169)	4.7	16.6	45.6	29.6	3.6	100.0
	만 50대	(195)	4.6	27.7	46.7	15.9	5.1	100.0
	만 60대 이상	(367)	3.0	15.8	31.1	40.9	9.3	100.0
전라북도 지역	전주시 완산구	(187)	7.5	23.5	38.5	25.7	4.8	100.0
	전주시 덕진구	(172)	4.1	23.3	37.8	27.3	7.6	100.0
	군산시	(146)	2.7	15.8	30.8	42.5	8.2	100.0
	익산시	(154)	3.2	13.0	37.0	38.3	8.4	100.0
	정읍시	(59)	1.7	20.3	30.5	40.7	6.8	100.0
	남원시	(45)	2.2	22.2	40.0	28.9	6.7	100.0
	김제시	(47)	4.3	25.5	29.8	21.3	19.1	100.0
	완주군	(53)	5.7	11.3	30.2	39.6	13.2	100.0
	진안군	(15)	6.7	20.0	46.7	20.0	6.7	100.0
	무주군	(14)	7.1	21.4	21.4	35.7	14.3	100.0
	장수군	(12)	8.3	25.0	41.7	25.0	0.0	100.0
	임실군	(18)	0.0	16.7	50.0	33.3	0.0	100.0
	순창군	(18)	11.1	11.1	33.3	38.9	5.6	100.0
	고창군	(30)	0.0	20.0	43.3	33.3	3.3	100.0
	부안군	(30)	0.0	10.0	36.7	36.7	16.7	100.0

‘전라북도 사람들은 단결력이 강하다’에 대해 ‘보통이다’ 35.9%, ‘대체로 그렇다’ 32.9%, ‘별로 그렇지 않다’ 19.0%, ‘매우 그렇다’ 8.0%, ‘전혀 그렇지 않다’ 4.2% 등의 순으로 응답하여, 단결력이 강하다는 의견이 총 40.9%로 해당 질문에 대해 긍정적인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단결력이 강하다는 답변이 여자 43.1%, 남자 38.7%로 여자가 남자보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어서 여자는 ‘보통이다’ 36.3%, ‘별로 그렇지 않다’ 16.4%, ‘전혀 그렇지 않다’ 4.2% 등이었다.

전라북도 지역별로 ‘전라북도민은 단결력이 강하다’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는 순창군 11.1%로 가장 많았고, ‘별로 그렇지 않다’는 김제시 25.5%, ‘보통이다’는 임실군 50.0%, ‘대체로 그렇다’는 군산시 42.5%, ‘매우 그렇다’는 김제시가 19.1%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표 3-65] 전라북도 도민의 신뢰정도에 대한 인식

구분	사례수	전라북도 사람들은 신뢰할 수 있다.					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1000)	2.9	11.3	42.7	37.1	6.0	100.0	
성별	남	(499)	2.8	11.8	41.7	35.5	8.2	100.0
	여	(501)	3.0	10.8	43.7	38.7	3.8	100.0
연령대	만 18~20대	(152)	1.3	8.6	41.4	38.2	10.5	100.0
	만 30대	(117)	6.8	12.8	49.6	24.8	6.0	100.0
	만 40대	(169)	4.1	13.0	46.2	32.5	4.1	100.0
	만 50대	(195)	3.6	14.9	47.2	28.2	6.2	100.0
	만 60대 이상	(367)	1.4	9.3	37.1	47.4	4.9	100.0
전라북도 지역	전주시 완산구	(187)	5.9	10.2	48.1	32.1	3.7	100.0
	전주시 덕진구	(172)	3.5	12.8	52.3	27.3	4.1	100.0
	군산시	(146)	2.1	11.6	39.0	40.4	6.8	100.0
	익산시	(154)	1.9	12.3	34.4	44.8	6.5	100.0
	정읍시	(59)	0.0	11.9	45.8	35.6	6.8	100.0
	남원시	(45)	6.7	15.6	35.6	33.3	8.9	100.0
	김제시	(47)	0.0	8.5	48.9	38.3	4.3	100.0
	완주군	(53)	1.9	11.3	32.1	47.2	7.5	100.0
	진안군	(15)	0.0	6.7	46.7	46.7	0.0	100.0
	무주군	(14)	7.1	0.0	35.7	42.9	14.3	100.0
	장수군	(12)	0.0	8.3	66.7	16.7	8.3	100.0
	임실군	(18)	0.0	22.2	38.9	33.3	5.6	100.0
	순창군	(18)	5.6	0.0	38.9	50.0	5.6	100.0
	고창군	(30)	0.0	13.3	33.3	46.7	6.7	100.0
	부안군	(30)	0.0	6.7	33.3	43.3	16.7	100.0

전라북도민에 대해 신뢰할 수 있냐는 것에 대해 신뢰할 수 있다는 답변이 총 43.1%, 보통이라는 답변이 42.7%로 긍정적인 답변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으나, 보통이라는 응답과 차이가 0.4%로 매우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만 60대 이상이 52.3%로 신뢰 가능성이 가장 높았고, 만 18~20대 48.7%, 만 40대 36.6%, 만 50대 34.4%, 만 30대 30.8% 등의 순으로 전라북도민을 신뢰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전라북도 지역별 분석결과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15% 미만으로 나타나 '보통이다'와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는 의견 80% 이상을 보였지만, 남원시(22.3%)와 임실군(22.2%)은 그렇지 않다 편의 응답이 20%를 넘어 긍정의견이 70%대로 나타났다.

[표 3-66] 전라북도 도민의 적극성에 대한 인식

구분	사례수	전라북도 사람들은 적극적이다.					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1000)	6.1	23.8	35.4	31.1	3.6	100.0	
성별	남	(499)	4.8	27.3	34.1	29.3	4.6	100.0
	여	(501)	7.4	20.4	36.7	32.9	2.6	100.0
연령대	만 18~20대	(152)	3.9	19.1	28.9	44.1	3.9	100.0
	만 30대	(117)	11.1	35.0	36.8	11.1	6.0	100.0
	만 40대	(169)	7.7	21.3	50.3	18.9	1.8	100.0
	만 50대	(195)	8.7	29.2	45.1	13.3	3.6	100.0
	만 60대 이상	(367)	3.3	20.4	25.6	47.1	3.5	100.0
전북지역	전주시 완산구	(187)	9.6	29.4	34.8	23.0	3.2	100.0
	전주시 덕진구	(172)	9.3	31.4	39.0	17.4	2.9	100.0
	군산시	(146)	2.1	21.9	32.9	39.7	3.4	100.0
	익산시	(154)	5.2	15.6	33.8	42.2	3.2	100.0
	정읍시	(59)	1.7	28.8	40.7	23.7	5.1	100.0
	남원시	(45)	6.7	17.8	42.2	31.1	2.2	100.0
	김제시	(47)	6.4	17.0	42.6	31.9	2.1	100.0
	완주군	(53)	7.5	24.5	24.5	37.7	5.7	100.0
	진안군	(15)	0.0	26.7	33.3	40.0	0.0	100.0
	무주군	(14)	14.3	14.3	35.7	35.7	0.0	100.0
	장수군	(12)	0.0	33.3	41.7	16.7	8.3	100.0
	임실군	(18)	5.6	22.2	33.3	33.3	5.6	100.0
	순창군	(18)	11.1	11.1	44.4	33.3	0.0	100.0
	고창군	(30)	0.0	20.0	33.3	40.0	6.7	100.0
	부안군	(30)	0.0	16.7	23.3	50.0	10.0	100.0

전라북도민의 적극성에 대해 ‘보통이다’라고 35.4%가 가장 높게 응답하여, 적극성은 보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적극적이라는 편이 총 34.7%, 그렇지 않다는 편이 29.9%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여성이 ‘그렇다’ 비율이 35.5%로, 남성 ‘33.9%보다 근소하게 높았으며, 연령대에서는 만 60대 이상의 ‘그렇다’ 비율이 50.6%로 가장 높았다.

전라북도 지역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전라북도민의 적극성에 대해 ‘보통이다’라는 의견보다 그렇다는 의견이 많은 지역은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 진안군, 임실군, 고창군, 부안군이었다. 특히, 부안군은 그렇다는 의견이 60.0%로 가장 높은 긍정 의견을 보였다.

[표 3-67] 전라북도 도민의 포용력에 대한 인식

		시·군·구	전라북도 사람들은 포용력이 강하다.				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1000)	4.7	17.0	42.3	32.5	3.5	100.0
성별	남	(499)	5.2	18.0	39.7	32.7	4.4	100.0
	여	(501)	4.2	16.0	44.9	32.3	2.6	100.0
연령대	만 18~20대	(152)	2.6	14.5	34.9	41.4	6.6	100.0
	만 30대	(117)	10.3	19.7	47.0	17.1	6.0	100.0
	만 40대	(169)	5.9	21.3	47.3	24.3	1.2	100.0
	만 50대	(195)	5.6	21.0	45.1	25.1	3.1	100.0
전북지역	만 60대 이상	(367)	2.7	13.1	40.1	41.4	2.7	100.0
	전주시 완산구	(187)	5.9	16.6	46.5	24.6	6.4	100.0
	전주시 덕진구	(172)	5.2	20.3	48.3	22.7	3.5	100.0
	군산시	(146)	4.1	19.2	36.3	38.4	2.1	100.0
	익산시	(154)	5.2	14.9	35.7	41.6	2.6	100.0
	정읍시	(59)	1.7	13.6	39.0	44.1	1.7	100.0
	남원시	(45)	8.9	8.9	57.8	17.8	6.7	100.0
	김제시	(47)	2.1	17.0	46.8	29.8	4.3	100.0
	완주군	(53)	1.9	24.5	35.8	35.8	1.9	100.0
	진안군	(15)	6.7	20.0	53.3	20.0	0.0	100.0
	무주군	(14)	7.1	21.4	35.7	21.4	14.3	100.0
	장수군	(12)	8.3	33.3	33.3	25.0	0.0	100.0
	임실군	(18)	5.6	11.1	33.3	50.0	0.0	100.0
	순창군	(18)	5.6	11.1	44.4	38.9	0.0	100.0
	고창군	(30)	3.3	16.7	43.3	33.3	3.3	100.0
	부안군	(30)	0.0	3.3	36.7	60.0	0.0	100.0

전라북도민의 포용력에 대한 생각은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42.3%로 가장 높았고, ‘대체로 그렇다’ 32.5%, ‘별로 그렇지 않다’ 17.0%, ‘전혀 그렇지 않다’ 4.7%, ‘매우 그렇다’ 3.5%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 남성(37.1%)이 여성(34.9%)보다 근소하게 높았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만 18~20대는 ‘보통이다’ 34.9%보다 ‘대체로 그렇다·매우 그렇다’가 48.0%로 포용력이 강하다는 의견이 더 많았고, 만 60대 이상에서도 ‘보통이다’ 40.1%보다 ‘대체로 그렇다·매우 그렇다’가 44.1%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안군은 ‘대체로 그렇다’는 의견이 60.0%, ‘보통이다’ 36.7%, ‘별로 그렇지 않다’ 3.3%로 전라북도민은 포용력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3-68] 대한민국 국민과 전라북도 도민으로서의 자긍심 정도

구분	사례수	나는 대한민국 사람인 것이 자랑스롭다	내 자손도 대한민국 에서 살기를 바란다	대한민국은 살기 좋은 곳이다	
		5점 평균	5점 평균	5점 평균	
전체	(1000)	3.81	3.74	3.64	
성 별	남	(499)	3.83	3.82	3.67
	여	(501)	3.79	3.66	3.60
연 령 대	만 18~20대	(152)	3.87	3.78	3.60
	만 30대	(117)	3.77	3.65	3.50
	만 40대	(169)	3.76	3.70	3.65
	만 50대	(195)	3.84	3.81	3.69
	만 60대 이상	(367)	3.81	3.73	3.66
전 라 북 도 지 역	전주시 완산구	(187)	3.90	3.85	3.67
	전주시 덕진구	(172)	3.85	3.73	3.76
	군산시	(146)	3.73	3.69	3.51
	익산시	(154)	3.61	3.59	3.53
	정읍시	(59)	3.80	3.93	3.59
	남원시	(45)	3.89	3.60	3.51
	김제시	(47)	3.98	3.72	3.77
	완주군	(53)	3.83	3.68	3.72
	진안군	(15)	4.13	3.87	4.00
	무주군	(14)	3.93	3.36	3.79
	장수군	(12)	3.58	3.83	3.58
	임실군	(18)	4.06	4.28	3.50
	순창군	(18)	3.83	3.83	3.61
	고창군	(30)	3.77	3.70	3.67
	부안군	(30)	3.87	3.77	3.57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일 경우 ‘나는 대한민국 사람인 것이 자랑스롭다’ 3.81점, ‘내 자손도 대한민국에서 살기를 바란다’ 3.74점, ‘대한민국은 살기 좋은 곳이다’ 3.64점의 순이었다. 성별일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3가지 질문에 대한 응답 평균값이 높았다.

연령대일 경우 만 18~20대가 ‘나는 대한민국 사람인 것이 자랑스롭다’에 3.87점, 만 50대는 ‘내자손도 대한민국에서 살기를 바란다’ 3.81점과 ‘대한민국은 살기 좋은 곳이다’ 3.69점으로 다른 연령대보다 응답점수가 높았다.

전라북도 지역에서 진안군이 ‘나는 대한민국 사람인 것이 자랑스롭다’ 4.13점, ‘대한민국은 살기 좋은 곳이다’ 4.00점으로 다른 시군보다 응답 평균점수가 높았고, 임실군은 ‘내 자손도 대한민국에서 살기를 바란다’ 4.28점으로 다른 시군보다 응답 평균점수가 높았다.

[표 3-69]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에 대한 인식

구분	사려수	나는 대한민국 사람인 것이 자랑스롭다.					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1000)	0.6	5.6	24.7	50.2	18.9	100.0	
성별	남	(499)	0.8	4.8	24.8	49.3	20.2	100.0
	여	(501)	0.4	6.4	24.6	51.1	17.6	100.0
연령대	만 18~20대	(152)	0.7	2.6	26.3	50.0	20.4	100.0
	만 30대	(117)	0.0	7.7	28.2	43.6	20.5	100.0
	만 40대	(169)	2.4	4.1	30.8	40.2	22.5	100.0
	만 50대	(195)	0.5	6.2	23.6	48.2	21.5	100.0
	만 60대 이상	(367)	0.0	6.5	20.7	58.0	14.7	100.0
전북지역	전주시 완산구	(187)	0.0	4.3	25.1	47.1	23.5	100.0
	전주시 덕진구	(172)	0.0	4.7	27.9	44.8	22.7	100.0
	군산시	(146)	0.7	6.8	26.0	52.1	14.4	100.0
	익산시	(154)	1.9	9.7	26.6	48.7	13.0	100.0
	정읍시	(59)	0.0	5.1	23.7	57.6	13.6	100.0
	남원시	(45)	0.0	8.9	20.0	44.4	26.7	100.0
	김제시	(47)	0.0	2.1	23.4	48.9	25.5	100.0
	완주군	(53)	1.9	1.9	20.8	62.3	13.2	100.0
	진안군	(15)	0.0	6.7	0.0	66.7	26.7	100.0
	무주군	(14)	0.0	0.0	28.6	50.0	21.4	100.0
	장수군	(12)	0.0	16.7	16.7	58.3	8.3	100.0
	임실군	(18)	0.0	0.0	22.2	50.0	27.8	100.0
	순창군	(18)	0.0	5.6	22.2	55.6	16.7	100.0
	고창군	(30)	3.3	3.3	26.7	46.7	20.0	100.0
	부안군	(30)	0.0	3.3	20.0	63.3	13.3	100.0

‘나는 대한민국 사람인 것이 자랑스롭다’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의견이 총 69.1%의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 중에서 ‘그렇다’ 관련 응답은 타 응답들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성별로는 남자는 ‘자랑스롭다’는 의견이 총 69.5%, ‘보통이다’ 24.8%, ‘자랑스롭지 않다’는 의견이 5.6% 였고, 여자는 ‘자랑스롭다’는 의견이 총 68.7%, ‘보통이다’ 24.6%, ‘자랑스롭지 않다’는 의견이 6.8%를 보이며 남녀 간의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로 분석해본 결과, ‘자랑스롭다’고 답한 응답은 만 60대 이상 집단이 72.7%, 만 18~20대 70.4%, 만 50대 이상 69.7%, 만 30대 64.1%, 만 40대 62.7% 순이었다. 지역에서는 진안군이 ‘그렇다’ 비율이 93.4% 비율로 가장 높았다.

[표 3-70] 내 자녀의 대한민국에서의 거주에 대한 인식

		사례수	내 자손도 대한민국에서 살기를 바란다.					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1000)	1.6	7.4	24.4	48.8	17.8	100.0
성별	남	(499)	1.2	6.4	21.4	51.1	19.8	100.0
	여	(501)	2.0	8.4	27.3	46.5	15.8	100.0
연령대	만 18~20대	(152)	2.0	3.3	25.0	54.6	15.1	100.0
	만 30대	(117)	0.9	12.0	28.2	39.3	19.7	100.0
	만 40대	(169)	3.6	7.1	27.2	39.6	22.5	100.0
	만 50대	(195)	0.0	8.2	24.6	45.1	22.1	100.0
	만 60대 이상	(367)	1.6	7.4	21.5	55.6	13.9	100.0
전라북도 지역	전주시 완산구	(187)	0.5	7.5	23.0	44.4	24.6	100.0
	전주시 덕진구	(172)	1.2	6.4	30.2	43.0	19.2	100.0
	군산시	(146)	2.7	5.5	24.0	55.5	12.3	100.0
	익산시	(154)	2.6	9.1	29.2	44.8	14.3	100.0
	정읍시	(59)	0.0	10.2	6.8	62.7	20.3	100.0
	남원시	(45)	2.2	8.9	31.1	42.2	15.6	100.0
	김제시	(47)	2.1	8.5	25.5	42.6	21.3	100.0
	완주군	(53)	0.0	5.7	32.1	50.9	11.3	100.0
	진안군	(15)	6.7	0.0	6.7	73.3	13.3	100.0
	무주군	(14)	0.0	21.4	28.6	42.9	7.1	100.0
	장수군	(12)	0.0	8.3	16.7	58.3	16.7	100.0
	임실군	(18)	0.0	0.0	11.1	50.0	38.9	100.0
	순창군	(18)	5.6	11.1	11.1	38.9	33.3	100.0
	고창군	(30)	3.3	6.7	20.0	56.7	13.3	100.0
	부안군	(30)	0.0	6.7	16.7	70.0	6.7	100.0

‘내 자손도 대한민국에서 살기를 바란다’에 대해 ‘대체로 그렇다’ 48.8%, ‘보통이다’ 24.4%, ‘매우 그렇다’ 17.8%, ‘별로 그렇지 않다’ 7.4%, ‘전혀 그렇지 않다’ 1.6% 순으로 높았다.

성별로 살펴본 결과, 대한민국에서 살기를 바란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으나, 남자 70.9%, 여자 62.3%로 남녀 간에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해당 질문에 대해 가장 긍정적인 응답률은 보인 지역은 임실군이 88.9%로 매우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이어서 진안군 86.6%, 정읍시 83.0%, 부안군 76.7%, 순창군 72.2% 등의 순으로 높았다. 무주군 50.0%를 제외하고는 상대적으로 시 지역보다 군 지역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3-71] 대한민국의 거주환경에 대한 인식

	사례수	대한민국은 살기 좋은 곳이다.					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1000)	1.3	7.2	32.7	44.3	14.5	100.0	
성별	남	(499)	0.8	7.0	31.3	45.9	15.0	100.0
	여	(501)	1.8	7.4	34.1	42.7	14.0	100.0
연령대	만 18~20대	(152)	0.7	5.9	40.1	39.5	13.8	100.0
	만 30대	(117)	2.6	12.0	29.9	44.4	11.1	100.0
	만 40대	(169)	3.0	6.5	27.8	47.9	14.8	100.0
	만 50대	(195)	1.5	7.2	29.7	44.1	17.4	100.0
	만 60대 이상	(367)	0.3	6.5	34.3	44.7	14.2	100.0
전북지역	전주시 완산구	(187)	0.0	9.6	31.0	42.2	17.1	100.0
	전주시 덕진구	(172)	0.0	8.1	26.2	47.1	18.6	100.0
	군산시	(146)	2.1	5.5	40.4	43.2	8.9	100.0
	익산시	(154)	3.9	5.8	38.3	37.0	14.9	100.0
	정읍시	(59)	1.7	8.5	30.5	47.5	11.9	100.0
	남원시	(45)	0.0	11.1	35.6	44.4	8.9	100.0
	김제시	(47)	0.0	4.3	29.8	51.1	14.9	100.0
	완주군	(53)	1.9	5.7	20.8	62.3	9.4	100.0
	진안군	(15)	0.0	6.7	20.0	40.0	33.3	100.0
	무주군	(14)	0.0	0.0	35.7	50.0	14.3	100.0
	장수군	(12)	0.0	16.7	16.7	58.3	8.3	100.0
	임실군	(18)	5.6	11.1	33.3	27.8	22.2	100.0
	순창군	(18)	0.0	5.6	44.4	33.3	16.7	100.0
	고창군	(30)	3.3	3.3	33.3	43.3	16.7	100.0
	부안군	(30)	0.0	3.3	43.3	46.7	6.7	100.0

‘대한민국은 살기 좋은 곳이다’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의견이 58.8%로 가장 높았고, ‘보통이다’ 32.7%,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8.5% 수준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그렇다는 의견이 남자 60.9%, 여자 56.7%로 남자가 4.2% 더 대한민국은 살기 좋은 곳이라고 응답했다.

연령대별로 모든 연령대에서 그렇다는 의견이 과반이 넘었고, 그렇지 않다는 의견은 10% 미만이었지만, 만 30대 집단에서만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14.6%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서 진안군이 그렇다 비중이 73.3%로 가장 높았으며, 시보다는 군에서 대체적으로 ‘그렇다’라는 비율이 60%를 넘겨 군민이 시민보다 대한민국은 살기 좋은 곳이라고 평가했다.

6. 사회활동 참여와 공동체성

지역내 모임과 단체참여 여부에 '참여한다' 응답이 59.9%로 '참여하지 않는다' 40.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이 여성보다 지역 내 모임 또는 단체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일 경우 만 50대와 만 60대 이상이 지역 내 모임 또는 단체 참여에 차례로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만 30대는 연령대에서 지역 내 모임 또는 단체 참여에 가장 적게 참여했다. 전라북도 지역에서 부안군이 83.3%로 다른 시군에 비해 지역 내 모임 또는 단체에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72] 현재 지역모임이나 단체의 참여여부

구분	사례수	지역 내 모임 또는 단체참여 여부		계	
		참여하지 않는다	참여한다		
전체	(1000)	40.1	59.9	100.0	
성별	남	(499)	36.1	63.9	100.0
	여	(501)	44.1	55.9	100.0
연령대	만 18~20대	(152)	51.3	48.7	100.0
	만 30대	(117)	68.4	31.6	100.0
	만 40대	(169)	40.8	59.2	100.0
	만 50대	(195)	29.2	70.8	100.0
	만 60대 이상	(367)	31.9	68.1	100.0
전북 지역	전주시 완산구	(187)	46.0	54.0	100.0
	전주시 덕진구	(172)	45.3	54.7	100.0
	군산시	(146)	41.1	58.9	100.0
	익산시	(154)	46.1	53.9	100.0
	정읍시	(59)	37.3	62.7	100.0
	남원시	(45)	22.2	77.8	100.0
	김제시	(47)	27.7	72.3	100.0
	완주군	(53)	39.6	60.4	100.0
	진안군	(15)	33.3	66.7	100.0
	무주군	(14)	35.7	64.3	100.0
	장수군	(12)	25.0	75.0	100.0
	임실군	(18)	27.8	72.2	100.0
	순창군	(18)	33.3	66.7	100.0
	고창군	(30)	36.7	63.3	100.0
	부안군	(30)	16.7	83.3	100.0

[표 3-73] 현재 참여하고 있는 모임이나 단체의 개수

구분		사례수	참여단체 수
			평균(개)
전체		(599)	2.76
성별	남	(319)	2.99
	여	(280)	2.51
연령대	만 18~20대	(74)	1.66
	만 30대	(37)	2.43
	만 40대	(100)	2.53
	만 50대	(138)	3.57
	만 60대 이상	(250)	2.79
전북 지역	전주시 완산구	(101)	3.02
	전주시 덕진구	(94)	2.52
	군산시	(86)	2.56
	익산시	(83)	2.48
	정읍시	(37)	3.41
	남원시	(35)	2.89
	김제시	(34)	3.03
	완주군	(32)	2.38
	진안군	(10)	2.60
	무주군	(9)	3.22
	장수군	(9)	2.67
	임실군	(13)	3.62
	순창군	(12)	2.50
	고창군	(19)	3.16
	부안군	(25)	2.64

지역내 모임과 단체참여 여부에 '참여한다' 응답을 한 사람을 대상으로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서 몇 개의 모임 또는 단체에 참여하는지 참여 단체수를 조사한 결과 전체 평균은 2.76개로 나타났다.

남성이 2.99개로 여성보다 참여단체 수가 많았으며, 연령대에서는 만 50대와 만 60대 이상이 차례로 참여단체 수가 많았다. 그리고 만 18~20대가 참여단체 수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 지역일 경우 임실군이 3.62개로 가장 많은 반면, 완주군은 2.38개로 가장 적었다.

[표 3-74] 지난 1년간의 개인 및 단체에 기부여부

구분		사례수	지난 1년 간 개인 또는 단체 기부 여부		계
			안했다	했다	
전체		(1000)	53.5	46.5	100.0
성별	남	(499)	47.5	52.5	100.0
	여	(501)	59.5	40.5	100.0
연령대	만 18~20대	(152)	73.0	27.0	100.0
	만 30대	(117)	53.8	46.2	100.0
	만 40대	(169)	40.8	59.2	100.0
	만 50대	(195)	28.7	71.3	100.0
	만 60대 이상	(367)	64.3	35.7	100.0
전북 지역	전주시 완산구	(187)	44.9	55.1	100.0
	전주시 덕진구	(172)	44.8	55.2	100.0
	군산시	(146)	58.9	41.1	100.0
	익산시	(154)	66.2	33.8	100.0
	정읍시	(59)	50.8	49.2	100.0
	남원시	(45)	51.1	48.9	100.0
	김제시	(47)	51.1	48.9	100.0
	완주군	(53)	60.4	39.6	100.0
	진안군	(15)	53.3	46.7	100.0
	무주군	(14)	28.6	71.4	100.0
	장수군	(12)	50.0	50.0	100.0
	임실군	(18)	61.1	38.9	100.0
	순창군	(18)	66.7	33.3	100.0
	고창군	(30)	56.7	43.3	100.0
	부안군	(30)	63.3	36.7	100.0

지난 1년간 개인이나 단체에 기부 여부에 대해 ‘안했다’ 53.5% 응답이 ‘했다’의 46.5% 응답보다 더 높았다. 성별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기부를 한 비율이 더 높았다.

연령대일 경우 만 50대가 71.3%로 연령대에서 가장 많이 기부를 한 연령층이며, 만 18~20대는 27.0%로 연령대 중에서 가장 낮았다. 전라북도 지역일 경우 무주군이 71.4%로 시군 중에서 지난 1년간 개인 또는 단체에 가장 많이 기부했으며, 순창군이 33.3%로 가장 적게 기부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75] 지난 1년간 개인 및 단체 대상 평균 기부금액

구분		사례수	기부금액
			평균(만원)
전체		(465)	112.21
성별	남	(262)	130.16
	여	(203)	89.04
연령대	만 18~20대	(41)	29.00
	만 30대	(54)	83.78
	만 40대	(100)	120.15
	만 50대	(139)	139.96
	만 60대 이상	(131)	114.46
전북 지역	전주시 완산구	(103)	128.55
	전주시 덕진구	(95)	108.87
	군산시	(60)	87.02
	익산시	(52)	73.33
	정읍시	(29)	120.83
	남원시	(22)	96.41
	김제시	(23)	148.04
	완주군	(21)	156.52
	진안군	(7)	90.71
	무주군	(10)	141.80
	장수군	(6)	47.33
	임실군	(7)	351.43
	순창군	(6)	90.00
	고창군	(13)	66.46
	부안군	(11)	94.64

지난 1년간 개인이나 단체에 기부를 한 사람을 대상으로 기부금액을 조사한 결과 평균 112.21만원으로 나타났다. 성별일 경우 남성이 130.16만원으로 여성 89.04만원보다 훨씬 높았다.

연령대일 경우 만 50대가 139.96만원으로 가장 많이 기부를 한 반면 만 18~20대는 평균 29.00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전라북도 지역에서는 임실군이 평균금액 351.43만원으로 다른 시군보다 월등히 높았으며, 장수군이 47.33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표 3-76] 지난 1년간 공연 및 전시관람 이용정도

구분	사례수	공연, 전시관람 이용정도					계	
		없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상		
전체	(1000)	40.5	14.2	18.3	12.9	14.1	100.0	
성별	남	(499)	36.9	16.4	18.8	14.2	13.6	100.0
	여	(501)	44.1	12.0	17.8	11.6	14.6	100.0
연령대	만 18~20대	(152)	34.2	20.4	26.3	10.5	8.6	100.0
	만 30대	(117)	27.4	13.7	28.2	18.8	12.0	100.0
	만 40대	(169)	23.7	21.9	15.4	18.3	20.7	100.0
	만 50대	(195)	28.2	15.4	19.5	14.9	22.1	100.0
	만 60대 이상	(367)	61.6	7.6	12.5	8.4	9.8	100.0
전북 지역	전주시 완산구	(187)	32.6	14.4	24.6	11.2	17.1	100.0
	전주시 덕진구	(172)	30.8	16.9	17.4	14.5	20.3	100.0
	군산시	(146)	48.6	15.1	15.1	13.0	8.2	100.0
	익산시	(154)	51.3	14.3	15.6	11.7	7.1	100.0
	정읍시	(59)	35.6	11.9	18.6	13.6	20.3	100.0
	남원시	(45)	42.2	20.0	15.6	11.1	11.1	100.0
	김제시	(47)	40.4	19.1	19.1	10.6	10.6	100.0
	완주군	(53)	52.8	11.3	9.4	13.2	13.2	100.0
	진안군	(15)	40.0	26.7	6.7	13.3	13.3	100.0
	무주군	(14)	28.6	0.0	35.7	35.7	0.0	100.0
	장수군	(12)	33.3	8.3	25.0	16.7	16.7	100.0
	임실군	(18)	27.8	5.6	16.7	11.1	38.9	100.0
	순창군	(18)	33.3	5.6	44.4	0.0	16.7	100.0
	고창군	(30)	46.7	6.7	16.7	20.0	10.0	100.0
	부안군	(30)	50.0	6.7	13.3	13.3	16.7	100.0

문화/여가 관련 시설 이용정도 중 공연·전시관람 이용정도에서 ‘없음’이 40.5%로 가장 높았으며, ‘두 번’ 18.3%, ‘한 번’ 14.2%, ‘네 번 이상’ 14.1%, ‘세 번’ 12.9%의 순이었다. 성별로 보면 대체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각 항목별 비중이 높았다.

연령대에서 만 30대만이 ‘없음’ 대신 ‘두 번’ 응답이 가장 높았다. 만 60대 이상 연령대는 ‘없음’ 비율이 61.6%로 다른 연령대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전라북도 지역에서 순창군이 ‘두 번’ 비중이 다른 시군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임실군은 ‘없음’ 비중이 다른 시군에 비해 가장 낮았는데 비해 ‘네 번 이상’의 비율은 다른 시군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77] 공연 및 전시관람 이용만족도

구분		사례수	공연, 전시관람 이용 만족도					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전체		(1000)	1.2	4.2	46.2	40.3	8.1	100.0
성별	남	(499)	1.0	3.8	47.0	42.2	6.0	100.0
	여	(501)	1.4	4.6	45.4	38.2	10.4	100.0
연령대	만 18~20대	(152)	1.0	3.0	47.0	44.0	5.0	100.0
	만 30대	(117)	1.2	11.8	43.5	35.3	8.2	100.0
	만 40대	(169)	1.6	3.1	41.1	41.1	13.2	100.0
	만 50대	(195)	2.1	3.6	40.0	46.4	7.9	100.0
	만 60대 이상	(367)	0.0	2.1	58.2	34.0	5.7	100.0
전북 지역	전주시 완산구	(187)	1.6	4.0	49.2	37.3	7.9	100.0
	전주시 덕진구	(172)	1.7	3.4	33.6	48.7	12.6	100.0
	군산시	(146)	1.3	6.7	45.3	42.7	4.0	100.0
	익산시	(154)	2.7	6.7	46.7	36.0	8.0	100.0
	정읍시	(59)	0.0	2.6	55.3	26.3	15.8	100.0
	남원시	(45)	0.0	11.5	42.3	38.5	7.7	100.0
	김제시	(47)	0.0	0.0	60.7	39.3	0.0	100.0
	완주군	(53)	0.0	0.0	48.0	44.0	8.0	100.0
	진안군	(15)	0.0	0.0	44.4	44.4	11.1	100.0
	무주군	(14)	0.0	0.0	70.0	10.0	20.0	100.0
	장수군	(12)	0.0	0.0	50.0	50.0	0.0	100.0
	임실군	(18)	0.0	0.0	76.9	23.1	0.0	100.0
	순창군	(18)	0.0	0.0	83.3	16.7	0.0	100.0
	고창군	(30)	0.0	6.3	25.0	62.5	6.3	100.0
	부안군	(30)	0.0	6.7	26.7	66.7	0.0	100.0

‘공연, 전시 관람’ 이용 관련 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불만족’ 1.2%, ‘불만족’ 4.2%, ‘보통’ 46.2%, ‘만족’ 40.3%, ‘매우 만족’ 8.1% 등으로 나타났고, 만족하는 편이 48.4%, 불만족하는 편이 5.4%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에서 만 60대 이상만 만족하는 편 39.7% 보다 ‘보통’ 의견이 58.2%로 더 높게 나타났고,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보통이라는 의견보다 만족하는 편이 더 높았다.

전라북도 지역에서 순창군이 보통 비율이 83.3%였으며, 만족비율이 전체 시군 중에서 가장 낮았다.

[표 3-78] 지난 1년간 영화관람 정도

구분	사례수	영화보기 이용 정도					계	
		없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상		
전체	(1000)	18.6	17.0	23.9	17.1	23.4	100.0	
성별	남	(499)	17.6	12.8	26.1	21.0	22.4	100.0
	여	(501)	19.6	21.2	21.8	13.2	24.4	100.0
연령대	만 18~20대	(152)	5.3	9.9	21.1	30.3	33.6	100.0
	만 30대	(117)	14.5	13.7	23.9	19.7	28.2	100.0
	만 40대	(169)	14.2	16.6	23.7	13.6	32.0	100.0
	만 50대	(195)	14.4	12.8	23.6	19.0	30.3	100.0
	만 60대 이상	(367)	29.7	23.4	25.3	11.4	10.1	100.0
전북 지역	전주시 완산구	(187)	16.6	18.2	19.3	17.6	28.3	100.0
	전주시 덕진구	(172)	15.1	16.9	24.4	16.3	27.3	100.0
	군산시	(146)	17.8	19.9	19.2	19.9	23.3	100.0
	익산시	(154)	24.0	14.9	31.8	16.2	13.0	100.0
	정읍시	(59)	15.3	15.3	30.5	13.6	25.4	100.0
	남원시	(45)	28.9	13.3	17.8	20.0	20.0	100.0
	김제시	(47)	21.3	14.9	23.4	14.9	25.5	100.0
	완주군	(53)	18.9	28.3	18.9	9.4	24.5	100.0
	진안군	(15)	33.3	6.7	26.7	26.7	6.7	100.0
	무주군	(14)	7.1	7.1	42.9	35.7	7.1	100.0
	장수군	(12)	16.7	16.7	16.7	8.3	41.7	100.0
	임실군	(18)	11.1	5.6	16.7	27.8	38.9	100.0
	순창군	(18)	11.1	11.1	38.9	11.1	27.8	100.0
	고창군	(30)	16.7	16.7	26.7	16.7	23.3	100.0
	부안군	(30)	23.3	20.0	23.3	16.7	16.7	100.0

문화/여가 관련 시설 이용정도 중 영화보기와 관련하여 ‘두 번’이 23.9%로 가장 높았으며, ‘네번 이상’ 23.4%, ‘없음’ 18.6%, ‘세 번’ 17.1%, ‘한 번’ 17.0% 순이었다. 성별로 보면 ‘한 번’ 정도에서 남녀 비율 차이가 가장 심했다.

연령대에서 만 60대 이상 만이 ‘네 번 이상’보다 ‘없음’이 1순위였으며, ‘세 번’이상일 경우부터 만 18~20대가 연령대 중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두 번’ 항목이 연령대별로 고르게 응답이 나왔다. 더불어 ‘없음’과 ‘네 번 이상’에서 만 60대와 만 18~20대의 차이가 가장 컸다.

전라북도 지역일 경우 진안군이 ‘없음’의 비율이 전체 시군에서 가장 비율이 높았고 ‘네 번 이상’의 비율도 가장 적었다.

[표 3-79] 영화관람 이용만족 정도

구분		사례수	영화보기 이용 만족도					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전체		(1000)	0.0	3.1	28.4	55.0	13.5	100.0
성별	남	(499)	0.0	2.2	27.3	58.2	12.4	100.0
	여	(501)	0.0	4.0	29.5	51.9	14.6	100.0
연령대	만 18~20대	(152)	0.0	2.1	18.8	68.8	10.4	100.0
	만 30대	(117)	0.0	4.0	33.0	47.0	16.0	100.0
	만 40대	(169)	0.0	4.8	26.9	46.2	22.1	100.0
	만 50대	(195)	0.0	2.4	21.6	58.1	18.0	100.0
	만 60대 이상	(367)	0.0	2.7	37.2	53.5	6.6	100.0
전북지역	전주시 완산구	(187)	0.0	3.2	26.9	51.3	18.6	100.0
	전주시 덕진구	(172)	0.0	2.1	26.0	54.1	17.8	100.0
	군산시	(146)	0.0	4.2	30.8	55.0	10.0	100.0
	익산시	(154)	0.0	2.6	35.0	55.6	6.8	100.0
	정읍시	(59)	0.0	4.0	28.0	48.0	20.0	100.0
	남원시	(45)	0.0	6.3	25.0	50.0	18.8	100.0
	김제시	(47)	0.0	5.4	27.0	62.2	5.4	100.0
	완주군	(53)	0.0	2.3	25.6	60.5	11.6	100.0
	진안군	(15)	0.0	0.0	40.0	40.0	20.0	100.0
	무주군	(14)	0.0	0.0	30.8	46.2	23.1	100.0
	장수군	(12)	0.0	0.0	10.0	80.0	10.0	100.0
	임실군	(18)	0.0	0.0	25.0	62.5	12.5	100.0
	순창군	(18)	0.0	6.3	31.3	50.0	12.5	100.0
	고창군	(30)	0.0	4.0	32.0	60.0	4.0	100.0
부안군	(30)	0.0	0.0	17.4	78.3	4.3	100.0	

‘영화보기’ 관련 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불만족’란 경우는 0%를 나타냈고, ‘불만족’ 3.1%, ‘보통’ 28.4%, ‘만족’ 55.0%, ‘매우 만족’ 13.5%를 나타냈다. 만족하는 편이 68.5%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불만족 한 편이 3.1%로 낮은 수준이었다. 성별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영화보기 이용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60% 이상이 만족하는 편으로 응답하였고, 만 18~20대 집단의 만족이 79.2%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지역별 만족도는 장수군이 90.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부안군 82.6%, 임실군 75.0%, 완주군 72.1% 등의 순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80] 지난 1년 간 문화여가활동 이용정도

구분	사례수	미술활동, 악기연주, 춤/무용, 사진촬영 이용정도					계	
		없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상		
전체	(1000)	56.6	11.6	13.6	6.2	12.0	1000	
성별	남	(499)	54.1	14.0	14.8	7.6	9.4	1000
	여	(501)	59.1	9.2	12.4	4.8	14.6	1000
연령대	만 18~20대	(152)	57.9	9.9	15.8	9.2	7.2	1000
	만 30대	(117)	45.3	23.9	14.5	7.7	8.5	1000
	만 40대	(169)	45.6	19.5	15.4	5.9	13.6	1000
	만 50대	(195)	46.2	8.2	14.4	10.8	20.5	1000
	만 60대 이상	(367)	70.3	6.5	11.2	2.2	9.8	100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187)	54.0	7.5	16.0	7.5	15.0	1000
	전주시 덕진구	(172)	45.3	16.3	15.7	8.1	14.5	1000
	군산시	(146)	64.4	13.0	11.0	6.2	5.5	1000
	익산시	(154)	66.2	8.4	11.7	3.9	9.7	1000
	정읍시	(59)	52.5	20.3	11.9	6.8	8.5	1000
	남원시	(45)	60.0	8.9	17.8	0.0	13.3	1000
	김제시	(47)	59.6	10.6	14.9	2.1	12.8	1000
	완주군	(53)	67.9	9.4	9.4	5.7	7.5	1000
	진안군	(15)	40.0	6.7	13.3	6.7	33.3	1000
	무주군	(14)	42.9	21.4	28.6	7.1	0.0	1000
	장수군	(12)	50.0	16.7	8.3	8.3	16.7	1000
	임실군	(18)	44.4	22.2	0.0	5.6	27.8	1000
	순창군	(18)	44.4	16.7	16.7	0.0	22.2	1000
	고창군	(30)	53.3	0.0	20.0	13.3	13.3	1000
	부안군	(30)	63.3	10.0	6.7	10.0	10.0	1000

문화/여가 관련 시설 이용정도 중 미술활동·악기연주·춤/무용·사진촬영 이용정도에서 '없음'이 56.6%로 가장 높았으며, '두 번' 13.6%, '네 번 이상' 12.0%, '한 번' 11.6%, '세 번' 6.2% 순이었다. 성별로 보면, '네 번 이상'에서 남녀간 응답비율 차이가 가장 컸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응답비율이 더 높았다.

연령대에서는 전체 연령이 미술활동·악기연주·춤/무용·사진촬영 이용정도에서 가장 많이 '없음'을 선택했으며, 그 중 만 60대의 응답비율이 70.3%로 가장 높았다. 만 50대가 '네 번 이상'에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응답비율이 높았다.

전라북도 지역일 경우에도 전체 시군이 미술활동·악기연주·춤/무용·사진촬영 이용정도에서 가장 많이 '없음'을 선택했으며, 그 중 완주군의 응답비율이 67.9%로 가장 높았다. 무주군이 미술활동·악기연주·춤/무용·사진촬영 이용정도에서 '두 번' 응답이 다른 시군에 비해 높았다.

[표 3-81] 문화여가활동 만족정도

구분	사례수	미술활동, 악기연주, 춤/무용, 사진촬영 이용 만족도					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전체	(1000)	0.7	8.1	47.0	32.9	11.3	100.0	
성별	남	(499)	0.9	6.1	52.0	29.3	11.8	100.0
	여	(501)	0.5	10.2	41.5	37.1	10.7	100.0
연령대	만 18~20대	(152)	0.0	7.8	45.3	32.8	14.1	100.0
	만 30대	(117)	1.6	10.9	53.1	21.9	12.5	100.0
	만 40대	(169)	0.0	8.7	53.3	28.3	9.8	100.0
	만 50대	(195)	1.9	3.8	28.6	52.4	13.3	100.0
	만 60대 이상	(367)	0.0	10.1	56.9	24.8	8.3	100.0
전라북도 지역	전주시 완산구	(187)	1.2	3.5	45.3	38.4	11.6	100.0
	전주시 덕진구	(172)	0.0	7.4	46.8	35.1	10.6	100.0
	군산시	(146)	1.9	5.8	46.2	36.5	9.6	100.0
	익산시	(154)	0.0	11.5	51.9	25.0	11.5	100.0
	정읍시	(59)	0.0	7.1	60.7	14.3	17.9	100.0
	남원시	(45)	0.0	11.1	55.6	27.8	5.6	100.0
	김제시	(47)	0.0	5.3	52.6	36.8	5.3	100.0
	완주군	(53)	0.0	0.0	41.2	41.2	17.6	100.0
	진안군	(15)	0.0	0.0	33.3	55.6	11.1	100.0
	무주군	(14)	0.0	50.0	37.5	12.5	0.0	100.0
	장수군	(12)	0.0	0.0	66.7	33.3	0.0	100.0
	임실군	(18)	0.0	10.0	40.0	10.0	40.0	100.0
	순창군	(18)	0.0	30.0	40.0	30.0	0.0	100.0
	고창군	(30)	7.1	14.3	21.4	42.9	14.3	100.0
	부안군	(30)	0.0	9.1	45.5	36.4	9.1	100.0

‘미술 활동, 악기연주, 춤/무용, 사진 촬영’ 관련 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불만족’ 0.7%, ‘불만족’ 8.1%, ‘보통’ 47.0%, ‘만족’ 32.9%, ‘매우 만족’ 11.3%이었다. 만족하는 편이 44.2%로 ‘보통’ 47.0%보다 2.8% 낮았다. 불만족 한 편은 8.8%로 다른 문화/여가 관련 시설 불만족도 보다 조금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만족하는 편이 만 50대 65.7%, 만 18~20대 46.9%를 제외하고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30%대의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전라북도 지역별 결과를 살펴보면 가장 만족도가 높은 지역은 진안군으로 66.7%가 만족하는 편으로 응답했다. 이어서 완주군 58.8%, 고창군 57.2% 등의 순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무주군 12.5%, 순창군 30.0%, 정읍시 32.2% 등의 순으로 낮았다.

[표 3-82] 전반적인 문화여가시설 이용 만족정도

구분		사례수	공연, 전시관람 이용만족도	영화보기 이용만족도	미술활동, 악기연주, 춤/ 무용, 사진촬영 이용만족도
			5점 평균	5점 평균	5점 평균
전체		(1000)	3.50	3.79	3.46
성 별	남	(499)	3.49	3.81	3.45
	여	(501)	3.51	3.77	3.47
연 령 대	만 18~20대	(152)	3.49	3.88	3.53
	만 30대	(117)	3.38	3.75	3.33
	만 40대	(169)	3.61	3.86	3.39
	만 50대	(195)	3.54	3.92	3.71
	만 60대 이상	(367)	3.43	3.64	3.31
전 라 북 도 지 역	전주시 완산구	(187)	3.46	3.85	3.56
	전주시 덕진구	(172)	3.67	3.88	3.49
	군산시	(146)	3.41	3.71	3.46
	익산시	(154)	3.40	3.67	3.37
	정읍시	(59)	3.55	3.84	3.43
	남원시	(45)	3.42	3.81	3.28
	김제시	(47)	3.39	3.68	3.42
	완주군	(53)	3.60	3.81	3.76
	진안군	(15)	3.67	3.80	3.78
	무주군	(14)	3.50	3.92	2.63
	장수군	(12)	3.50	4.00	3.33
	임실군	(18)	3.23	3.88	3.80
	순창군	(18)	3.17	3.69	3.00
	고창군	(30)	3.69	3.64	3.43
	부안군	(30)	3.60	3.87	3.45

문화/여가 관련 시설 이용만족도에 대해 5점 만점 중 ‘영화보기 이용만족도’가 3.7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공연·전시 관람 이용만족도’ 3.50점, ‘미술활동·악기연주·춤·무용·사진촬영 이용만족도’ 3.46점 순이었다. 성별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대체적으로 이용만족도가 높았으나 ‘영화보기 이용만족도’는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다.

연령대에서 전체 연령대가 공통적으로 ‘영화보기 이용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만 18대~20대, 만 50대는 ‘영화보기 이용만족도’ 다음으로 ‘미술활동·악기연주·춤·무용·사진촬영 이용만족도’가 높았다. 전라북도 지역에서 고창군은 ‘영화보기 이용만족도’가 아닌 ‘공연·전시 관람 이용만족도’가 3.69점으로 전체 항목에서 이용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표 3-83] 규칙적인 운동여부

구분	사례수	규칙적인 운동 여부		계	
		하지 않는다.	한다.		
전체	(1000)	52.6	47.4	100.0	
성별	남	(499)	50.7	49.3	100.0
	여	(501)	54.5	45.5	100.0
연령대	만 18~20대	(152)	48.0	52.0	100.0
	만 30대	(117)	59.8	40.2	100.0
	만 40대	(169)	58.6	41.4	100.0
	만 50대	(195)	50.8	49.2	100.0
	만 60대 이상	(367)	50.4	49.6	100.0
전북 지역	전주시 완산구	(187)	45.5	54.5	100.0
	전주시 덕진구	(172)	51.7	48.3	100.0
	군산시	(146)	58.9	41.1	100.0
	익산시	(154)	51.9	48.1	100.0
	정읍시	(59)	44.1	55.9	100.0
	남원시	(45)	42.2	57.8	100.0
	김제시	(47)	55.3	44.7	100.0
	완주군	(53)	58.5	41.5	100.0
	진안군	(15)	60.0	40.0	100.0
	무주군	(14)	64.3	35.7	100.0
	장수군	(12)	58.3	41.7	100.0
	임실군	(18)	55.6	44.4	100.0
	순창군	(18)	83.3	16.7	100.0
	고창군	(30)	50.0	50.0	100.0
	부안군	(30)	63.3	36.7	100.0

규칙적인 운동 여부에서 ‘하지 않는다’는 52.6%로 ‘한다’ 47.4% 응답에 비해 다소 높았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49.3%로 여성보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에서는 만 18~20대만이 52.0%로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라북도 6개의 시중에서 남원시 57.8%, 정읍시 55.9%, 전주시 완산구 54.5% 등의 순으로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개의 군에서는 고창군 50.0%, 임실군 44.4%, 장수군 41.7% 등의 순이었다.

규칙적인 운동여부에서 ‘한다’ 응답 관련 전라북도 14개 지역에서 남원시의 응답비중이 57.8%로 가장 높았으며, 순창군의 응답비중이 16.7%로 가장 낮았다.

[표 3-84] 월평균 운동횟수

구분		사례수	월 평균 횟수
			평균(회)
전체		(474)	12.28
성별	남	(246)	13.41
	여	(228)	11.07
연령대	만 18~20대	(79)	11.68
	만 30대	(47)	10.04
	만 40대	(70)	12.96
	만 50대	(96)	14.94
	만 60대 이상	(182)	11.46
전북 지역	전주시 완산구	(102)	13.05
	전주시 덕진구	(83)	12.39
	군산시	(60)	13.18
	익산시	(74)	12.43
	정읍시	(33)	9.36
	남원시	(26)	14.00
	김제시	(21)	12.29
	완주군	(22)	10.32
	진안군	(6)	14.83
	무주군	(5)	10.40
	장수군	(5)	10.60
	임실군	(8)	9.88
	순창군	(3)	23.33
	고창군	(15)	9.73
	부안군	(11)	9.45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라고 응답한 응답자 대상 운동횟수를 조사한 결과 한달 평균 약 12.28회 정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월 평균 횟수가 더 많았다. 연령대에서는 만 50대가 14.94회로 가장 높았으며, 만 30대는 10.04회로 가장 낮았다. 전라북도의 시군에서는 순창군이 월 평균 23.33회로 가장 높았으나, 정읍시는 9.36회로 가장 낮았다.

[표 3-85] 몸이 아플 때 가족 이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존재여부

구분		사례수	몸이 아플 때		계
			없다	있다	
전체		(1000)	23.7	76.3	100.0
성별	남	(499)	23.2	76.8	100.0
	여	(501)	24.2	75.8	100.0
연령대	만 18~20대	(152)	15.8	84.2	100.0
	만 30대	(117)	36.8	63.2	100.0
	만 40대	(169)	33.7	66.3	100.0
	만 50대	(195)	25.6	74.4	100.0
	만 60대 이상	(367)	17.2	82.8	100.0
전북 지역	전주시 완산구	(187)	29.9	70.1	100.0
	전주시 덕진구	(172)	25.0	75.0	100.0
	군산시	(146)	22.6	77.4	100.0
	익산시	(154)	22.7	77.3	100.0
	정읍시	(59)	25.4	74.6	100.0
	남원시	(45)	22.2	77.8	100.0
	김제시	(47)	23.4	76.6	100.0
	완주군	(53)	17.0	83.0	100.0
	진안군	(15)	33.3	66.7	100.0
	무주군	(14)	14.3	85.7	100.0
	장수군	(12)	25.0	75.0	100.0
	임실군	(18)	11.1	88.9	100.0
	순창군	(18)	11.1	88.9	100.0
	고창군	(30)	16.7	83.3	100.0
	부안군	(30)	20.0	80.0	100.0

몸이 아플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에 대해 ‘있다’가 76.3%로 ‘없다’ 23.7%보다 높았다. 성별일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근소하게 응답비율이 높았다. 연령대일 경우 만 18~20대의 ‘있다’ 응답비율이 84.2%로 가장 높은 반면, 만 30대는 63.2%로 가장 낮았다.

전라북도 지역에서는 ‘있다’ 응답비율 관련 임실군과 순창군이 88.9%로 공동으로 가장 시군 중에서 높은 반면 진안군이 66.7%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86] 몸이 아플 때 가족 이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수

구분		'몸이 아플 때' 문항에 '있다' 응답자 대상	약 () 명
		사례수	평균(명)
전체		(763)	2.96
성별	남	(383)	3.17
	여	(380)	2.75
연령대	만 18~20대	(128)	2.76
	만 30대	(74)	2.99
	만 40대	(112)	3.23
	만 50대	(145)	3.55
	만 60대 이상	(304)	2.66
전북 지역	전주시 완산구	(131)	3.73
	전주시 덕진구	(129)	3.13
	군산시	(113)	2.56
	익산시	(119)	2.67
	정읍시	(44)	2.86
	남원시	(35)	2.43
	김제시	(36)	3.03
	완주군	(44)	2.84
	진안군	(10)	2.90
	무주군	(12)	3.17
	장수군	(9)	3.33
	임실군	(16)	3.00
	순창군	(16)	2.75
	고창군	(25)	2.44
	부안군	(24)	2.71

몸이 아플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을 대상으로 가족을 제외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정도 있는지 조사한 결과 전체 평균으로 2.96명이 나왔다. 성별일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를 조사한 결과 만 50대가 3.55명으로 가장 많은 반면, 만 60대 이상은 2.66명으로 가장 적었다. 전라북도 지역일 경우 전라북도 완산구가 3.73명으로 가장 많은 반면 남원시는 2.43명으로 가장 적었다.

[표 3-87] 갑작스런 경제적 위기에 가족 이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존재여부

구분	사례수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		계	
		없다	있다		
전체	(1000)	34.9	65.1	100.0	
성별	남	(499)	34.7	65.3	100.0
	여	(501)	35.1	64.9	100.0
연령대	만 18~20대	(152)	31.6	68.4	100.0
	만 30대	(117)	42.7	57.3	100.0
	만 40대	(169)	39.6	60.4	100.0
	만 50대	(195)	40.0	60.0	100.0
	만 60대 이상	(367)	28.9	71.1	100.0
전북 지역	전주시 완산구	(187)	42.8	57.2	100.0
	전주시 덕진구	(172)	37.8	62.2	100.0
	군산시	(146)	32.2	67.8	100.0
	익산시	(154)	33.1	66.9	100.0
	정읍시	(59)	33.9	66.1	100.0
	남원시	(45)	33.3	66.7	100.0
	김제시	(47)	34.0	66.0	100.0
	완주군	(53)	26.4	73.6	100.0
	진안군	(15)	33.3	66.7	100.0
	무주군	(14)	21.4	78.6	100.0
	장수군	(12)	41.7	58.3	100.0
	임실군	(18)	27.8	72.2	100.0
	순창군	(18)	16.7	83.3	100.0
	고창군	(30)	30.0	70.0	100.0
	부안군	(30)	36.7	63.3	100.0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 가족을 제외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에 대해 '있다' 65.1%가 없다 34.9%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근소하게 응답비율이 더 높았다.

연령대를 조사한 결과 만 60대 이상이 71.1%로 연령대 중에서 응답비율이 높은 반면 만 30대가 57.3%로 가장 낮았다. 전라북도 지역에서 순창군이 83.3%로 전체 시군에서 가장 응답비율이 높았으나 전주시 완산구는 57.2%로 응답비율이 가장 낮았다.

[표 3-88] 갑작스런 경제적 위기에 가족 이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수

구분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 문항에 '있다' 응답자 대상	약 () 명
		사례수	평균(명)
전체		(651)	2.55
성별	남	(326)	2.84
	여	(325)	2.27
연령대	만 18~20대	(104)	2.37
	만 30대	(67)	2.70
	만 40대	(102)	2.87
	만 50대	(117)	3.05
	만 60대 이상	(261)	2.24
전북 지역	전주시 완산구	(107)	2.92
	전주시 덕진구	(107)	2.85
	군산시	(99)	2.33
	익산시	(103)	2.05
	정읍시	(39)	2.36
	남원시	(30)	1.90
	김제시	(31)	2.97
	완주군	(39)	2.13
	진안군	(10)	2.60
	무주군	(11)	6.27
	장수군	(7)	3.00
	임실군	(13)	2.77
	손창군	(15)	2.07
	고창군	(21)	2.43
	부안군	(19)	2.37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 가족을 제외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을 대상으로 가족을 제외하고 금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정도 있는지 조사한 결과 2.55명으로 나타났다. 성별일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일 경우 만 50대가 3.05명으로 연령대에서 가장 많았으며, 만 60대 이상이 2.24명으로 가장 적었다. 전라북도 지역일 경우 무주군이 6.27명으로 전체 시군에서 가장 높은 반면 남원시는 1.90명으로 가장 적었다.

[표 3-89]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가족 이외 사람의 존재여부

구분		사례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하고 싶을 때		계
			없다	있다	
전체		(1000)	18.4	81.6	100.0
성별	남	(499)	19.2	80.8	100.0
	여	(501)	17.6	82.4	100.0
연령대	만 18~20대	(152)	14.5	85.5	100.0
	만 30대	(117)	27.4	72.6	100.0
	만 40대	(169)	28.4	71.6	100.0
	만 50대	(195)	20.0	80.0	100.0
	만 60대 이상	(367)	11.7	88.3	100.0
전북 지역	전주시 완산구	(187)	21.4	78.6	100.0
	전주시 덕진구	(172)	18.6	81.4	100.0
	군산시	(146)	19.2	80.8	100.0
	익산시	(154)	20.1	79.9	100.0
	정읍시	(59)	22.0	78.0	100.0
	남원시	(45)	8.9	91.1	100.0
	김제시	(47)	14.9	85.1	100.0
	완주군	(53)	15.1	84.9	100.0
	진안군	(15)	13.3	86.7	100.0
	무주군	(14)	28.6	71.4	100.0
	장수군	(12)	0.0	100.0	100.0
	임실군	(18)	11.1	88.9	100.0
	순창군	(18)	33.3	66.7	100.0
	고창군	(30)	16.7	83.3	100.0
	부안군	(30)	6.7	93.3	100.0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고 싶을 때 가족을 제외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에 대해 '있다' 비율이 81.6%로 '없다' 18.4%에 비해 높았다. 성별일 경우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근소하게 비율이 더 높았다.

연령대에서 만 60대 이상이 88.3%로 가장 높은 반면, 만 40대는 71.6%로 가장 응답 비율이 낮았다. 전라북도 지역에서는 장수군이 100.0%로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지만 순창군은 66.7%로 응답비율이 가장 낮았다.

[표 3-90]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가족 이외 사람의 수

구분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하고 싶을 때 문항에 '있다' 응답자 대상	약 () 명
		사례수	평균(명)
전체		(816)	3.11
성별	남	(403)	3.32
	여	(413)	2.91
연령대	만 18~20대	(130)	3.52
	만 30대	(85)	2.91
	만 40대	(121)	3.36
	만 50대	(156)	3.22
	만 60대 이상	(324)	2.86
전북 지역	전주시 완산구	(147)	3.25
	전주시 덕진구	(140)	3.14
	군산시	(118)	3.10
	익산시	(123)	2.93
	정읍시	(46)	3.02
	남원시	(41)	2.56
	김제시	(40)	3.75
	완주군	(45)	3.09
	진안군	(13)	3.08
	무주군	(10)	4.30
	장수군	(12)	3.42
	임실군	(16)	3.25
	순창군	(12)	2.83
	고창군	(25)	3.00
	부안군	(28)	2.86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고 싶을 때 가족을 제외한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정도 있는지 조사한 결과 3.11명으로 나왔다. 성별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마음을 터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에서는 만 18~20대가 3.5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만 60대 이상은 2.86명으로 가장 적었다. 전라북도 지역일 경우 무주군이 4.30명으로 가장 많은 반면, 남원시는 2.56명으로 가장 적었다.

[표 3-91]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할 사람의 유형

구분	사례수	도움을 청할 사람(1+2+3 순위)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부모	친구 및 선후배	직장동료	친인척	
전체	(1000)	68.7	58.8	44.5	44.5	41.8	10.1	6.8	
성별	남	(499)	69.3	57.3	42.7	46.1	44.5	11.8	6.6
	여	(501)	68.1	60.3	46.3	42.9	39.1	8.4	7.0
연령대	만 18~20대	(152)	25.7	65.8	4.6	86.8	63.8	27.0	5.9
	만 30대	(117)	59.0	54.7	12.8	85.5	52.1	8.5	5.1
	만 40대	(169)	71.6	60.9	17.2	66.3	42.6	8.9	4.1
	만 50대	(195)	82.1	52.3	56.9	33.3	33.3	8.2	6.2
	만 60대 이상	(367)	81.2	59.7	77.1	9.8	33.5	5.2	9.3
전북지역	전주시 완산구	(187)	66.8	54.5	41.2	52.9	43.9	10.2	3.7
	전주시 덕진구	(172)	66.9	58.7	41.3	52.3	48.3	11.0	7.0
	군산시	(146)	65.8	65.8	39.0	43.2	37.0	9.6	11.6
	익산시	(154)	66.2	56.5	50.6	43.5	39.6	9.1	5.2
	정읍시	(59)	61.0	57.6	40.7	42.4	42.4	15.3	3.4
	남원시	(45)	64.4	60.0	53.3	42.2	33.3	11.1	11.1
	김제시	(47)	80.9	44.7	55.3	42.6	42.6	12.8	6.4
	완주군	(53)	69.8	66.0	49.1	39.6	39.6	7.5	1.9
	진안군	(15)	80.0	60.0	40.0	26.7	46.7	13.3	13.3
	무주군	(14)	78.6	50.0	42.9	21.4	21.4	14.3	14.3
	장수군	(12)	83.3	83.3	41.7	41.7	33.3	0.0	0.0
	임실군	(18)	83.3	55.6	33.3	33.3	66.7	5.6	0.0
	순창군	(18)	66.7	66.7	50.0	33.3	44.4	5.6	22.2
	고창군	(30)	80.0	63.3	50.0	20.0	36.7	10.0	10.0
	부안군	(30)	83.3	60.0	50.0	36.7	40.0	6.7	6.7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사람 1·2·3순위를 조사한 결과 ‘배우자’가 68.7%로 가장 높았고 ‘형제·자매’ 58.8%, ‘자녀’와 ‘부모’가 44.5% 등의 순이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배우자 69.3%, 형제·자매 57.3%, 부모 46.1%, 친구 및 선후배 44.5% 등의 순이었다면 여성은 배우자 68.1%, 형제·자매 60.3%, 자녀 46.3%, 부모 42.9% 등의 순이었다. 여성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자녀에게 도움을 청할 것이라고 더 많이 응답했다.

[표 3-92]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할 사람의 유형(표 계속)

구분	도움을 청할 사람(1+2+3 순위)							계	
	이웃	종교 단체	행정기관	상담 전문기관	없다	조부모 또는 손자녀	기타		
전체	6.3	4.2	4.1	3.2	1.8	1.1	0.3	100.0	
성별	남	5.4	3.6	4.2	1.8	1.8	0.8	0.2	100.0
	여	7.2	4.8	4.0	4.6	1.8	1.4	0.4	100.0
연령대	만 18~20대	1.3	3.3	2.0	3.3	2.6	2.0	0.0	100.0
	만 30대	6.0	2.6	2.6	0.9	2.6	0.9	0.9	100.0
	만 40대	3.6	1.2	5.3	3.6	4.7	0.6	0.0	100.0
	만 50대	7.2	7.2	5.6	5.1	0.5	0.0	1.0	100.0
	만 60대 이상	9.3	4.9	4.1	2.7	0.5	1.6	0.0	100.0
전라북도 지역	전주시완산구	2.7	4.8	3.2	5.9	2.7	1.6	0.5	100.0
	전주시 덕진구	2.9	4.7	1.7	2.3	0.6	1.2	0.0	100.0
	군산시	9.6	4.1	4.8	2.1	2.1	0.0	0.7	100.0
	익산시	7.8	1.3	7.1	4.5	1.9	1.3	0.6	100.0
	정읍시	6.8	8.5	3.4	3.4	5.1	0.0	0.0	100.0
	남원시	4.4	8.9	2.2	0.0	2.2	2.2	0.0	100.0
	김제시	2.1	2.1	0.0	2.1	2.1	2.1	0.0	100.0
	완주군	9.4	3.8	5.7	1.9	1.9	0.0	0.0	100.0
	진안군	6.7	0.0	13.3	0.0	0.0	0.0	0.0	100.0
	무주군	21.4	21.4	0.0	14.3	0.0	0.0	0.0	100.0
	장수군	8.3	0.0	8.3	0.0	0.0	0.0	0.0	100.0
	임실군	16.7	5.6	0.0	0.0	0.0	0.0	0.0	100.0
	순창군	11.1	0.0	0.0	0.0	0.0	0.0	0.0	100.0
	고창군	6.7	3.3	13.3	3.3	0.0	3.3	0.0	100.0
	부안군	10.0	0.0	3.3	0.0	0.0	3.3	0.0	100.0

연령대일 경우 만 18~20대, 만 30대는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경우 부모에게 도움을 청할 것이라고 많이 응답했다. 만 40대·만 50대·만 60대는 '배우자'에게 도움을 청할 것이라고 많이 응답하였다.

전라북도 시군에서 대다수의 지역은 1순위를 '배우자'로 선택했다. 장수군, 순창군은 공통적으로 '배우자'와 함께 '형제자매'를 1순위로 선택했다. 2순위일 경우 대부분의 지역이 '형제·자매'라고 응답했으나 김제시는 '자녀'로 임실군은 '친구 및 선후배'로 응답했다.

[표 3-93] 반려동물 양육여부 및 유형

구분	사례수	반려동물(복수응답)				계	
		없다	개	고양이	기타		
전체	(1000)	76.3	19.5	5.7	0.8	100.0	
성별	남	(499)	76.4	19.4	5.8	0.4	100.0
	여	(501)	76.2	19.6	5.6	1.2	100.0
연령대	만 18~20대	(152)	67.1	23.7	11.8	0.0	100.0
	만 30대	(117)	86.3	11.1	4.3	0.0	100.0
	만 40대	(169)	79.9	13.6	4.7	3.0	100.0
	만 50대	(195)	70.3	23.1	9.7	1.5	100.0
	만 60대 이상	(367)	78.5	21.3	1.9	0.0	100.0
전라북도 지역	전주시 완산구	(187)	82.9	13.9	4.3	0.0	100.0
	전주시 덕진구	(172)	78.5	18.0	2.9	1.7	100.0
	군산시	(146)	74.7	21.2	5.5	1.4	100.0
	익산시	(154)	74.7	20.1	7.1	0.0	100.0
	정읍시	(59)	79.7	16.9	3.4	0.0	100.0
	남원시	(45)	80.0	17.8	4.4	0.0	100.0
	김제시	(47)	74.5	14.9	12.8	0.0	100.0
	완주군	(53)	69.8	26.4	5.7	0.0	100.0
	진안군	(15)	60.0	33.3	13.3	6.7	100.0
	무주군	(14)	57.1	42.9	7.1	0.0	100.0
	장수군	(12)	50.0	41.7	25.0	0.0	100.0
	임실군	(18)	66.7	27.8	0.0	5.6	100.0
	순창군	(18)	88.9	5.6	0.0	5.6	100.0
	고창군	(30)	66.7	30.0	13.3	0.0	100.0
	부안군	(30)	76.7	20.0	6.7	0.0	100.0

반려동물을 현재 키우고 있는지에 대해 ‘없다’가 76.3%로 가장 많았으며, 키울 경우 ‘개’ 19.5%, ‘고양이’ 5.7%, ‘기타’ 0.8%의 순이었다. 성별로 보면 각 항목별로 여성과 남성에 응답비율에 근소한 차이가 있으나, 전체 응답경향과 동일하였다. 연령대에서 반려동물을 키울 경우 만 18~20대가 주로 많이 키우고 있었으며, ‘개’·‘고양이’도 연령대 중에서 가장 많이 키우고 있었다.

전라북도 지역일 경우 ‘장수군’이 반려동물을 가장 많이 키우고 있었다. 더불어, 전체 시군이 ‘개’를 ‘고양이’보다 많이 키우고 있었다. ‘개’를 가장 많이 키우는 곳은 ‘무주군’ 42.9%였으며, ‘고양이’는 장수군에서 가장 많이 키웠다. 순창군이 ‘없다’가 88.9%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 수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7.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평가와 인식

[표 3-94] 거주지역의 환경오염 정도에 대한 인식

구분	사례수	상수도 오염	하수도 오염	소음 및 진동	악취	대기 오염	토양 오염	하천 오염
		5점 평균	5점 평균	5점 평균	5점 평균	5점 평균	5점 평균	5점 평균
전체	(1000)	3.48	3.41	3.35	3.25	3.02	3.27	3.20
성별	남 (499)	3.56	3.44	3.39	3.25	2.99	3.31	3.24
	여 (501)	3.40	3.37	3.30	3.25	3.04	3.24	3.16
연령대	만 18~20대 (152)	3.57	3.55	3.43	3.28	3.22	3.44	3.32
	만 30대 (117)	3.35	3.25	3.11	2.93	2.53	3.06	3.01
	만 40대 (169)	3.40	3.29	3.29	3.07	2.83	3.22	3.17
	만 50대 (195)	3.36	3.25	3.17	3.11	2.84	3.13	3.06
	만 60대 이상 (367)	3.58	3.53	3.50	3.49	3.27	3.37	3.31
전라북도 지역	전주시 완산구 (187)	3.42	3.33	3.24	3.38	2.91	3.31	3.22
	전주시 덕진구 (172)	3.47	3.33	3.21	3.21	2.78	3.22	3.16
	군산시 (146)	3.53	3.48	3.38	3.40	3.00	3.34	3.24
	익산시 (154)	3.47	3.42	3.35	3.07	3.11	3.31	3.24
	정읍시 (59)	3.24	3.24	3.20	2.97	2.97	3.00	2.98
	남원시 (45)	3.58	3.67	3.53	3.51	3.42	3.49	3.40
	김제시 (47)	3.55	3.36	3.47	3.32	3.11	3.23	3.26
	완주군 (53)	3.42	3.32	3.25	2.85	2.85	3.08	3.08
	진안군 (15)	3.67	3.47	3.67	3.67	3.47	3.33	3.20
	무주군 (14)	3.64	3.43	3.50	3.21	3.21	3.21	2.86
	장수군 (12)	3.42	3.17	3.58	3.08	3.50	3.08	2.92
	임실군 (18)	3.67	3.44	3.72	3.17	3.28	3.33	3.17
	순창군 (18)	3.67	3.67	3.94	3.39	3.33	3.56	3.56
	고창군 (30)	3.53	3.60	3.53	3.47	3.20	3.30	3.23
부안군 (30)	3.57	3.70	3.50	3.17	3.27	3.33	3.33	

현재 거주 지역의 환경오염 정도에 대해 ‘상수도 오염’이 3.48점, ‘하수도 오염’ 3.41점, ‘소음 및 진동’ 3.35점 등의 순이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대기오염’ 제외, 대체적으로 여성보다 각 항목별 오염정도를 대체로 더 심각하게 느끼고 있었다.

연령대에서는 공통적으로 상수도 오염이 가장 심하다고 생각했으며, 대체로 1·2순위 항목(상수도 오염, 하수도 오염, 만 40대는 하수도오염과 소음 및 진동을 동등 인식)이 같았다. 전라북도 지역에서 각 항목별로 주로 순창군이 거주지역의 환경오염 정도(상수도·소음 및 진동·토양오염·하천오염)를 많이 지각하고 있었으며, 특히 다른 지역보다 ‘소음 및 진동’ 문제의 평균점수가 높았다.

[표 3-95] 주된 정보습득 경로

구분	사 례 수	정보습득 경로					
		포털 사이트 (네이버, 다음 등)	텔레비전	사람들과의 대화, 소문	유튜브	SNS (페이스북, 트위터 등)	
전체	(1000)	33.3	28.7	12.8	9.3	6.8	
성 별	남	(499)	33.9	25.9	12.6	13.0	5.6
	여	(501)	32.7	31.5	13.0	5.6	8.0
연 령 대	만 18~20대	(152)	38.2	13.2	19.1	13.8	6.6
	만 30대	(117)	46.2	17.1	5.1	13.7	6.0
	만 40대	(169)	43.2	20.1	1.8	11.2	13.0
	만 50대	(195)	41.0	24.6	6.2	9.2	8.7
	만 60대 이상	(367)	18.5	45.0	21.3	5.2	3.3
전 북 지 역	전주시완산구	(187)	34.2	26.7	7.5	8.0	7.5
	전주시 덕진구	(172)	38.4	26.2	7.0	9.9	9.9
	군산시	(146)	30.8	32.2	16.4	5.5	8.2
	익산시	(154)	27.9	37.7	17.5	7.1	5.2
	정읍시	(59)	37.3	27.1	13.6	10.2	3.4
	남원시	(45)	28.9	24.4	13.3	13.3	11.1
	김제시	(47)	36.2	29.8	2.1	17.0	2.1
	완주군	(53)	30.2	24.5	20.8	11.3	3.8
	진안군	(15)	13.3	33.3	13.3	20.0	6.7
	무주군	(14)	28.6	28.6	14.3	14.3	0.0
	장수군	(12)	41.7	16.7	16.7	16.7	0.0
	임실군	(18)	38.9	33.3	5.6	11.1	11.1
	순창군	(18)	50.0	11.1	16.7	5.6	11.1
	고창군	(30)	43.3	16.7	20.0	13.3	6.7
부안군	(30)	23.3	30.0	30.0	6.7	0.0	

주로 정보를 수집하는 매체일 경우 ‘포털사이트’ 33.3%, ‘텔레비전’ 28.7%, ‘사람들과의 대화·소문’ 12.8%, ‘유튜브’ 9.3% 등의 순이었다. 성별로 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주로 ‘포털사이트’, ‘텔레비전’을 주로 정보를 수집하던데 사용하였다. ‘유튜브’ 항목에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높았으며, 남성이 여성보다 사용비중이 더 높았다.

[표 3-96] 주된 정보습득 경로(표계속)

구분	정보습득 경로					계	
	신문	라디오	인터넷 메신저 (카카오톡 등)	잡지	기타		
전체	3.1	2.7	2.4	0.6	0.3	100.0	
성별	남	3.4	2.6	2.2	0.6	0.2	100.0
	여	2.8	2.8	2.6	0.6	0.4	100.0
연령대	만 18~20대	2.0	2.0	3.9	1.3	0.0	100.0
	만 30대	2.6	6.0	1.7	1.7	0.0	100.0
	만 40대	3.6	4.1	1.8	0.0	1.2	100.0
	만 50대	4.1	2.1	3.6	0.0	0.5	100.0
	만 60대 이상	3.0	1.6	1.6	0.5	0.0	100.0
전라북도 지역	전주시완산구	6.4	3.7	4.3	0.5	1.1	100.0
	전주시 덕진구	3.5	4.1	0.6	0.6	0.0	100.0
	군산시	2.1	2.7	1.4	0.7	0.0	100.0
	익산시	0.6	1.9	1.9	0.0	0.0	100.0
	정읍시	0.0	3.4	5.1	0.0	0.0	100.0
	남원시	2.2	2.2	4.4	0.0	0.0	100.0
	김제시	6.4	0.0	2.1	2.1	2.1	100.0
	완주군	5.7	0.0	1.9	1.9	0.0	100.0
	진안군	6.7	6.7	0.0	0.0	0.0	100.0
	무주군	7.1	7.1	0.0	0.0	0.0	100.0
	장수군	0.0	0.0	0.0	8.3	0.0	100.0
	임실군	0.0	0.0	0.0	0.0	0.0	100.0
	순창군	0.0	5.6	0.0	0.0	0.0	100.0
	고창군	0.0	0.0	0.0	0.0	0.0	100.0
	부안군	0.0	0.0	10.0	0.0	0.0	100.0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만 60대 이상만이 ‘텔레비전’을 정보를 수집하는 매체 1순위로 이용하였다. ‘포털사이트’를 정보를 수집하는 매체 1순위로 선택한 연령대 중에서 만 18~20대가 ‘사람들과의 대화·소문’을 정보를 수집하는 데 사용하는 매체 2순위로 선택하였다. 전라북도 지역에서 대다수 시군이 주로 ‘포털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습득하고 있었다.

[표 3-97] 가장 신뢰하는 매체

구분	사례수	가장 신뢰하는 정보 매체					
		텔레비전	포털 사이트 (네이버, 다음 등)	유튜브	신문	SNS (페이스북, 트위터 등)	
전체	(1000)	41.3	27.2	7.7	7.0	4.9	
성별	남	(499)	37.3	27.5	10.2	7.6	6.0
	여	(501)	45.3	26.9	5.2	6.4	3.8
연령대	만 18-20대	(152)	26.3	39.5	8.6	10.5	7.2
	만 30대	(117)	33.3	33.3	8.5	9.4	1.7
	만 40대	(169)	32.0	31.4	13.0	6.5	5.3
	만 50대	(195)	33.3	26.2	8.7	7.2	8.7
	만 60대 이상	(367)	58.6	18.8	4.1	4.9	2.7
전북지역	전주시완산구	(187)	39.0	24.1	8.6	11.8	4.3
	전주시덕진구	(172)	34.3	30.8	5.8	10.5	7.0
	군산시	(146)	46.6	26.7	7.5	5.5	5.5
	익산시	(154)	53.9	24.0	6.5	1.9	3.2
	정읍시	(59)	30.5	32.2	5.1	5.1	5.1
	남원시	(45)	44.4	20.0	8.9	6.7	6.7
	김제시	(47)	38.3	29.8	14.9	4.3	2.1
	완주군	(53)	35.8	32.1	7.5	9.4	7.5
	진안군	(15)	46.7	6.7	13.3	13.3	6.7
	무주군	(14)	35.7	21.4	7.1	14.3	0.0
	장수군	(12)	25.0	41.7	16.7	0.0	0.0
	임실군	(18)	27.8	33.3	11.1	5.6	5.6
	순창군	(18)	38.9	33.3	5.6	5.6	5.6
	고창군	(30)	40.0	36.7	10.0	0.0	3.3
	부안군	(30)	53.3	23.3	3.3	0.0	3.3

신뢰하는 정보전달 매체에서 ‘텔레비전’이 41.3%로 가장 높았으며, ‘포털사이트’ 27.2%, ‘유튜브’ 7.7% 등의 순이었다.

성별로 보면 여성과 남성 모두 ‘텔레비전’과 ‘포털사이트’를 가장 신뢰하는 정보매체 1·2 순위로 선택하였다. 특히 ‘텔레비전’ 항목에서 남성과 여성간의 신뢰정도가 크게 차이가 났으며, 여성의 신뢰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98] 가장 신뢰하는 매체(표 계속)

구분	사례수	가장 신뢰하는 정보 매체					계	
		라디오	사람들과의 대화, 소문	인터넷 메신저 (카카오톡 등)	기타	잡지		
전체	(1000)	4.0	3.5	2.1	1.7	0.6	100.0	
성별	남	(499)	4.0	3.4	2.0	1.4	0.6	100.0
	여	(501)	4.0	3.6	2.2	2.0	0.6	100.0
연령대	만 18~20대	(152)	2.0	0.7	3.9	0.7	0.7	100.0
	만 30대	(117)	7.7	4.3	0.0	1.7	0.0	100.0
	만 40대	(169)	3.6	3.0	1.2	3.6	0.6	100.0
	만 50대	(195)	4.6	5.1	1.5	3.1	1.5	100.0
	만 60대 이상	(367)	3.5	3.8	2.7	0.5	0.3	100.0
전라북도 지역	전주시 완산구	(187)	5.3	2.7	1.6	2.7	0.0	100.0
	전주시 덕진구	(172)	3.5	3.5	2.3	0.6	1.7	100.0
	군산시	(146)	2.7	2.7	2.7	0.0	0.0	100.0
	익산시	(154)	3.2	2.6	2.6	1.9	0.0	100.0
	정읍시	(59)	5.1	6.8	6.8	1.7	1.7	100.0
	남원시	(45)	6.7	0.0	2.2	2.2	2.2	100.0
	김제시	(47)	2.1	6.4	0.0	2.1	0.0	100.0
	완주군	(53)	0.0	3.8	0.0	1.9	1.9	100.0
	진안군	(15)	13.3	0.0	0.0	0.0	0.0	100.0
	무주군	(14)	14.3	0.0	0.0	7.1	0.0	100.0
	장수군	(12)	0.0	0.0	0.0	16.7	0.0	100.0
	임실군	(18)	5.6	5.6	0.0	5.6	0.0	100.0
	순창군	(18)	5.6	5.6	0.0	0.0	0.0	100.0
	고창군	(30)	3.3	6.7	0.0	0.0	0.0	100.0
	부안군	(30)	3.3	10.0	3.3	0.0	0.0	100.0

연령대에서도 ‘텔레비전’과 ‘포털사이트’를 가장 신뢰하는 정보매체 1·2순위로 선택하였다. 단, 만 18~20대만 ‘텔레비전’보다 ‘포털사이트’를 더 신뢰하는 모습을 보였다. 더불어 만 40대의 ‘유튜브’ 신뢰 정도는 다른 연령대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 지역에서 대다수 시군이 ‘텔레비전’을 가장 신뢰하는데 비해 정읍시·장수군·임실군이 가장 신뢰하는 정보매체 1순위로 ‘포털사이트’를 선택하였다. 가장 신뢰하는 정보매체 1순위를 ‘텔레비전’으로 선택한 시군 중에서 진안군은 2순위를 텔레비전이 아닌 유튜브·신문·라디오로 선택하는 모습을 보였다.

[표 3-99] 온라인 매체 유형별 이용정도

구분	사례수	포털사이트 (네이버,다음 등)	유튜브	SNS(페이 스북, 트위터 등)	인터넷 메신저 (카카오톡 등)	
		4점 평균	4점 평균	4점 평균	4점 평균	
전체	(1000)	3.22	2.92	2.34	3.34	
성별	남	(499)	3.24	2.99	2.40	3.35
	여	(501)	3.20	2.86	2.29	3.34
연령대	만 18~20대	(152)	3.48	3.34	2.93	3.62
	만 30대	(117)	3.40	3.03	2.62	3.53
	만 40대	(169)	3.41	2.98	2.42	3.35
	만 50대	(195)	3.33	2.96	2.38	3.45
	만 60대 이상	(367)	2.91	2.66	1.96	3.11
전라북도 지역	전주시 완산구	(187)	3.31	2.98	2.44	3.44
	전주시 덕진구	(172)	3.28	3.01	2.44	3.39
	군산시	(146)	3.14	2.84	2.21	3.23
	익산시	(154)	3.21	2.88	2.21	3.34
	정읍시	(59)	3.41	2.88	2.44	3.37
	남원시	(45)	3.07	2.93	2.51	3.38
	김제시	(47)	3.19	3.02	2.62	3.36
	완주군	(53)	3.19	2.91	1.98	3.28
	진안군	(15)	3.00	3.27	2.67	3.53
	무주군	(14)	3.14	3.00	2.57	3.36
	장수군	(12)	3.00	2.67	2.25	3.00
	임실군	(18)	3.17	3.00	2.22	3.33
	순창군	(18)	3.33	2.28	2.11	3.33
	고창군	(30)	3.13	2.80	2.53	3.30
	부안군	(30)	3.03	2.97	2.07	3.10

온라인매체 이용 정도에서 4점 평균 기준 ‘인터넷 메신저’가 3.3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포털사이트’ 3.22점, ‘유튜브’ 2.92점, ‘SNS’ 2.34점 순이었다. 성별에서도 ‘인터넷 메신저’, ‘포털사이트’, ‘유튜브’, ‘SNS’의 순이었다. 연령대에서 만 18~20대가 각 항목별 온라인 매체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반면, 만 60대 이상은 가장 적게 이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만 40대만이 ‘인터넷메신저’ 대신 ‘포털사이트’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 매체 1순위로 선택했다.

전라북도 지역에서 대부분의 시군은 ‘인터넷 메신저’, ‘포털사이트’, ‘유튜브’, ‘SNS’ 순이었으나 정읍시는 ‘포털사이트’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으며, 장수군·순창군은 ‘포털사이트’와 ‘인터넷 메신저’가 공동 1위를 차지했다.

[표 3-100] 포털사이트의 유형별 이용정도

		사례수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				계
			전혀 안한다.	어쩌다 한번씩 한다.	거의 매일 한다.	매일 한다.	
전체		(1000)	1.7	11.7	49.5	37.1	100.0
성별	남	(499)	1.4	11.8	48.1	38.7	100.0
	여	(501)	2.0	11.6	50.9	35.5	100.0
연령대	만 18-20대	(152)	0.0	4.6	42.8	52.6	100.0
	만 30대	(117)	0.0	4.3	51.3	44.4	100.0
	만 40대	(169)	0.6	8.9	39.6	50.9	100.0
	만 50대	(195)	1.5	7.7	46.7	44.1	100.0
	만 60대 이상	(367)	3.5	20.4	57.8	18.3	100.0
전라북도 지역	전주시 완산구	(187)	0.5	8.6	50.3	40.6	100.0
	전주시 덕진구	(172)	1.7	10.5	45.9	41.9	100.0
	군산시	(146)	2.7	15.1	47.9	34.2	100.0
	익산시	(154)	0.6	13.0	51.3	35.1	100.0
	정읍시	(59)	0.0	8.5	42.4	49.2	100.0
	남원시	(45)	0.0	22.2	48.9	28.9	100.0
	김제시	(47)	2.1	12.8	48.9	36.2	100.0
	완주군	(53)	1.9	9.4	56.6	32.1	100.0
	진안군	(15)	6.7	20.0	40.0	33.3	100.0
	무주군	(14)	0.0	21.4	42.9	35.7	100.0
	장수군	(12)	8.3	8.3	58.3	25.0	100.0
	임실군	(18)	0.0	11.1	61.1	27.8	100.0
	순창군	(18)	0.0	5.6	55.6	38.9	100.0
	고창군	(30)	6.7	10.0	46.7	36.7	100.0
	부안군	(30)	6.7	6.7	63.3	23.3	100.0

전라북도민의 포털사이트 이용은 ‘거의 매일 한다’ 49.5%, ‘매일 한다’ 37.1%, ‘어쩌다 한번씩 한다’ 11.7%, ‘전혀 안한다’ 1.7% 순으로 높았다. 성별에서 포털사이트 이용률은 남녀 각각 86.8%, 86.4%로 높은 수치를 보이며, 차이도 별로 나지 않았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만 60대 이상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한다’와 ‘매일 한다’의 응답률이 총 90.0%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만 60대 이상은 해당 응답들의 합이 76.1%로 타 연령대와 14%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전라북도의 지역별로 살펴본 결과, ‘거의 매일 한다’와 ‘매일 한다’의 응답률은 6개의 시에서는 남원시가 77.8%로 가장 낮았고, 전라북도 8개의 군에서는 진안군이 73.3%로 가장 낮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표 3-101] 유튜브 이용정도

구분	사례수	유튜브				계	
		전혀 안한다.	어쩌다 한번씩 한다.	거의 매일 한다.	매일 한다.		
전체	(1000)	3.2	28.1	42.0	26.7	100.0	
성별	남	(499)	3.6	23.2	43.9	29.3	100.0
	여	(501)	2.8	32.9	40.1	24.2	100.0
연령대	만 18~20대	(152)	1.3	7.2	47.4	44.1	100.0
	만 30대	(117)	0.9	25.6	42.7	30.8	100.0
	만 40대	(169)	1.2	29.0	40.2	29.6	100.0
	만 50대	(195)	5.6	27.7	31.3	35.4	100.0
	만 60대 이상	(367)	4.4	37.3	46.0	12.3	100.0
전북지역	전주시 완산구	(187)	2.1	27.3	41.2	29.4	100.0
	전주시 덕진구	(172)	2.9	25.0	40.7	31.4	100.0
	군산시	(146)	4.1	30.1	43.2	22.6	100.0
	익산시	(154)	2.6	30.5	42.9	24.0	100.0
	정읍시	(59)	1.7	27.1	52.5	18.6	100.0
	남원시	(45)	4.4	31.1	31.1	33.3	100.0
	김제시	(47)	4.3	23.4	38.3	34.0	100.0
	완주군	(53)	0.0	28.3	52.8	18.9	100.0
	진안군	(15)	0.0	26.7	20.0	53.3	100.0
	무주군	(14)	0.0	42.9	14.3	42.9	100.0
	장수군	(12)	8.3	25.0	58.3	8.3	100.0
	임실군	(18)	0.0	27.8	44.4	27.8	100.0
	순창군	(18)	16.7	50.0	22.2	11.1	100.0
	고창군	(30)	6.7	30.0	40.0	23.3	100.0
부안군	(30)	6.7	13.3	56.7	23.3	100.0	

전라북도민의 유튜브 이용은 ‘거의 매일 한다’ 42.0%, ‘어쩌다 한번씩 한다’ 28.1%, ‘매일 한다’ 26.7%, ‘전혀 안한다’ 3.2% 순이었다. 성별에서도 남녀 각 73.2%, 64.1%로 남성의 유튜브 이용률이 더 높았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매일 한다’는 만 18~20대가 44.1%로 가장 높았고, 만 50대 35.4%, 만 30대 30.8%, 만 40대 29.6%, 만 60대 이상 12.3%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거의 매일 한다’는 응답은 만 18~20대 47.4%, 만 60대 이상 46.0%, 만 30대 42.7%, 만 40대 40.2%, 만 50대 31.3% 순이었다.

전라북도의 지역별로 살펴본 결과, ‘매일 한다’는 진안군 53.3%, 무주군 42.9%, 김제시 34.0% 등의 순으로 높았고, ‘전혀 안한다’ 순창군이 16.7%를 나타내며 유일하게 10%대 응답률을 나타냈다.

[표 3-102] SNS 유형별 이용정도

	사례수	SNS(페이스북, 트위터 등)				계	
		전혀 안한다.	어쩌다 한번씩 한다.	거의 매일 한다.	매일 한다.		
전체	(1000)	27.6	28.3	26.2	17.9	100.0	
성별	남	(499)	24.0	28.5	30.9	16.6	100.0
	여	(501)	31.1	28.1	21.6	19.2	100.0
연령대	만 18~20대	(152)	7.2	21.1	43.4	28.3	100.0
	만 30대	(117)	20.5	20.5	35.0	23.9	100.0
	만 40대	(169)	26.6	24.9	28.4	20.1	100.0
	만 50대	(195)	26.7	31.3	19.0	23.1	100.0
	만 60대 이상	(367)	39.2	33.8	19.1	7.9	100.0
전북 지역	전주시 완산구	(187)	25.7	22.5	33.7	18.2	100.0
	전주시 덕진구	(172)	27.3	24.4	25.6	22.7	100.0
	군산시	(146)	31.5	29.5	25.3	13.7	100.0
	익산시	(154)	27.3	36.4	24.0	12.3	100.0
	정읍시	(59)	22.0	33.9	22.0	22.0	100.0
	남원시	(45)	24.4	22.2	31.1	22.2	100.0
	김제시	(47)	21.3	23.4	27.7	27.7	100.0
	완주군	(53)	45.3	24.5	17.0	13.2	100.0
	진안군	(15)	26.7	13.3	26.7	33.3	100.0
	무주군	(14)	14.3	35.7	28.6	21.4	100.0
	장수군	(12)	33.3	16.7	41.7	8.3	100.0
	임실군	(18)	33.3	27.8	22.2	16.7	100.0
	순창군	(18)	16.7	61.1	16.7	5.6	100.0
	고창군	(30)	20.0	33.3	20.0	26.7	100.0
부안군	(30)	33.3	36.7	20.0	10.0	100.0	

전라북도민의 SNS(페이스북, 트위터 등) 이용은 ‘어쩌다 한번씩 한다’ 28.3%, ‘전혀 안한다’ 27.6%, ‘거의 매일 한다’ 26.2%, ‘매일 한다’ 17.9% 순으로 높았다. 타 온라인 관련 질문에 비해 ‘전혀 안한다’ 응답 비율이 높았다. 성별로 분석해보면 결과, ‘매일 한다’는 여자 19.2%, 남자 16.6%로 여자의 비율이 근소한 차이로 높게 나타났고, ‘거의 매일 한다’는 남자 30.9%, 여자 21.6%로 남자가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전혀 안한다’는 응답에 대해 만 18~20대는 7.2%로 매우 낮은 비율을 나타냈고, 만 30~50대 연령대는 20%대 응답률을 보였으며, 만 60대 이상은 39.2%가 SNS를 전혀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시보다는 군에서 ‘안 한다’ 비율이 더 높았다.

[표 3-103] 인터넷 메신저 유형별 이용정도

	사례수	인터넷 메신저(카카오톡 등)				계	
		전혀 안한다.	어쩌다 한번씩 한다.	거의 매일 한다.	매일 한다.		
전체	(1000)	1.2	9.5	43.0	46.3	100.0	
성별	남	(499)	0.8	10.4	41.9	46.9	100.0
	여	(501)	1.6	8.6	44.1	45.7	100.0
연령대	만 18~20대	(152)	0.0	5.3	27.6	67.1	100.0
	만 30대	(117)	0.0	5.1	36.8	58.1	100.0
	만 40대	(169)	3.0	10.1	36.1	50.9	100.0
	만 50대	(195)	0.5	7.7	38.5	53.3	100.0
	만 60대 이상	(367)	1.6	13.4	56.9	28.1	100.0
전라북도 지역	전주시 완산구	(187)	0.0	7.5	40.6	51.9	100.0
	전주시 덕진구	(172)	0.6	10.5	38.4	50.6	100.0
	군산시	(146)	4.1	11.0	42.5	42.5	100.0
	익산시	(154)	0.6	11.7	40.9	46.8	100.0
	정읍시	(59)	0.0	8.5	45.8	45.8	100.0
	남원시	(45)	2.2	11.1	33.3	53.3	100.0
	김제시	(47)	0.0	10.6	42.6	46.8	100.0
	완주군	(53)	0.0	7.5	56.6	35.8	100.0
	진안군	(15)	0.0	0.0	46.7	53.3	100.0
	무주군	(14)	0.0	0.0	64.3	35.7	100.0
	장수군	(12)	8.3	0.0	75.0	16.7	100.0
	임실군	(18)	0.0	5.6	55.6	38.9	100.0
	순창군	(18)	5.6	0.0	50.0	44.4	100.0
	고창군	(30)	3.3	10.0	40.0	46.7	100.0
	부안군	(30)	0.0	20.0	50.0	30.0	100.0

전라북도민의 인터넷 메신저(카카오톡 등)의 이용은 '매일 한다' 46.3%, '거의 매일 한다' 43.0%, '어쩌다 한번씩 한다' 9.5%, '전혀 안한다' 1.2% 순으로 90%이상의 전라북도민들이 인터넷 메신저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거의 매일 한다'와 '매일 한다'의 응답이 85.0% 이상으로 나타났다. 만 18~20대 94.7%, 만 30대 94.9%, 만 50대 91.8%로 해당 연령대는 90% 이상의 높은 이용률을 나타냈다.

지역별로 매일 이용하는 비율은 남원시와 진안군이 53.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장수군이 16.7%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거의 매일 이용한다는 응답이 75.0%로 인터넷 메신저를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04] 내가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주관적 인식

구분	사례수	내가 사는 지역의 사람들은 믿을만하다	내가 사는 지역은 안전한 곳이다	나는 이웃과 도움을 주고 받는다	
		5점 평균	5점 평균	5점 평균	
전체	(1000)	3.53	3.76	3.30	
성별	남	(499)	3.56	3.79	3.31
	여	(501)	3.50	3.72	3.30
연령대	만 18~20대	(152)	3.66	3.76	3.12
	만 30대	(117)	3.33	3.63	2.93
	만 40대	(169)	3.40	3.73	3.20
	만 50대	(195)	3.51	3.76	3.36
	만 60대 이상	(367)	3.62	3.80	3.51
전북지역	전주시 완산구	(187)	3.51	3.84	3.20
	전주시 덕진구	(172)	3.43	3.78	3.19
	군산시	(146)	3.58	3.56	3.27
	익산시	(154)	3.55	3.71	3.16
	정읍시	(59)	3.61	3.71	3.37
	남원시	(45)	3.60	3.80	3.44
	김제시	(47)	3.60	3.85	3.60
	완주군	(53)	3.58	3.83	3.34
	진안군	(15)	3.27	3.73	3.80
	무주군	(14)	3.50	4.00	3.64
	장수군	(12)	3.50	3.75	3.83
	임실군	(18)	3.39	3.67	3.67
	순창군	(18)	3.44	4.00	3.28
	고창군	(30)	3.60	3.77	3.50
부안군	(30)	3.73	3.77	3.53	

거주지역 평가에 대해 5점 평균 '내가 사는 지역은 안전한 곳이다'가 3.7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내가 사는 지역의 사람들은 믿을만하다' 3.53점, '나는 이웃과 도움을 주고 받는다' 3.3점 등의 순이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각 항목에서 여성보다 평균점수가 높은 편이었다.

[표 3-105] 내 거주지역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인식

구분		나는 이웃집과 자주 왕래하는 편이다	나는 지역사회에서 모임이 많은편이다	나는 지역사회를 위해 자원봉사를 하는편이다
		5점 평균	5점 평균	5점 평균
전체		2.98	2.94	2.74
성별	남	3.01	3.03	2.82
	여	2.94	2.85	2.66
연령대	만 18~20대	2.89	2.91	2.63
	만 30대	2.37	2.35	2.29
	만 40대	2.65	2.70	2.68
	만 50대	2.91	2.98	2.93
	만 60대 이상	3.38	3.24	2.86
전라북도 지역	전주시 완산구	2.70	2.86	2.82
	전주시 덕진구	2.72	2.81	2.74
	군산시	2.99	2.92	2.54
	익산시	2.94	2.82	2.45
	정읍시	3.10	3.07	2.76
	남원시	3.20	3.00	2.73
	김제시	3.45	3.09	3.09
	완주군	3.11	3.04	2.85
	진안군	3.47	2.67	2.87
	무주군	3.29	3.21	2.86
	장수군	3.83	3.33	3.17
	임실군	3.44	3.50	2.94
	순창군	2.94	2.94	2.56
	고창군	3.27	3.20	3.43
부안군	3.43	3.47	3.00	

연령대에서 공통적으로 ‘내가 사는 지역은 안전한 곳이다’, ‘내가 사는 지역의 사람들은 믿을만하다’가 1·2순위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만 60대 이상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웃집 왕래 정도가 더 높았다. 전라북도 지역에서 대다수의 시군은 ‘내가 사는 지역은 안전한 곳이다’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는데 비해 군산시·진안군·장수군의 1순위 응답은 달랐다. 이웃과 왕래 정도는 장수군이 유일하게 시군에서 3점 후반대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표 3-106] 내 거주지역 주민에 대한 신뢰정도에 대한 인식

구분	사례수	내가 사는 지역의 사람들은 믿을만 하다					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1000)	0.9	5.6	37.6	51.9	4.0	100.0
성별	남 (499)	1.2	5.0	34.3	55.5	4.0	100.0
	여 (501)	0.6	6.2	40.9	48.3	4.0	100.0
연령대	만 18~20대 (152)	0.0	5.9	27.0	62.5	4.6	100.0
	만 30대 (117)	3.4	6.8	47.0	38.5	4.3	100.0
	만 40대 (169)	2.4	5.3	46.7	41.4	4.1	100.0
	만 50대 (195)	0.5	5.6	41.0	48.2	4.6	100.0
	만 60대 이상 (367)	0.0	5.2	32.9	58.6	3.3	100.0
전북지역	전주시 완산구 (187)	2.2	5.4	40.9	44.6	7.0	100.0
	전주시 덕진구 (172)	0.6	4.7	47.7	45.3	1.7	100.0
	군산시 (146)	1.4	3.4	35.9	57.2	2.1	100.0
	익산시 (154)	0.6	5.2	36.4	53.9	3.9	100.0
	정읍시 (59)	0.0	6.8	30.5	57.6	5.1	100.0
	남원시 (45)	0.0	6.7	31.1	57.8	4.4	100.0
	김제시 (47)	0.0	8.5	27.7	59.6	4.3	100.0
	완주군 (53)	0.0	7.5	28.3	62.3	1.9	100.0
	진안군 (15)	0.0	6.7	60.0	33.3	0.0	100.0
	무주군 (14)	0.0	7.1	42.9	42.9	7.1	100.0
	장수군 (12)	0.0	8.3	33.3	58.3	0.0	100.0
	임실군 (18)	0.0	11.1	38.9	50.0	0.0	100.0
	순창군 (18)	0.0	5.6	50.0	38.9	5.6	100.0
	고창군 (30)	3.3	10.0	23.3	50.0	13.3	100.0
부안군 (30)	0.0	3.3	23.3	70.0	3.3	100.0	

‘내가 사는 지역의 사람들은 믿을 만하다’에 대해서 ‘그렇다’ 51.9%, ‘보통이다’ 37.6%, ‘그렇지 않다’ 5.6%, ‘매우 그렇다’ 4.0%, ‘전혀 그렇지 않다’ 0.9% 순으로 응답하였다. 믿을만 한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총 55.9%로 과반수 이상이 거주지역의 사람들을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 ‘그렇다’ 관련 남성의 응답이 여성보다 높았다.

연령대별로 거주지역 사람들을 믿을 만하다는 의견은 만 18~20대가 67.1%로 가장 높았고, 만 30대가 42.8%로 가장 낮은 신뢰도를 보였다. 전라북도의 6개 시에서 김제시 민 63.9%가 거주지역 사람들에 대한 가장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고, 전라북도 8개 군과 전라북도 전체 지역에서 부안군민 73.3%가 가장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표 3-107] 내 거주지역의 안전성 정도에 대한 인식

	사례수	내가 사는 지역은 안전한 곳이다.					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1000)	0.4	2.3	29.3	58.1	9.9	100.0	
성별	남	(499)	0.4	2.0	27.3	59.0	11.2	100.0
	여	(501)	0.4	2.6	31.2	57.2	8.6	100.0
연령대	만 18~20대	(152)	1.3	1.3	27.6	59.2	10.5	100.0
	만 30대	(117)	0.0	7.7	31.6	50.4	10.3	100.0
	만 40대	(169)	1.2	0.0	33.1	56.2	9.5	100.0
	만 50대	(195)	0.0	2.6	30.8	54.4	12.3	100.0
전라북도 지역	만 60대 이상	(367)	0.0	1.9	26.6	63.0	8.5	100.0
	전주시 완산구	(187)	0.0	1.6	25.1	61.0	12.3	100.0
	전주시 덕진구	(172)	0.0	1.2	33.1	51.7	14.0	100.0
	군산시	(146)	0.7	4.1	38.6	53.8	2.8	100.0
	익산시	(154)	1.9	3.2	26.0	59.7	9.1	100.0
	정읍시	(59)	0.0	1.7	32.2	59.3	6.8	100.0
	남원시	(45)	0.0	6.8	25.0	56.8	11.4	100.0
	김제시	(47)	0.0	0.0	25.5	63.8	10.6	100.0
	완주군	(53)	0.0	0.0	22.6	71.7	5.7	100.0
	진안군	(15)	0.0	6.7	20.0	66.7	6.7	100.0
	무주군	(14)	0.0	0.0	28.6	42.9	28.6	100.0
	장수군	(12)	0.0	0.0	25.0	75.0	0.0	100.0
	임실군	(18)	0.0	5.6	22.2	72.2	0.0	100.0
	순창군	(18)	0.0	0.0	27.8	44.4	27.8	100.0
	고창군	(30)	0.0	3.3	33.3	46.7	16.7	100.0
	부안군	(30)	0.0	0.0	30.0	63.3	6.7	100.0

전라북도민이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안전에 대해 68.0%가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이다’는 의견은 29.3%, 안전하지 않다는 의견은 2.7%로 지역의 안전성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냈다.

성별로는 남자 70.2%, 여자 65.8%의 비율로 거주지가 안전하다고 응답했다. 남자가 4.4% 더 안전하다고 응답했고, ‘보통이다’는 여자 31.2%, 남자 27.3%로 여자가 3.9% 더 높았다. 연령대에서는 만 60대 이상이 가장 많이 지역 안전성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전라북도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 지역에서 안전하지 않다는 의견은 7% 미만을 나타냈다. 안전하다는 응답 비율은 시 지역은 평균 67.6%, 군 지역은 71.9%로 군 지역민들이 좀 더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08] 거주지역의 이웃과의 도움정도

		사례수	나는 이웃과 도움을 주고 받는다.					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1000)	4.0	12.1	40.7	37.1	6.1	100.0
성별	남	(499)	2.6	13.3	41.4	37.3	5.4	100.0
	여	(501)	5.4	11.0	40.0	36.8	6.8	100.0
연령대	만 18-20대	(152)	5.3	17.1	44.1	27.6	5.9	100.0
	만 30대	(117)	11.1	20.5	35.9	29.1	3.4	100.0
	만 40대	(169)	6.5	14.2	37.3	37.3	4.7	100.0
	만 50대	(195)	3.6	12.8	36.4	38.5	8.7	100.0
	만 60대 이상	(367)	0.3	6.0	44.7	42.7	6.3	100.0
전북지역	전주시 완산구	(187)	5.3	13.4	43.9	31.0	6.4	100.0
	전주시 덕진구	(172)	2.9	18.6	41.3	31.4	5.8	100.0
	군산시	(146)	8.3	7.6	38.6	42.8	2.8	100.0
	익산시	(154)	4.5	15.6	44.8	29.2	5.8	100.0
	정읍시	(59)	1.7	11.9	40.7	39.0	6.8	100.0
	남원시	(45)	4.5	6.8	47.7	31.8	9.1	100.0
	김제시	(47)	0.0	12.8	27.7	46.8	12.8	100.0
	완주군	(53)	3.8	7.5	41.5	45.3	1.9	100.0
	진안군	(15)	0.0	0.0	33.3	53.3	13.3	100.0
	무주군	(14)	0.0	14.3	28.6	35.7	21.4	100.0
	장수군	(12)	0.0	0.0	16.7	83.3	0.0	100.0
	임실군	(18)	0.0	5.6	33.3	50.0	11.1	100.0
	순창군	(18)	5.6	11.1	38.9	38.9	5.6	100.0
	고창군	(30)	0.0	10.0	36.7	46.7	6.7	100.0
부안군	(30)	0.0	3.3	43.3	50.0	3.3	100.0	

‘나는 이웃과 도움을 주고 받는다’에 대해 도움을 주고 받는다는 의견이 43.2%, 보통인 것 같다는 의견이 40.7%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성별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그렇다’ 응답비율이 높았다.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만 60대 이상이 이웃과 도움을 주고 받고 있음이 49.0%로 가장 높았고, 만 50대 47.2%, 만 40대 42.0%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이웃과 상호관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살펴본 결과 완주군(47.2%), 순창군(44.5%)을 제외하고 대체적으로 군 지역이 시 지역보다 이웃과 도움을 주고 받고 있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 중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완주군(3.8%), 순창군(5.6%)을 제외한 모든 군에서는 0.0%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09] 내 거주지역 이웃과의 교류정도

	사례수	나는 이웃집과 자주 왕래하는 편이다.					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1000)	10.2	21.3	33.6	31.3	3.6	100.0	
성별	남	(499)	9.4	21.1	33.1	32.7	3.6	100.0
	여	(501)	11.0	21.6	34.0	29.8	3.6	100.0
연령대	만 18~20대	(152)	15.1	19.7	30.9	28.9	5.3	100.0
	만 30대	(117)	23.9	38.5	17.1	17.9	2.6	100.0
	만 40대	(169)	16.6	27.2	34.3	18.3	3.6	100.0
	만 50대	(195)	10.3	22.1	37.9	25.6	4.1	100.0
	만 60대 이상	(367)	0.8	13.4	37.3	45.5	3.0	100.0
전라북도 지역	전주시 완산구	(187)	15.5	23.0	41.2	16.6	3.7	100.0
	전주시 덕진구	(172)	12.8	30.2	32.6	21.5	2.9	100.0
	군산시	(146)	10.3	18.6	38.6	29.7	2.8	100.0
	익산시	(154)	11.7	22.7	26.6	37.7	1.3	100.0
	정읍시	(59)	3.4	27.1	27.1	40.7	1.7	100.0
	남원시	(45)	6.8	20.5	34.1	31.8	6.8	100.0
	김제시	(47)	2.1	14.9	25.5	51.1	6.4	100.0
	완주군	(53)	9.4	11.3	39.6	37.7	1.9	100.0
	진안군	(15)	6.7	6.7	26.7	53.3	6.7	100.0
	무주군	(14)	14.3	21.4	7.1	35.7	21.4	100.0
	장수군	(12)			25.0	66.7	8.3	100.0
	임실군	(18)		11.1	38.9	44.4	5.6	100.0
	순창군	(18)	16.7	11.1	38.9	27.8	5.6	100.0
	고창군	(30)		26.7	26.7	40.0	6.7	100.0
	부안군	(30)	3.3	6.7	36.7	50.0	3.3	100.0

‘나는 이웃집과 자주 왕래하는 편이다’는 ‘보통이다’ 33.6%, ‘그렇다’ 31.3%, ‘그렇지 않다’ 21.3%, ‘전혀 그렇지 않다’ 10.2%, ‘매우 그렇다’ 3.6% 순이었다. 자주 왕래하는 편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총 34.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보통이다’ 33.6%와 근소한 차이를 나타냈다. 성별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그렇다’ 응답비율이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가장 왕래가 잦은편이라고 응답한 집단은 만 60대 이상 집단으로, 48.5%가 자주 왕래한다고 응답하였고, 만 30대가 20.5%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 지역별로 살펴보면 무주군이 ‘매우 그렇다’에 대한 응답이 21.4%로 상대적으로나 매우 높게 나타났고, 자주 왕래한다는 편이 총 57.1%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반대로 자주 왕래하지 않는 편이 총 35.7%이며, 타 지역에 비해 ‘보통이다’의 비율이 7.1%로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10] 거주지역 모임의 참여정도

		사례수	나는 지역사회에서 모임이 많은 편이다.					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1000)	11.7	20.0	34.9	29.1	4.3	100.0
성별	남	(499)	7.8	20.6	36.5	30.7	4.4	100.0
	여	(501)	15.6	19.4	33.3	27.5	4.2	100.0
연령대	만 18-20대	(152)	15.1	14.5	38.2	28.9	3.3	100.0
	만 30대	(117)	29.1	29.9	23.9	11.1	6.0	100.0
	만 40대	(169)	15.4	24.9	34.9	23.7	1.2	100.0
	만 50대	(195)	9.2	22.6	34.4	28.7	5.1	100.0
	만 60대 이상	(367)	4.4	15.5	37.3	37.6	5.2	100.0
전라북도 지역	전주시 완산구	(187)	13.4	19.8	39.6	22.5	4.8	100.0
	전주시 덕진구	(172)	12.8	25.0	32.6	27.3	2.3	100.0
	군산시	(146)	15.1	14.4	37.0	30.1	3.4	100.0
	익산시	(154)	13.6	26.0	27.3	30.5	2.6	100.0
	정읍시	(59)	11.9	16.9	30.5	33.9	6.8	100.0
	남원시	(45)	8.9	22.2	33.3	31.1	4.4	100.0
	김제시	(47)	6.4	21.3	38.3	25.5	8.5	100.0
	완주군	(53)	7.5	13.2	49.1	28.3	1.9	100.0
	진안군	(15)	13.3	33.3	33.3	13.3	6.7	100.0
	무주군	(14)	21.4	7.1	14.3	42.9	14.3	100.0
	장수군	(12)	0.0	8.3	50.0	41.7	0.0	100.0
	임실군	(18)	5.6	5.6	27.8	55.6	5.6	100.0
	순창군	(18)	11.1	16.7	38.9	33.3	0.0	100.0
	고창군	(30)	3.3	23.3	36.7	23.3	13.3	100.0
부안군	(30)	0.0	13.3	33.3	46.7	6.7	100.0	

지역사회 모임에 대해 많다고 생각하는 전라북도민은 33.4%였고, ‘보통이다’ 34.9%, 많지 않다는 31.7%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지역사회에서 모임 정도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만 30대 집단에서만 지역사회 모임이 많지 않다는 응답이 59.0%로 많은 응답 17.1%보다 41.9%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만 40대에서도 각 40.3%, 24.9%를 나타내며 모임이 많지 않다는 의견이 그렇다라는 의견보다 15.4% 더 높게 나타났다. 해당 연령대는 직장 활동을 활발히 하는 시기로 사적 모임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 추측된다. 지역에서는 임실군이 전체 시군에서 가장 지역사회에서 모임정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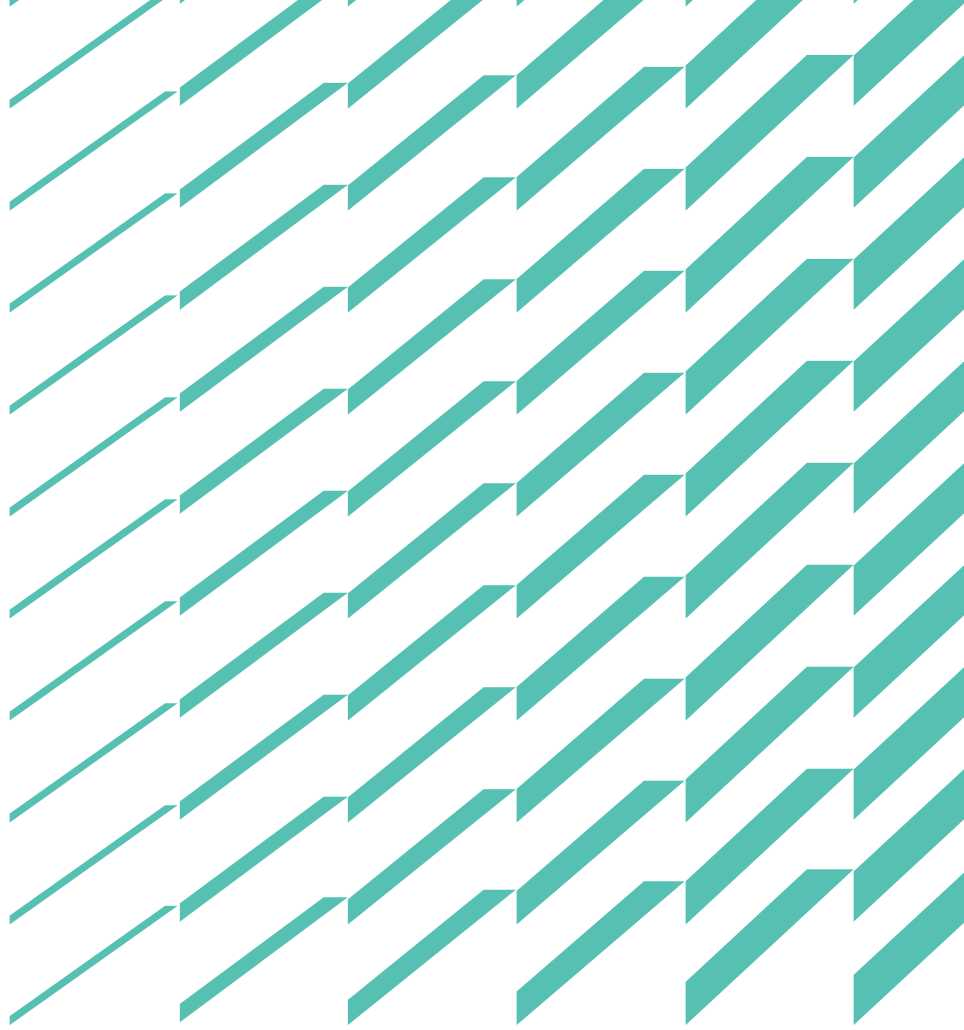
[표 3-111] 내 거주지역에 대한 자원봉사 참여정도

		사례수	나는 지역사회를 위해 자원봉사를 하는 편이다.					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1000)	18.7	23.8	27.6	24.4	5.5	100.0
성별	남	(499)	14.2	25.5	29.7	25.3	5.4	100.0
	여	(501)	23.2	22.2	25.5	23.6	5.6	100.0
연령대	만 18-20대	(152)	23.7	24.3	22.4	25.0	4.6	100.0
	만 30대	(117)	34.2	26.5	18.8	17.1	3.4	100.0
	만 40대	(169)	11.8	31.4	36.7	17.2	3.0	100.0
	만 50대	(195)	15.4	17.9	31.3	28.7	6.7	100.0
	만 60대 이상	(367)	16.6	22.3	26.4	27.5	7.1	100.0
전라북도 지역	전주시 완산구	(187)	18.7	21.9	26.7	23.5	9.1	100.0
	전주시 덕진구	(172)	14.5	28.5	30.2	22.1	4.7	100.0
	군산시	(146)	21.2	28.1	28.1	20.5	2.1	100.0
	익산시	(154)	27.3	26.6	22.7	20.8	2.6	100.0
	정읍시	(59)	20.3	16.9	30.5	30.5	1.7	100.0
	남원시	(45)	22.2	22.2	17.8	35.6	2.2	100.0
	김제시	(47)	8.5	19.1	34.0	31.9	6.4	100.0
	완주군	(53)	15.1	22.6	28.3	30.2	3.8	100.0
	진안군	(15)	13.3	40.0	6.7	26.7	13.3	100.0
	무주군	(14)	21.4	21.4	28.6	7.1	21.4	100.0
	장수군	(12)	8.3	8.3	58.3	8.3	16.7	100.0
	임실군	(18)	22.2	16.7	16.7	33.3	11.1	100.0
	순창군	(18)	22.2	16.7	44.4	16.7		100.0
	고창군	(30)	6.7	10.0	33.3	33.3	16.7	100.0
부안군	(30)	13.3	20.0	26.7	33.3	6.7	100.0	

전라북도민의 지역 자원봉사를 하는 편이 아닌 의견이 42.5%, 하는 편이라는 의견이 29.9%, '보통이다'가 27.6%로 지역 자원봉사 수준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지역사회를 위해 자원봉사를 더 많이 하는 편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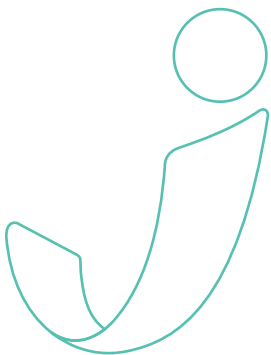
연령대별로 만 30대 집단이 자원봉사를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0.7%로 가장 높았고, 만 18~20대 48.0%, 만 40대 43.2% 순이었다.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지역사회를 위한 자원봉사는 전라북도의 6개 시에서는 김제시가 38.3%로 가장 높았고, 남원시 37.8%, 전주시 완산구 32.6% 순으로 높았다. 전라북도 8개 군에서의 지역 자원봉사는 임실군 44.4%, 진안군·부안군 40.0%, 완주군 34.0%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제4장

요약 및 결론



제4장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전북도민의 전반적인 사회적 가치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대상은 전라북도 관내에 거주하는 19세 이상의 성인으로 온라인 조사와 면접조사를 병행하였다. 조사대상자의 표집은 전북연구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민모니터링단과 조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온라인 패널로서 도내 14개 시군의 인구구성비와 남성과 여성의 성비에 맞춰 표본을 배분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전라북도 도민인식조사는 가족 및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 정치인식과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 도민 및 국민으로서의 정체성과 신뢰, 사회활동 및 지역사회환경에 대한 평가 등으로 문항을 구성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전라북도 도민의 및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에서는 배우자 선택 시 배우자 선택시 가장 중요한 점으로는 1순위에서 성격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경제력, 가정환경, 장래성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성별에서는 남성, 여성 모두 배우자 선택 시 성격을 가장 중시했다. 직업선택에 있어 여성은 보수와 개인적성 다음으로 복리후생을 더욱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어 남성보다는 장래성에 대한 고려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한, 중요한 사회적 가치판단의 대척점에 있는 사형제도나 낙태, 혼전동거 그리고 동성애에 대한 동의정도에서는 사형제도와 낙태에 대해서는 평균 5점에서 긍정적인 인식이 우세한 반면 동성애는 부정적인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출산을 추정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이상적인 자녀수에 대해서는 2명이라는 과반이 넘는 63.1%였고 3명 20.2% 그리고 1명 10.0% 등의 순으로 나타나 이상적인 자녀의 수는 합계출산율이 0.8명대에 불과한 현실과는 다소 괴리를 보였다. 또한 전북도민은 약 44.5% 정도가 여성차별이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특히 남성조차도 34.9%는 여성차별이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일가정 양립의 기준이 되는 가사돌봄에 대한 책임에서는 여성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여전히 17.0%로 남성이 책임이라는 인식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한편, 전라북도 도민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건강을 가장 높게 보고 있었고 다음으로 가정, 능력개발, 성공 등의 순이었다.

다음으로 정치인식과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의 주요 문항에서는 먼저 정치성향으로 전북도민은 진보가 45.6%로 중도 38.6%보다도 높았고 정치에 대한 관심도도 50.4%로 관심이 없다는 20.4%의 두배 이상 높게 나타나 전북도민은 진보의 정치성향에 정치 고관심층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경제적 생활수준에 대한 평가에서는 중하류 이하로 인식하고 있는 도민이 34.9%로 중상류층 이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도민의 비율인 11.4%보다도 약 세배 이상 높게 나타나 전북도민은 다수가 중하류층 이하로 평가하고 있다.

주요 인물이나 단체에 대한 신뢰도에서는 소방관이 71.4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의사 61.23점, 기상청 61.18점 등의 순이었고, 신뢰도가 가장 낮은 직업군으로는 무속인 19.1점, 종교인 38.5점 등의 순으로 나타나 무속인 다음으로 종교인이 가장 낮은 신뢰도를 보인 것도 특징이다

전북도민의 직업에 대한 만족정도는 48.2%로 불만족한다는 의견보다도 월등히 높게 나타났고, 직업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으로 보수와 개인적 적성 그리고 장래성 등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다만, 여성의 경우에는 보수와 개인적성 다음으로 복리후생을 더욱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어 남성보다는 장래성에 대한 고려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도민 및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조사에서는 먼저 전북도민으로서의 가장 큰 장점으로 근면과 여유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가장 큰 단점으로는 단결심 부족과 소극적 태도 그리고 창의성이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또한 타지역에 비해서 차별받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89.5%의 도민이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절대 다수의 도민이 지역적 차별성이 실재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전라북도의 발전전망에 대해서는 발전할 것이라는 의견과 낙후될 것이라는 의견이 각각 20%대로 유사한 수준이었고 전라북도를 떠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57.1%는 전라북도를 떠나고 싶지 않다고 응답하였고 42.9%는 전라북도를 떠나고 싶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아직까지는 전라북도를 떠나고 싶지 않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여전히 전체 도민의 약 40% 이상은 전라북도를 떠나고 싶어하는 욕구가 존재하고 있다. 전라북도를 떠나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는 문화혜택 부족과 직장이나 사업의 문제 그리고 전북의 낙후성과 경제적 문제를 지적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사회참여와 공동체성 영역에서의 질문에서는 먼저 전북도민의 60%정도는 지역 내에서 모임이나 단체에 참여하고 있고 참여하고 있는 단체의 평균개수는 약 2.76개였

다. 전체 도민의 약 46.5%정도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기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평균 기부금액도 112.21만원이었다.

전북도민의 문화 및 여가활동 중 공연, 전시관람 이용정도에 대한 이용빈도를 보면, 전체 조사대상자의 약 40.5%는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고 참여한 경우 두 번이 18.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년에 한번이 14.2% 정도였다. 전북도민의 47.4%는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있었고 월평균 12.28회의 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라북도 도민의 약 23.7%는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평가와 인식 영역에서는 먼저 환경오염도에 대한 인식은 상수도 오염이 가장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다음으로 하수도오염, 소음 및 진동, 토양오염, 악취 등의 순이었다. 전북 도민의 정보에 대한 소식원은 포털사이트가 33.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TV, 사람과의 대화, 유튜브 등의 순이었다. 정보매체에 대한 신뢰도에서는 TV가 41.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포털사이트, 유튜브 및 신문 등의 순이었다.

본 연구는 전라북도 도민을 대상으로 사회적 가치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중심으로 한 조사로서 전술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도정의 정책방향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가령, 자녀출산 계획이나 적정 자녀수, 이주계획 등에 대한 조사는 향후 전라북도의 가족정책과 인구정책의 큰 방향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또한 전라북도 도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정체성 그리고 향후 지역 경제상황에 대한 전망은 전라북도의 미래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실천과제를 도출하는데 의미있는 시사점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도민의 여가문화활동과 관련 인프라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나 사회활동에 대한 도민의 가치성향 등은 도정의 여가정책 더 나아가서는 문화정책 전반을 구성하는데 상당한 정책적 논거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본 연구는 전라북도 도민만을 대상으로 주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다는 점에서 타시도와의 비교하에서의 정책적 시사점을 찾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사회적 가치만의 아닌 경제와 문화, 산업을 아우르는 다양한 관점의 설문문항 구성과 함께 조사범위를 타시도까지 확대하여 전라북도의 수준을 타지역과 객관적으로 비교하고 평가할 수 있는 후속연구가 진행되길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REFERENCE

- 도민 62.3% “코로나, 나도 걸릴 것 같다”. (2020. 10. 26). [강원일보]. <http://m.kwnews.co.kr/page/view/2020102500000000093>
- 인천e음카드 지역경제 활성화 역할 '톡톡'. (2021.05.06.). [경기신문].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644234>
- 인천시민 86.9%, “서울·경기 쓰레기 인천 처리 문제 있다”. (2021.06.28.). [인천투데이]. <https://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559>
- 기영화. (2017). 지방자치단체 문화자본이 지역주민의 만족도와 지역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지방행정연구, 31(4), 85-110.
- 김성하, 이관형, 유명한 & 황선아. (2019). 경기도 정체성 및 도민의 자긍심 강화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 경기연구원.
- 김수정, 이명진 & 최섯별. (2015). 문화예술교육 경험이 개인의 문화자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문화정책논총, 29(2), 4-24.
- 김정훈, 오재호, 김태영, 유정균, 최혜진, 이다겸, 김재신 & 박원익. (2020). 경기도민이 바라본 코로나 19. 경기연구원.
- 김평화, 오정아, 유재언 & 임소진. (2020). 충청남도 복지욕구 실태조사. 충청남도 사회서비스원.
- 김필동. (2002). 한국전통사회의 공동체와 개인. 사회와 이론 제1집 창간호, 15-48.
- 김현숙. (2011). 부모의 인적자본, 사회자본, 문화자본이 자녀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빈곤 학생과 비빈곤 학생 차이를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20, 123-150.
- 남근우 & 전유정. (2020). 2020 인천광역시 평화·통일인식 조사 : 시민과 중·고교생을 중심으로. 인천연구원.
- 문순덕 & 김석윤. (2018). 제주도민의 여가생활 실태와 활성화 방안. 제주연구원.
- 문유정. (2020). 사회적 자본이 직무만족을 매개로 협력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인적자원관리연구, 23(4), 81-100.
- 문유정 & 이명신. (2021). 경제자본이 중년기 성인의 주관적 행복에 미치는 영향-사회자본과 인적자본의 단일 매개효과 및 이중 매개효과. 사회과학연구, 37(1), 243-273.
- 문유정, 조준 & 박상하. (2019). 나주지역 주민의 문화자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인적자

본의 매개효과. 지역사회연구, 1-20.

- 박보경 & 배상훈. (2019). 중학생의 개인, 가정, 학교 문화자본이 고교 진한 후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아시아교육연구, 20(4), 985-1010.
- 박희봉 & 김명환. (2001). 우리나라 지역사회의 사회자본 증진에 관한 연구: 사회자본 측정과 분석을 위한 시도. 한국정치학회보, 34(4), 219-237.
- 서울연구원. (2018). 2018년도 서울시민 인권의식 실태조사.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2020). 서울시민 남북교류협력 의식조사 결과.
- 서지원 & 이수진. (2021). 중년 무배우남성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인적자본과 사회자본의 효과 분석: 1 인가구와 다인가구의 비교를 중심으로.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25(4), 87-99.
- 설현도. (2015). 사회적 자본과 지식공유의 관계에 대한 연구. 대한경영학회지, 28(1), 141-158.
- 심재희. (2003). 한국의 광역자치단체에서 인적자본의 지역성장효과 분석. 국토계획, 38(7), 201-209.
- 유영성, 지우석, 이기영, 김동성, 봉인식, 최준규, 강현철, 김선영 & 정두승. (2017). 2017 경기도에 바란다. 경기연구원.
- 유은영 & 진현정. (2016). 베이비붐세대의 문화자본과 경제자본이 문화예술 소비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학연구, 27(6), 79-103.
- 유정균, 김동영, 유영성, 이상훈, 김을식, 김정훈, 박경철, 오재호, 이은환, 정대영, 김세현, 신동훈, 박서연, 박누리 & 최혜진. (2021). 2020 경기도민 삶의 질 조사. 경기연구원.
- 이홍직. (2009). 노인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자본 특성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5(3), 25-42.
- 이희태. (2014).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상에서 사회적 자본 형성 요인 및 사회적 자본과 소비 성향과의 관계. 소비문화연구, 17(3), 105-130.
- 충남연구원. (2018). 도민 안전의식(인식)수준 조사 결과보고서. 충청남도.
- 충북지원특별법 도민 인식 조사결과. (2022). 충북연구원.
- 충청남도. (2020). 2020 도민의 삶과 정책.
- 최명일, 이귀옥 & 박조원. (2017). 문화 자본이 미술관 체험 만족 및 관람 후 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 문화정책논총, 31(2), 55-73.
- 최민정. (2015). 중고령 여성의 사회적 자본과 경제적 자본의 관계에 관한 연구: 연령대별 비교. 보건사회연구, 35(2), 124-163.
- 최은희. (2018). 미취업 청년의 취업(준비)활동과 정신건강의 관계 -청년패널조사를 중심으로-.

충북연구원.

최혜지, 이소영 & 정순돌. (2015). 인적자본, 사회적 자본, 우울의 최적모형 탐색과 영향관계 분석,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3(2). 149-175.

현혜경. (2022). 탐라문화제 평가 및 진단. 제주연구원.

호유정. (2008). 지역의 인적자원이 지역 소득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국토계획, 43(6), 111-120.

Bourdieu, P. (1984). A social critique of the judgement of taste. Traducido del francés por R. Nice. Londres, Routledge.

DiMaggio.(1982). Cultural capital and school success: The Impact of status culture participation on the Grades of U.S. high school student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7(2), 189-201.

네이버 지식백과 홈페이지. (<https://terms.naver.com/>).

레가툼 연구소 홈페이지. (<https://www.prosperity.com/>).

The 2022 Value System Survey of the Residents of Jeollabuk-do

Jung-Seb Lee · Yoon-Kyu Choi · Hyo-In Sung

1. Study Objectives and Methods

- Since the social values and awareness of residents are important factors in determining the overall awareness of Jeollabuk-do generally as well as Korean society, there is a need for research that objectively diagnoses and analyzes the standards for the residents' value judgements regarding key social issues.
- By objectively diagnosing the subjective awareness of residents regarding key social values, the results can be utilized as important base data for setting the policy direction of the Jeollabuk-do administration.
- Diagnosis of resident awareness regarding family or social values, or the subjective awareness and attitude regarding future prospects of political and economic situations, can be utilized as important grounds for policy development centered on residents.
- By investigating the residents' attitude towards Jeollabuk-do's key pending issues (low fertility rate and population crisis; social participation and common identity; and the level of social trust and identity among residents), the results can be used as important reference data for diagnosing the current level of social values perceived by residents of Jeollabuk-do and determining the direction of policies for its future.

- In this study, a thousand residents residing in Jeollabuk-do were surveyed to discover the subjective awareness of Jeollabuk-do residents regarding general social values.
- The targets for the survey were adults living within Jeollabuk-do aged 19 or older, and online surveys and interviews were both utilized. An online panel of the resident monitoring group and investigating agency managed by the Jeonbuk Institute conducted the sampling of survey participants. The sample was divided according to the population composition ratio and gender ratio of men and women in 14 cities and counties within the province.
- The Jeollabuk-do resident value survey consisted of questions regarding awareness concerning family and social values; political awareness and evaluation of economic situations; identity and trust as residents and citizens; evaluation of social activities; and the environment of the local commun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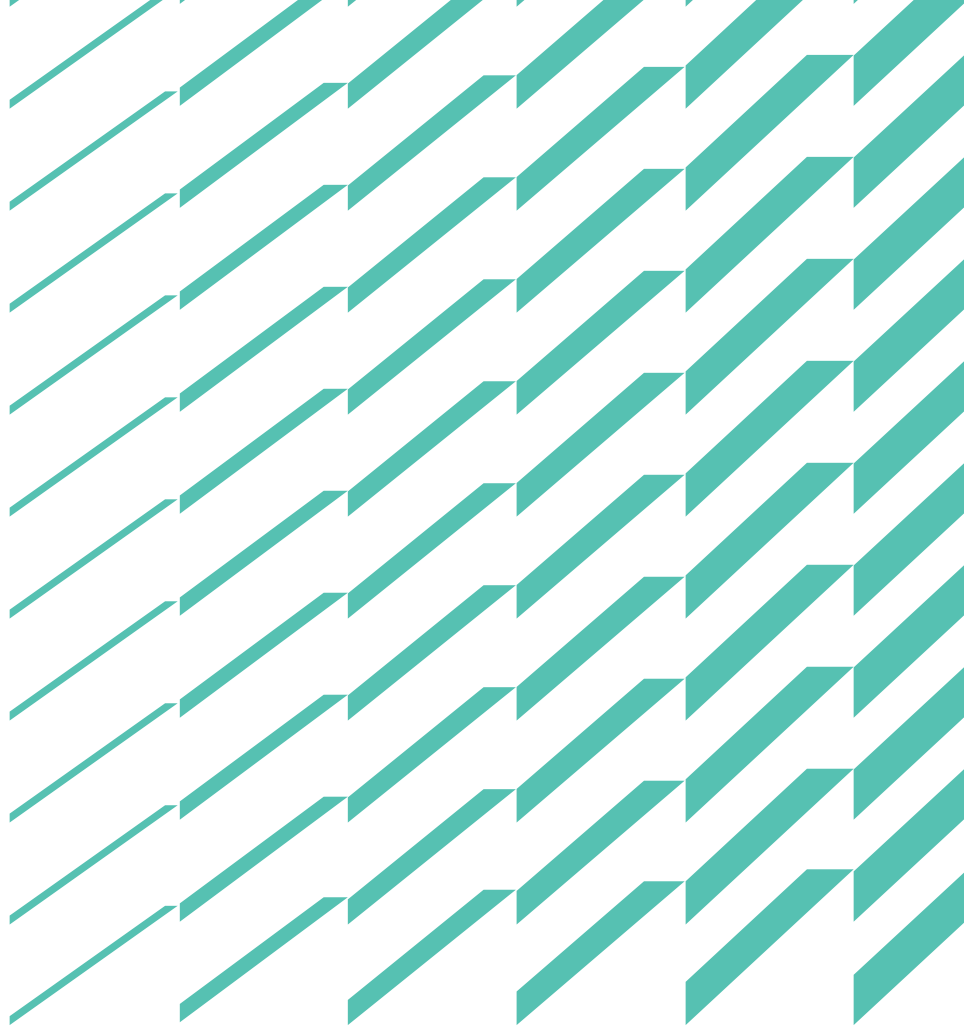
2. Conclusion and Policy Suggestions

- Regarding awareness of Jeollabuk-do residents' social values, respondents answered that they value personality as the most important feature when selecting a partner, followed by financial means, household environment, appearance, and future potential.
- Regarding ideal number of children (an important standard to estimate fertility rate), 63.1% answered two, 20.2% three, and 10.0% one, so the number of ideal number of children showed a gap with reality, as the total fertility rate is only 0.8 children.

- Approximately 44.5% of Jeollabuk-do residents perceived that there is discrimination against females, and 34.9% of the men also thought there is discrimination against females.
- Regarding the political inclination of respondents, 45.6% were liberal, which was a higher number than 38.6% who were in the middle, and 50.4% were interested in politics, which was double the 20.4% who said they were not interested. This shows that Jeollabuk-do residents with a liberal political inclination are most interested in politics.
- Regarding evaluation of financial living standards, 34.9% of respondents perceived themselves as lower middle class, while less than one third that figure perceived themselves as upper middle class, at 11.4%, which shows that most Jeollabuk-do residents perceive themselves as lower middle class.
- Regarding job satisfaction, 48.2% of respondents said that they were satisfied, a number much higher than for those who were dissatisfied. Compensation, personal aptitude, and future potential were some of the factors that respondents considered most important when choosing an occupation.
- The survey on plans for children, appropriate number of children, plans to move, etc. can be used as important reference data for setting the overall direction of Jeollabuk-do's family and population policies.
- Moreover, the sense of belonging and identity as a Jeollabuk-do resident, and prospects about the local economy can become meaningful implications for deducing implementation tasks to nurture its future industries.

Key Wor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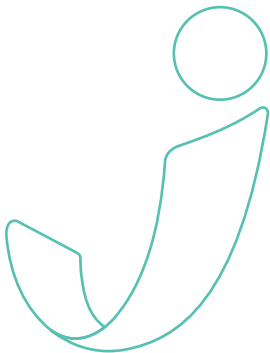
Value System Survey, Social Values, Resident Value Survey, Local Community



부록

1. 2023 전북 행복지표 및 전북도민 의식구조 조사

※ 행복지표 조사와 전라북도민 의식구조 조사 동시 진행,
문1~35번은 전라북도민 의식구조와 관련된 내용



2023 전북 행복지표 및 전라도민 의식구조 조사

안녕하십니까?

전북연구원은 전북 행복지표 및 전라북도 도민의 의식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에서 맞고 틀리는 답은 없으며, 평소에 생각하시는 대로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 및 통계목적으로만 사용되며,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적인 사항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또한 전라북도 정책 개발을 위한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오니 바쁘시더라도 성의껏 응답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월

설문지를 작성하시는 중에 의문점이나 건의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 전북연구원

연구원 : 최윤규(☎ 063-280-7180) / 성효인(☎ 063-280-7166) / 김현수(☎ 063-280-7137)

SQ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남 ② 여

SQ2. 귀하의 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만 ()세

SQ3a. 귀하의 거주 지역은 어디입니까?

- | | | | | | |
|------|------|------|------|------|------|
| ① 서울 | ② 부산 | ③ 대구 | ④ 인천 | ⑤ 광주 | ⑥ 대전 |
| ⑦ 울산 | ⑧ 세종 | ⑨ 경기 | ⑩ 강원 | ⑪ 충북 | ⑫ 충남 |
| ⑬ 전북 | ⑭ 전남 | ⑮ 경북 | ⑯ 경남 | ⑰ 제주 | |

SQ3b. 귀하의 거주하고 있는 전북 지역은 어디입니까?

- ① 전주시 완산구 ② 전주시 덕진구 ③ 군산시 ④ 익산시 ⑤ 정읍시
 ⑥ 남원시 ⑦ 김제시 ⑧ 완주군 ⑨ 진안군 ⑩ 무주군
 ⑪ 장수군 ⑫ 임실군 ⑬ 순창군 ⑭ 고창군 ⑮ 부안군

문 1. 귀하는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십니까? 두 개를 순서대로
 골라 주십시오.

- ① 성격 ② 경제력 ③ 장래성 ④ 가정환경 ⑤ 종교
 ⑥ 외모 ⑦ 취미 ⑧ 학력 ⑨ 직업 ⑩ 거주지역
 ⑪ 기타

문 2. 귀하는 다음의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는 편	동의하는 편	매우 동의함
	①	②	③	④
1. 결혼은 해야 한다				
2. 이혼할 수 있다				
3. 재혼할 수 있다				
4. 자녀는 있어야 한다				
5. 아들은 있어야 한다				
6. 노부모와 같이 살아야 한다				

문 3. 귀하는 다음의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는 편	동의하는 편	매우 동의함
	①	②	③	④
1. 결혼은 해야 한다				
2. 이혼할 수 있다				
3. 재혼할 수 있다				
4. 자녀는 있어야 한다				
5. 아들은 있어야 한다				
6. 노부모와 같이 살아야 한다				

문 4. 귀하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녀 수는 몇 명입니까? _____명

문 5. 귀하는 다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이 차별받는다			남성이 차별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중간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여성이 가사 돌봄을 책임져야 한다			남성이 가사 돌봄을 책임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중간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문 6. 귀하가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개를 순서대로 골라 주십시오.

- ① 건강 ② 가정 ③ 능력개발 ④ 성공 ⑤ 명예
 ⑥ 정신적 수양 ⑦ 신앙 ⑧ 취미/여가 ⑨ 이성교제 ⑩ 인간관계
 ⑪ 외모 ⑫ 기타

문 7. 현재 귀하는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계십니까? ① 하지 않는다. ② 한다

문 8. (문 7에서 **한다**에 응답한 분만) 현재 어떤 운동을 얼마나 하십니까? 종목/월 평균 약 회

문 9. 현재 귀하의 정치 성향은 어디에 가깝습니까?

- ① 매우 보수 ② 약간 보수 ③ 중도 ④ 약간 진보 ⑤ 매우 진보

문 10. 귀하는 정치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 ① 전혀 관심 없음 ② 별로 관심 없음 ③ 보통 ④ 약간 관심 있음 ⑤ 매우 관심 있음

문 11. 귀하의 생활 수준은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상류 ② 중상류 ③ 중류 ④ 중하류 ⑤ 하류

문 15. 귀하는 현재 재테크 수단으로 어느 것을 활용하고 계십니까? 해당하는 곳에 모두 체크해 주십시오.

- ① 부동산 ② 주식 ③ 펀드 ④ 예적금 ⑤ 코인
 ⑥ 채권 ⑦ 골동품/미술품 ⑧ 금은 등 귀금속 ⑨ 외환 ⑩ 기타
 ⑪ 없음

문 16. 귀하의 생활비 중에 가장 부담을 느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개를 순서대로 골라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① 식생활비(주식, 부식, 외식 등) ② 주거비(전월세비, 관리비 등) ③ 교육비 ④ 의료비 ⑤ 의류잡화비
 ⑥ 저축, 투자금 ⑦ 개인보험, 연금 ⑧ 원리금 상환 ⑨ 경조사비 ⑩ 교통, 자동차 유지
 ⑪ 공공서비스(가스, 전기, 수도 등) ⑫ 정보통신비 ⑬ 내구재 구입비(자동차, 가전 등)
 ⑭ 여가, 여행비 ⑮ 노인, 돌봄, 영유아 보육비 ⑯ 국민연금, 사회보험 ⑰ 보건위생비
 ⑱ 세금 ⑲ 유희비 ⑳ 용돈 ㉑ 기타

문 17. 다음 중 귀하의 생각에 가장 가까운 것을 골라주십시오.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는 편	동의하는 편	매우 동의함
	①	②	③	④
1. 국가가 복지를 책임져야 한다				
2. 능력에 관계없이 모두가 잘 살아야 한다				
3.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분배는 공정한 편이다				

문 18. 귀하는 전라북도 도민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개를 순서대로 골라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① 근면 ② 검소 ③ 여유 ④ 창의성 ⑤ 인내심
 ⑥ 포용력 ⑦ 의리 ⑧ 인정 ⑨ 책임감 ⑩ 단결심
 ⑪ 합리성 ⑫ 예의 ⑬ 화목 ⑭ 적극성 ⑮ 기타()

문 19. 귀하는 전라북도 도민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개를 순서대로 골라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① 게으름 ② 사치 ③ 조급성 ④ 창의성 부족 ⑤ 안내심 부족
 ⑥ 포용력 부족 ⑦ 의리 없음 ⑧ 인정 없음 ⑨ 무책임 ⑩ 단결심 부족
 ⑪ 비합리성 ⑫ 예의 없음 ⑬ 시기, 질투 ⑭ 소극적 ⑮ 기타()

문 20. “전라북도가 타 지역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다” 는 말이 있습니다. 귀하는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②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③ 어느 정도 동의한다
 ④ 매우 동의한다 ⑤ 잘 모르겠다.

문 21. 귀하는 향후 10년 후에 전라북도가 어느 정도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 ① 지금보다 매우 낙후될 것이다. ② 지금보다 조금 낙후될 것이다. ③ 지금과 비슷할 것이다.
 ④ 지금보다 조금 발전할 것이다. ⑤ 지금보다 매우 발전할 것이다.

문 22. 귀하는 다음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1. 나는 전라북도 사람인 것이 자랑스럽다					
2. 내 자손도 전라북도에서 살기를 바란다					
3. 전라북도는 살기 좋은 곳이다					
4. 전라북도 역사는 자랑스럽다					
5. 전라북도 사람들은 인정이 많다					
6. 전라북도 사람들은 애항심이 강하다					
7. 전라북도 사람들은 단결력이 강하다					
8. 전라북도 사람들은 신뢰할 수 있다					
9. 전라북도 사람들은 적극적이다					
10. 전라북도 사람들은 포용력이 강하다					

문 23. 귀하는 다음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1. 나는 대한민국 사람인 것이 자랑스럽다					
2. 내 자손도 대한민국에서 살기를 바란다					
3. 대한민국은 살기 좋은 곳이다					

문 24. 귀하는 현재 살고 계신 지역에서 모임 또는 단체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① 참여하지 않는다. ② 참여한다.

문 25. (문24에서 ‘참여한다’ 에 응답한 분만) 귀하는 현재 살고 계신 지역에서 몇 개의 모임 또는 단체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약 _____개

문 26. 귀하는 지난 1년간 개인이나 단체에 얼마나 기부하셨습니다습니까?

기부여부	기부금액
① 안했다	-
② 했다	연 약 _____만원

문 27. 귀하는 아래 상황에서 가족을 제외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몸이 아플 때	① 없다	② 있다 약 _____명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	① 없다	② 있다 약 _____명
마음 터놓고 이야기하고 싶을 때	① 없다	② 있다 약 _____명

문 28. 귀하가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3순위까지 골라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 ① 배우자 ② 자녀 ③ 부모 ④ 조부모 또는 손자녀
 ⑤ 형제자매 ⑥ 친인척 ⑦ 친구 및 선후배 ⑧ 이웃 ⑨ 직장동료
 ⑩ 종교단체 ⑪ 행정기관 ⑫ 상담 전문기관 ⑬ 기타 ⑭ 없다

문 29. 귀하는 전라북도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옮기실 생각이 있습니까?

- ① 전혀 옮기고 싶지 않다
- ② 별로 옮기고 싶지 않다
- ③ 기회가 주어지면 옮기겠다
- ④ 반드시 옮기겠다.

문 30. (문29에서 ③, ④ ‘옮기겠다’ 에 응답한 분만) 귀하가 전라북도를 떠나고 싶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두 개를 순서대로 골라 시오.

1순위() 2순위()

- ① 교통시설 부족 ② 교육 문제 ③ 문화 혜택 부족 ④ 경제적 문제
- ⑤ 직장이나 사업문제 ⑥ 개인적 활동 영역을 넓히기 위해 ⑦ 전북이 낙후되어서
- ⑧ 주민들의 의식 수준이 낮아서 ⑨ 전북 지역의 환경(공해 등)이 좋지 않아
- ⑩ 주거 문제 ⑪ 타향이거나 아는 사람이 없어서
- ⑫ 뚜렷한 이유는 없지만, 왠지 옮기고 싶어서 ⑬ 기타

문 31. 귀하 가정은 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십니까? 모두 골라주십시오.

- ① 없다 ② 개 ③ 고양이 ④ 기타

문 32. 귀하는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환경오염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매우 심각	대체로 심각	보통	별로 심각하지 않음	전혀 심각하지 않음
	①	②	③	④	⑤
1. 상수도 오염					
2. 하수도 오염					
3. 소음 및 진동					
4. 악취					
5. 대기오염					
6. 토양오염					
7. 하천오염					

문 33. 귀하는 주로 무엇을 통해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알고 있습니까?

- ① 신문 ② 텔레비전 ③ 라디오 ④ 사람들의 대화, 소문
- ⑤ 잡지 ⑥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 ⑦ 유튜브
- ⑧ SNS(페이스북, 트위터 등) ⑨ 인터넷메신저(카카오톡 등) ⑩ 기타()

문 34. 귀하는 다음의 정보 전달 매체 중에서 어느 것을 가장 신뢰하십니까?

- ① 신문 ② 텔레비전 ③ 라디오 ④ 사람들과의 대화, 소문
 ⑤ 잡지 ⑥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 ⑦ 유튜브
 ⑧ SNS(페이스북, 트위터 등) ⑨ 인터넷메신저(카카오톡 등) ⑩ 기타()

문 35. 귀하는 다음 온라인을 얼마나 이용하십니까?

구분	전혀 안한다	어쩌다 한번씩 한다	거의 매일 한다	매일 한다
	①	②	③	④
1.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				
2. 유튜브				
3. SNS(페이스북, 트위터 등)				
4. 인터넷메신저(카카오톡 등)				

문 36. 귀하는 거주하는 지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1. 내가 사는 지역의 사람들은 믿을 만하다					
2. 내가 사는 지역은 안전한 곳이다					
3. 나는 이웃과 도움을 주고 받는다					
4. 나는 이웃집과 자주 왕래하는 편이다					
5. 나는 지역사회에서 모임이 많은 편이다					
6. 나는 지역사회를 위해 자원봉사를 하는 편이다					

문 37.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다음의 문화/여가 관련 시설을 몇 번이나 이용하였습니까? 이용한 경험이 있다면 해당 경험에 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구분		이용정도					이용 만족도				
		없음	한번	두번	세번	네 번 이상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	공연, 전시 관람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	영화보기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	미술활동, 악기연주, 춤/무용, 사진촬영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기본연구 2023-07

2022 전라북도민 의식구조 조사

발행인 | 김보국

발행일 | 2023년 5월 31일

발행처 | 전북연구원

55068 전북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

전화: (063)280-7100 팩스: (063)286-9206

ISBN 978-89-6612-482-4 95330 (PDF)

본 출판물의 판권은 전북연구원에 속합니다.

2023년도 주요 연구과제

기본연구

전라북도 선행경기종합지수 작성 연구
전라북도 경제와 거시경제의 동적 관계 분석 연구
전라북도 일자리 종합지수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전북 농촌노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기초연구
인구감소 대비 농촌마을 기본공간정보구축 기초연구
기초지자체 온실가스 배출특성 분석 및 탄소중립 전략 설정
지역문화인력의 근로실태조사와 근로환경 개선방안
전북 해양 역사문화자원 기초자료 집성 및 활성화 방안연구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전북 청년정책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전라북도 재정운용 효율성 분석 연구

기획연구

전북형 물류서비스 산업화 방안 연구
국제정세 변화와 새만금 중장기 글로벌 전략에 관한 연구
만경강·동진강 생태·환경자산 목록화 및 가치창출 연구
전주 남부시장 구슬사를 통해 본 전라북도 여성들

정책연구

전북연구개발특구 공간 확대방안 연구
전라북도 녹색복원 후보지 선정 및 사업화 방안 연구
전라북도 해외통상거점센터 활성화 방안 연구
지방시대에 대응한 전북형 기회발전특구 지정 방안 연구
전라북도 소상공인 경영실태 및 지원사업 개선방안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전라북도 대응 방안 연구
글로벌 스마트 재난대응 연구개발 실증단지 추진 방안
전북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성과 및 발전방안 연구
전라북도 문화재활용 문화융합상품 개발방안 연구
전라북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방안 연구
전라북도 탄소중립을 위한 식생활 개선방안 연구
전라북도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방안
소득보전 지원체계 지원방안 마련
「전북형 쌀 생산안정 기금」 조성·운용 방안 수립
전북 청소년복합문화센터 건립 방향 연구
전북형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체계 연구
현업축사 매입부지 활용 주민소득창출 방안 연구

 **전북연구원**

550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공취말쭈로 1696

Tel 063. 280. 7100

Fax 063. 286. 9206

www.jthink.kr

